

시로 읽는 성보순례
미륵이여, 미래불이여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
조선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6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01 호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새는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보리행경 제1권」

"과거 만행 사죄합니다" 日불교 참회비 세워진다

'동국사지원모임' 9월 16일 군산서 '참사문' 碑 제막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일본불교 종단 조동종이 저지른 과오를 참회하는 내용의 비문이 한국에 세워진다.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회장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본지와의 광복 67주년 특집인터뷰에서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은 오는 9월 16일 한국 유일 일본식 사찰로 잘 알려진 동국사(주지 종명)에서 일본 조동종의 전후(戰後) 참회가 담긴 '참사문(懺謝文) 비'를 제막한다"고 밝혔다.

가로 2m, 세로 1.8m로 세워지는 '참사문 비'는 기단은 연화문으로 장식되며, 비 왼쪽은 일본어 원문이, 오른쪽에는 한국어 번역문으로 채워진다. 이 같은 '참사문 비'는 지난 3월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군산 성불사 주지)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됐으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동지회)에서 일본 불교의 과오를 참회하는 차원에서 건립비용을 흔쾌히 전액 지불했다. 이후 모임회장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을 오가며 비문 제작을 살피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세워지는 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문의 내용이다. 비는 1992년 일본 조동종이 발표한 '참사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동종의 '참사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경책하고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참사문의 분량도 방대하고 일부 대목에 대한 사죄는 진정성도 느껴진다.

실제 조동종은 참사문에서 "석가모니 세존의 법맥을 잇는 것을 목표로 삼은 우리 종문은 여러 아시아 민족 침략 전쟁에 대해 성스러운 전쟁이라 긍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범했으며,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다. 조동종은 그 첨병이 돼 한민족의 일본 동화를 획책하고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됐다"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 "불법을 국가 정책이라는 세속적 법률에 예속시키고 나아가 타민족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침탈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참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조동종의 사죄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한일 양국 불교의 협력 아래 군산 동국사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참사문 비' 건립에 대해 종걸 스님은 "조동종의 참사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인 유감 표명과는 그 결이 다르다. 2차 대전 시기 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하는데 일조한 종단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며 "정부들도 풀지 못하는 역사의 갈등을 한일 양국 불교계가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비문 건립으로 한일 갈등과 불교 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불교 사회운동을 연구해 온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도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이 비문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 · 15 광복 특집 3면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동지회 회장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군산 동국사에 세워질 참사문비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일본 조동종 발표한 '참사문'
20년만에 한국서 비문으로
종단 과오에 절절하게 참회
역사 갈등 해결 초석 되길

참 사 문
(참회와 사죄의 글)

우리 조동종은 명치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해외포교라는 미명 하에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행한 아시아 지배 야욕에 가담하거나 영합하여 수많은 아시아인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중략〉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범했으며 조선을 종속시키려 했고, 결국 한국을 강점함으로써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말살해 버렸는데, 우리 종문은 그 첨병이 되어 한민족의 일본 동화를 획책하고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중략〉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상이나 신앙을 초월해 훨씬 엄숙하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맹세한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리고 과거 일본의 억압 때문에 고통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하면서 권력에 편승하여 가해자 입장에서 포교했던 조동종 해외 전도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이다.

1992년 11월 20일
조동종 종무총장 大竹明彦



사찰에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 어린이 ·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각 지역 사찰에서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대구 동화사는 7월 30일~8월 1일, 8월 2~4일, 8월 10~12일 3차례에 걸쳐 '달마야 놀자'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수련회는 팀별 게임, 운력, 동화사 탐방, 물놀이, 3보1배, 즉문즉설, 소원지 작성, 부모님 선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진은 참가자 학생들이 동화사 경내 다보탑을 돌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기사5면

사진 제공= 대구 동화사

상반기 출판 키워드 '힐링'과 '치유'

마음 · 명상 관련 번역서 잇따라 출간
독서로 상처치유 간접 경험 인기 원인

책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올 상반기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출판계의 대세는 국내외 힐링 관련 에세이들이다.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취업난에 찌든 20대부터 불황에 고개 숙인 40대까지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여름휴가의 최대성수기인 8월 첫째주 베스트셀러 20위권 내에 스님들의 힐링 에세이 4권이 올랐다. 지난 주 안철수 열풍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준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2위를 유지했다.

스님들의 에세이가 몇달째 베스트셀러 순위서 밀리지 않는 이유는 책에 담긴 '힐링'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다. 최세라 예스24 도서팀장은 "지난 4월, 5월에 '두드림' '힐링캠프' 등 "방송을 통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줘 현실에 지치고 삶이 답답한 독자들이 관련 책을 찾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힐링 열풍은 해외번역물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음 치유와 관련된 명상 번역서들이 잇따라 출간돼 역시 인기 몰이에 한몫을 거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계 불광출판사가 펴낸 '받아들임'이다. 미국의 저명한 불교명상학자인 타라브랙이 펴낸 이 책은 근본적 수용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보여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힐링바람' 당분간 계속될 듯
해외 불교 명상가 저서 주목
국내 스님 책 4권 베스트셀러

책이 나온지 채 석달 밖에 안됐지만 벌써 2만부가 팔려 나가는 기록을 수립하며 베스트셀러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했다.

불광출판사 김명환 부장은 "누구든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보편적 사례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장은 "힐링 바람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불광에서도 관련 도서를 계속 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번역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놓아버리기' '헤드스페이스'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콰이어트' '성난물소 놓아주기' '마음길들이기' 등 10여권이 넘는다. 이중 '받아들임' '성난물소 놓아주기' '놓아버리기' 등은 불서총판 운주사가 집계한 불서베스트10에 한 달 이상 올라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공에만 매달리는 치열한 일상, 초조함을 버리고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 치유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독자들도 힐링 관련 책들을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힐링 관련 해외 번역서

도서명	저 자	출판사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불광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비산트 조시	물병자리
받아들임	타라브랙	불광
놓아버리기	아잔브람	궁리
헤드스페이스	앤디퍼디컴	불광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버나드	문학의 숲
성난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 기쁨
마음길들이기	제프리홉킨스	이솔
콰이어트	수전 케인	랜덤하우스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토네이도

901호 INDEX

종합 2
외국인 사찰 방문객 실태조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 · 17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원장



해외불교 18
美지도자들, 불교의식 참가 '눈길'

문화 20
불혹 '남자의 여행' 展

여름방학 특집 27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

제2회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점수 부여

응모내용

공모주제 불교 관련 소재(미풍 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 외 미발표작)
참가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접수기간 2012년 6월 1일 ~ 10월 5일(당일 소인 유효)
작품규격 가. ① 슬라이드 필름 : 컬러 및 흑백 사진 11″ × 14″(장정불요)
② 디지털카메라 : 최소 3024 × 2016 픽셀(5MG이상, JPG파일)
나.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접수방법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한 출품표를 부착해 우편 또는 이메일(ggbn@ggbn.co.kr) 접수
주소 : 110-776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 (02-723-1548)
심사발표 2012년 10월 초 · 중순 대한불교천태종(www.cheontae.org)과 금강신문(www.ggbn.co.kr) 홈페이지 및 지면

※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천태종, 금강신문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금 상(1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4점 부여)
은 상(2점)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3점 부여)
동 상(3점)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2점 부여)
가 작(5점)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하 2점 부여)
장려상(5점) 출품수가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입 선 입상작 포함 출품작 수의 20% 이내

수상작 전시

일 시 2012년 10월 24일~30일
장 소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 4 · 5층(인사동 사거리 위치)

기타 유의 사항

- 금 · 은 · 동상 입상자는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 원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름 원판, 디지털 작품은 3024×2016픽셀 이상의 원본파일을 CD로 제출), 미 제출시는 상권을 취소함.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대한불교천태종에 저작권이 귀속되고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 입선될 경우 상권을 취소함.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한국불교사진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



미륵이여, 미래불이여

이 가 림

아홉 살 적
까까머리 동승인 양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환한 봄 꽃보라 마구 흩날리던
금산사 마당에 들어섰을 때
모악산 등성이에다 대고 꾸벅 절을 했을 뿐
미륵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네

1층 대자보전보다
2층 용화지회보다
3층 미륵전보다
키가 큰 미륵보살의 모습

얼마나 마음의 귀를 씻고 씻어야
저 강물 같은 숨결을
엿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의 거울을 닦고 닦아야

저 연꽃 같은 미소를
비출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열어야
저 바위 같은 침묵의 말씀을
깨칠 수 있을까

토끼는 토끼대로
들쥐는 들쥐대로 사는 용화세계
견훤이 꿈꾸었던 평화세상을
언제가 꼭 이루고야 말
미래불이시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가림 시인은… 1943년 만주 출생.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내 마음의 협궤열차〉등.

사찰 방문 외국인 "안내문은 어디 있나요"

불교문화사업단, 외국인 방문객 조사… 설명자료 미흡 '지적'

서울 종로 조계사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문의 부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편의시설 청결도와 내부 볼거리의 만족도도 낮게 평가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이 최근 발간한 〈2011 국내여행업계와 연계 현황 및 2012 조계사 외국인 방문객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인바운드 여행업계와의 연계 현황과 이를 통해 사찰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지난해 여행업체들의 연계로 가장 높은 외국인 관광단체 방문 횟수를 기록한 사찰은 조계사 였다. 총 방문횟수 8천여 건 중 조계사에만 3190건이 몰렸고, 불국사(1484건), 신흥사(1161건), 제주 약천사(4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사를 통해 사찰을 방문한 총 외국인 수는 11만 4천여 명으로 조계사에는 3만9천여 명이, 기타 지역 사찰에는 7만4천여 명이 찾았다. 여행 상품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상당 수가 종로 조계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친철도, 유익성은 높은 점수
한국불교 전반 인지도 낮아
템플스테이 홍보관 활용 시급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명암이 갈렸다. 5점 척도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행상품 이미지 개선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님과 종무원의 친절(4.09점) · 프로그램 유익성(4.07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 나타났다.

하지만, 조계사 안내문과 설명 부족이 3.19점으로 가장 낮게 집계 됐으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청결도(3.46점) · 내부 볼거리(3.59점) 등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조계사에 대한 안내물 및 설명 자료가 정문 입구에 비치돼야 하며, 편의시설의 청결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조계사 내부 볼거리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와 템플스테이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국인 관광객 중 67%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설문 참가 외국인 중 6.2%만이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행업체들의 템플스테이 홍보관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6.7%, 홍보관 소개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에 대해 보고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한국불교문화의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외국인 고객 확보 방안을 위한 정기적인 기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 홍보관은 조계사 방문과의 연계 코스로 지정돼야 하며 공동 홍보 마케팅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사, 호텔, 공항 등 공격적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며 "여행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43개 종교단체 세금 52억 원 체납

서울시, 특별징수 추진… 종교계 8천여 만원 납부

개신교계 체납이 가장 높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조세 정의'를 위해 사회 지도층과 종교단체를 특별 관리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사회지도층 11억9,800만원, 종교단체 8,9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했다.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 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종교 부지를 취득해 비과세를 받은 후 3년 이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실제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도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취 · 등록세 2,900만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해 왔다. 하지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징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산업코드 받는다

불화장, 주철장 등 53종… 전승 활성화 기대

불상, 단청, 활장, 범종 등을 제조하는 중요무형문화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각종 전통문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제정 · 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는 공예 49종, 음식 4종 등 총 53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등록됐다. 불교관련 무형문화재로는 단청장(42411 도장 공사업), 대목장(4111 단독 및 연립 주택 건설업), 금속활자장(18121 제판 및 조판업), 목조각장(16293 불상, 보살상 등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주철장(2432 범종 등 동주물 주조업), 불화장(90132 비공연 예술가) 등이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관련 종사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정부의 각종 전통문화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등 각종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분류로 전통 공예의 전승 활성화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 지정되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분류 코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로 사업자 등록, 공장설립 허가,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신중일 기자

'절전' 불자들이 먼저 시작해요

불교생명윤리協 포스터 배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절전 운동을 전개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박광서)는 '절전 포스터'를 제작해 8월 2일부터 전국 사찰과 관공서, 기업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2가지로 제작된 포스터는 아기 부처님과 동자승이 전기 스위치를 끄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절약하는 손 아름다운 손', '절전! 지구를 살린다'는 문구도 함께 수록돼 있다. 또한 '핵발전과 폐기물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구호를 담아 탈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전기 등 에너지 절약은 모든 시민의 생활운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소욕지족의 철학을 담은 불교계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 불자들의 실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성 명 서

- 백양사 교구종회는 무산되었음을 천명함 -

귀의삼보 하옵고 대덕 큰스님께 사룁니다.

지난 8월 3일 백양사에서 교구종회가 열렸으나 무산되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전체 교구종회의원 43명 가운데 유효한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교구종회의원은 13명 밖에 되지 않아서, 교구종회법 제27조의 의사정족수인 재적과반수 출석요건 22명에 턱없이 부족하여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구종회의원 자격이 있는 33개 말사주지 중 1/3밖에 안 되는 11개 사찰주지만이 겨우 참석하였고 그나마 참석한 사찰들도 온갖 회유와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참석한 말사가 대부분입니다.

백양사 현 집행부 시몽스님은 교구종회가 출석 19명, 위임 5명이어서 성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회의를 개회하여 총림 임회위원과 교구선거관리위원 선출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구종회의 개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먼저, 교구종회 소집 통지를 7월 26일 자로 발송하였는데, 백양사 본사 국장 중 총무를 제외하고 그 동안 공석이었던 6직을 7월 31일부터 회의 당일까지 급조하여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사 소임자들은 종무회의를 통한 임명장 수여 및 총무원 보고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변칙적인 인사 구성임은 물론이고, 교구종회 소집통지 후에 구성한 것이므로 총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국장은 유효한 교구종회 참석자격을 갖춘 소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획국장으로 되어 있는 현성스님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교구종회 의원 명부에도 올라있지 않았는데 당일날 참석해서야 자필로 직함과 법명을 적어 넣을 정도였고, 호법국장 스님은 당일 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임자 가운데서는 본사주지와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6국장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구종회 참석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헌 종법상 중앙종회든 교구종회든 회의 성원을 위해서는 종회의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유효한 것이지, 대리출석이라든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교구종회법 제27조(의사정족수) '교구종회 본회의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는 규정을 보면 출석이라는 부분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임 5명은 교구종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임 5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교구종회 의원명부 하단, 위임이라는 난에 '불회사 위임장, 우송사 대리인, 구미 봉불사 위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불회사만 사전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봉불사는 구두 위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사는 사설사암으로서 주지임기가 2011년 4월 4일 자로 만료되어 주지품신을 올리지 않아 교구종회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교구종회 말사주지 명단에도 서명을 하고, 또 위임란에 적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임자 숫자로도 세어서 이중으로 계산하는 뻔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호법국장으로 거명한 스님과 성원사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몽스님은 위임자란 말미에 두 스님의 법명을 자신이 직접 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성원에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려 온갖 변칙을 썼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절차 또한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구종회의 유효 참석자는 13명에 불과하여 과반수 22명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교구종회 개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그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제방에 알리는 바입니다.

오죽하면 성원을 채우기 위해 종단 원로의원인 암도스님마저 교구종회의원으로 참석하여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종단의 원로로서 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전체 대중의 뜻을 살펴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운신해야 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욕을 위해 종단을 유린하고 징계 심리에 처한 시몽스님측과 함께 어울려 불법적인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날 시몽스님 측에서 교구종회를 연 목적은 임회위원 임기 만료로 선출직 임회위원을 새로 뽑는다는 명분이었으나, 임회위원의 임기는 총림법에도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통적으로 방장스님과의 협의를 통해 선출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양사 임회는 방장스님이 추대된 이 후에 선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시몽스님 측은 현재의 임회위원 대부분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기를 핑계로 본인에게 협조적인 인물들로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모든 불법과 편법을 써서라도 또 다시 총림을 흔들고 불안을 조성하여 그 틈새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치부를 감추고 면죄부를 받아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백양사 대중과 거개의 말사들은 시몽스님과 종무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참하지 않았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이번 교구종회를 통해 다시한번 뼈저리게 확인하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금번 교구종회는 확실하게 무산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며, 백양사가 반드시 정상적인 본사가 되도록 기필코 만들어 놓겠습니다.

불기 2556년 8월 6일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구 종회 불참 말사 주지 일동

“구호로 세상 바뀌지 않아… 행동하고 실천하라”

최근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 펴낸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 인터뷰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青森縣) 운쇼지(雲祥寺) · 주지이자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 회장이다. 이밖에도 원죄 ‘사야마(狭山)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 · 평화 · 환경’ 운동단체 ‘촉광(燭光)’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가 있다.

일본 불교, 침략 전쟁 동참
“불교 근본정신 져버렸다”
조동종 과오 조사… 책 발간
강점기 사원 목록 새로 발굴

소녀상 평화비 말뚝테러는
日우익 자금 조달 퍼포먼스
불교적 실천 위한 연대 필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지 67년이 지났다. 반세기가 흘렀지만 한일 양국이 가진 갈등의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스님은 현재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담고 있는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설립해 묻혀있던 한일 불교사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돌며 자신의 종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질렀던 과오의 흔적들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침략 행위을 담은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를 발간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서면으로 진행된 본지와의 특집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종단, 조동종의 침략 행위를 인정하고 “불교의 근본정신을 져버린 일”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 만행 중 일부에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이 이토의 아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회유한 일도 포함된다.

최근에 벌어진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평화비 말뚝 테러에 대해서는 “일본 우익 세력의 자금 모으기 퍼포먼스”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구호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치노헤 스님과의 일문일답. 일본어 번역은 군산 성불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도움을 줬다.

최근 군산 지역의 일제 강점기 흔적들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현지를 조사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다. 일본에서는 전쟁자료를 보존해하고 기록해서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쟁 당시 어두운 기억을 상기하고 싶지 않아서다.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알고자 하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물건이나 사진은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는 종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불교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본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다. 국가나 사회, 교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일본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조동종은 전쟁 당시 한국사회와 불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일본 조동종은, 다른 일본 불교종파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종교적으로 적극 협력했다.

특히 1932년 10월 장춘단공원에 설립된 ‘히로부미사(博文寺, 현재 신라호텔)’의 초대 주지를 조동종 승려가 맡았다. ‘히로부미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는 절이었다.

2대 주지 우에노 순에이(上野 舜穎)는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이 제창한 ‘심전개발(心田開發, 조선인의 일본화를 목적으로 한 정신개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 1939년 10월 15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安俊生)을 ‘히로부미사’에 이토 암살을 속죄하는 ‘사죄 참배’를 회유하기도 했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고 조동종은 서울에서 별원을 철수하면서도 봉은사 주지를 홍태욱에게 맡겼다. 홍태욱은 봉은사 재건 당시 일본군 희생자 위령탑을 세운 ‘친일파 승려’다.

이런 활동들은 일본의 조선 침탈 정책에 조동종이 뿌리 깊게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들이다.

최근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하였나〉라는 책을 출간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조선 침략기에 모든 일본 종교가 전쟁에 협력했다. 침략행위에 대한 협조로 일본불교는 ‘불교의 근본정신’을 버렸고, 책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부는 근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가는 과정과 거기에 조동종이 어떻게 개입된 것인지를 그렸다. 후반부는 함경북도에 일본이 만든 군사 도시 군도(軍都)와 나남(羅南)에 창건된 조동종 사찰 난젠지(南禪寺)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권말에 첨부한 ‘조동종사원 · 포교소 목록(1902~1944)’은, 새로운 자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고했으면 한다.

최근 소녀상 평화비 말뚝테러로 한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침략 신사〉의 저자 츠지 미노루는 "이번 일본인의 말뚝테러가 우익 자금 모집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갈파하고 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면 반드시 머리를 치켜든다. 그리고 그 표적은 꼭 한국이나 중국이다. 정말로 한심한 짓이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동지회 회원수는 25명 정도다. 큰 모임은 아니지만 회원 모두가 침략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동국사를 통해서 묻혀 있던 한일불교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불교교류를 통해 불심을 되찾는 일이다.

1차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동국사에서 ‘치욕의 36년 일제 유물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16일에는 2차 사업으로 ‘참사문(懺謝文)’ 비문 제막식을 동국사에서 봉행한다. ‘한일 불교인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로 받드는 종교다. 정치나 경제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며, ‘마음의 평화’만을 외쳐서도 안된다. 불교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며, 불교적 관점에서 끈질기게 평화를 계속 주창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불교연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8월 15일이다. 한일 양국 국민과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후 67년이 지났고, 전쟁과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연구하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불교계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한국 불교계에는 일본 불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지금이야말로 이 불신의 벽을 뛰어 넘을 때라고 생각한다.

양쪽 모두 사실을 검증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일 불교교류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치노헤 스님은 인터뷰를 게송으로 마무리했다. 〈법집요송경(法集要誦經, 일본에서는 ‘감흥화’)〉의 한 구절이었다.

“시방으로 마음 찾아 헤매었으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네. 남도, 각각의 자기가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불교의 ‘두 얼굴’ 어떻게 형성됐나

한국에서 일본은 ‘가까우면서 먼’ 나라이다. 하물며 일본 불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미약하다. 그나마 최근 2~3년 사이 일본불교사의 거두 스에키 후미히코 등의 저서가 번역돼 출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먼저 스에키 후미히코의 〈근대일본과 불교〉에서 당시 일본 불교의 공과 과를 찬찬히 기술했다. 근대 일본에서 불교는 사상의 한 축이었다. 전통종교인 신도는 논리가 취약했고, 유교는 봉건적 위계사상이 강했다. 근대의 불교는 ‘전통 · 근대 · 탈근대’라는 당시 일본 근대사상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사상으로 급부상했다.

1894~1945년 시기의 일본 불교는 국가에 종속돼 면서 사상적인 빛을 잃는다. 정토종의 기요자와 만시(清澤滿之)는 “국가에 일이 있을 때는 총을 메고 전쟁에 나가도 좋다”고 독려하기도 했으며, 선의 세계화를 추구한 스즈키 다이세츠 역시 “국가를 위하는 것이 종교를 위하는 것”이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는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임제종- 전투기 모금운동 전개
조동종- 日 전승기원법회 봉행
좌선을 군사훈련 방법으로 활용

묵조선의 승려인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의 〈전쟁과 선〉은 침략 전쟁 당시 불교의 역할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쟁을 지원한 선사와 학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종단들의 침략 전쟁 지원 행위도 기술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임제종의 경우 과거 군사적 전통이 깃든 회향문을 되살리려고 했으며, 군대에 전투기를 기증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임제종 묘신파의 모금활동은 두르러진다. 이 분파는 연합종단의 1/3도 안됐지만, 종전까지 해군에 세 대의 전투기를 원조했다.

또한 당시 선승들은 좌선을 장교와 사병, 군수 산업인력의 훈련 방법으로 활용했다. 훈련 강습은 공장 기숙사나 인근 사찰에서 한 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좌선의 실천에서 유래하는 덕이 무한한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항상 권유받았다.

최근 발간된 이치노헤 쇼고 스님의 저서 〈조동종은 조선에 무슨 일을 했나〉는 침략전쟁 당시 종단 과오를 짚고 있다. 책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70개의 조동종 사찰과 포교소가 있었고, 군산 동국사도 조동종 소속이었다. 당시 조동종은 조선과 만주에서 ‘전승기원법회’를 봉행하는 게 주요한 임무였다. 함경도에 건설한 군사 도시 중 하나인 나남에도 남선사라는 사찰이 건립돼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 사찰에는 장병들의 유골 안치실도 마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원들은 선무 교화에 힘을 불어 넣었고 이는 종단 사찰 소속 포교소의 급증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 명 서

- 암도스님은 자중하시라 -

귀의 삼보하옵니다.

암도스님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한다는 말이 암도스님 문도측과 현 백양사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에 실행한다는 소문이지만 현재까지도 백양사 전체 문도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본인의 지인과 권속들에게만 알린다고 하니 본인들도 뭔가 거림찍한 모양입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라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종헌 종법을 유린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또 다시 종단을 우롱하는 해종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조계종 총림의 기준이 하향 됐다 하여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총림의 방장은 적어도 최소한의 안거를 거쳐야 하는데도 암도스님께서는 운문선원에서 딱 한철만 지냈을 뿐입니다. 또한 총림대중들의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암도스님에 대한 백양사 대중들의 심정은 매우 불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측은지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백양사는 지금 극심한 내홍과 외홍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현재 주지스님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해 호계원 초심에 징계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몽스님의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겨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산 방장스님을 거역하고 천인공노할 불법 도촬로 인해 종단과 백양사를 초토화시키고 그도 모자라 각종의 성명과 제안서들로 종도들을 혼란케 하고, 종헌 종법을 유린하였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틈을 타서 이들 세력과 결탁하여 언감생심 방장 욕심을 내고 또 다시 백양사를 자신들의 토굴처럼 사유화 하려는 음모야말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암대종사께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양사에 총림을 설치하셨습니다. 서옹대종사께서도 총림을 다시 복원하여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 하시었고 근대 한국 최고의 선승들도 운문암을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 기상은 높았습니다.

서옹대종사께서는 이를 면면히 이어가라는 뜻에서 광제 자옹스님을 후계자로 부촉하셨고 수산대종사께서도 광제스님을 부방장으로 유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선대 대종사들의 뜻을 받들어서 방장스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대중들의 의무라 할 것이며, 최소한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대중들의 뜻을 묻는 것이 도리이고 절차이자 법적 요건입니다. 그러나 총무원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대중의 뜻을 물어보라는 것도 무시하고, 더구나 중앙종회에서 정상화 이후 방장과 주지, 종회의원을 선출하라는 결의마저도 일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려 온갖 불법 편법을 사용하여 막무가내식 으로 방장을 추대한다하니 이는 막행의 끝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대중을 파화합하는 씻지 못할 바라이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양사는 시몽스님이 물러나는 시점이 바로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암도스님은 바로 이 날이 되기 전에 원로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방장의 지위를 넘보려 하고 있으나, 조계종과 백양사가 아무리 허술하다 하더라도 종도와 문도들이 가만히 좌시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발 자중하시길 권고 드리며 아울러 같이 경거망동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불기 2556년 8월 6일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성오 (전 백양사 주지)

일 주 문



강정평화행진 동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강정마을 평화행진'에 동참해 강정마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천태종 하안거 결제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8월 2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스님과 불자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한다.



법화산림 대법회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8월 22~31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법화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성지순례 및 대중공양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8월 22일 문경 봉암사에서 성지순례 겸 선방대중공양을 봉행한다. (061)782-7600



로터스월드 후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불영사 염불만일수행결사회와 함께 캄보디아 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매월 300만원 씩 10년 동안 로터스월드를 후원한다.

"재가불자 교육도량 역할 다할 것"

창립 30주년 준비하는 이상우 동산반야회 이사장



군불교 종사자 무상교육 실시
1대1 결연 통해 군포교 나서
11월 창립 맞춰 교육불서 발간

"재가불자 교육도량으로서 불법의 사회적 회향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동산반야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포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동산반야회는 1982년 창립 이래 최초의 기초교리강좌를 진행하고, 1992년 최초 불교교양대학인 동산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재가불교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동안 배출한 법사 수만 해도 1만여 명에 이른다.

이상우 동산반야회 이사장(사진)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재가불교 활성화를 서원했다.

창립 30주년 첫 행사는 8월 11일 개강한 41기 교육에서 군불교 종사자 무상교육이다. 동산불교대학의 통신반을 통해 군법당 관련 종사자들이 불교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이사장은 "군법당 관리 사병 및 부사관들중 불교지식이 많은 이가 드물어 불교교리 교육을 요청해 이번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동산 출신 포교사들과의 1대 1 결연을 통해 군포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동산반야회가 진행하는 통신 수업은 일반군인들에게도 개방된다.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50% 할인 특전이 있다.

이상우 이사장은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개교 30주년을 맞아 보람 있는 회향불사라고 생각한다"며 "재가불자 교육도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서는 故 김재일 이사장 당시 포교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구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여러 현안으로 대사회 활동이 많이 축소된 상황. 2011년 취임에서 "묵묵히 불교계에서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이상우 이사장은 재가불교 활성화와 함께 대사회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이사장은 "재가불교 근본도량인 동산의 명성에 걸맞게 공의를 모아 다양한 이타행을 펼치는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0주년을 맞아서는 〈알기 쉽게 풀어쓴 천수경〉 등 재가불자를 위한 불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창립일인 11월 10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정식과 함께 동산반야회 회원의 교우를 다지는 학예발표회, 바자회 등도 열린다.

이상우 이사장은 "불교정법의 대중화, 대승불교의 생활화, 한국불교의 정토화의 설립 취지에 맞게 불법 홍포에 적극 나서겠다"며 사부대중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대행인재장학금 수여

안지현 하버드대학원생에 학비 전액 지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안지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2년 대행장학회(이사장 혜수) 인재장학금 수여식이 8월 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열렸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신도 자녀 가운데 신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인재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美 하버드 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는 안지현 학생에게 수여됐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지난해부터 인재장학금을 받고 있는 김원성 학생(카네기멜론대학 정보시스템학과), 박지은 학생(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도 함께 소개됐다.

대행장학회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2006년 발족한 모임이다. **이나은 기자**

범어사 지백 스님 영결식 엄수



부산 범어사 지백 스님 영결식이 8월 5일 범어사 침계루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다비식은 생전 간소하게 치루라는 스님 유언에 따라 부산 영락공원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께서 꿈같은 생애 100년을 마치고 떠나니 이제 다시는 뵐 수 없어 허전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오늘 스님의 세연이 다함을 보고 산새도 슬퍼하고 산하대지가 흐느낀다"고 말했다.

영결식은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의 지백 스님 행장 소개, 조실 지유 스님의 추모법문,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의 추모사, 문도대표 설파 스님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한편, 8월 3일 세수 100세, 법납 67세로 입적한 지백 스님은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문경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평생을 수좌로 정진했다. 1978년부터 범어사 해행당에서 주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늘릴 터"

연꽃축제 10회 맞은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봉원사 연꽃축제에는 국내 불자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절 마당에 핀 연꽃들을 보며 '원더풀'을 연발하며 즐거워합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는 특히 산사음악회, 등불점화, 사진전, 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명실 공히 도심사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제10회 서울연꽃문화축제'를 8월 4~11일 경내 특설도량에서 개최한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봉원사는 문화적 인프라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도량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관심도가 높아진 편입니다."

일운 스님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영산재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언제든지 봉원사를 찾아오면 영산재를 정통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 개최 10년을 계기로 도심의 문화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혜초 스님 순례길 따라 불심 다져

공불련 실크로드 제11차 해외성지순례



실크로드 성지순례에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하는 공불련 회원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신행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제11차 해외성지순례를 거행했다.

서안을 시작으로 돈황 막고굴, 우루무치, 투루판 등 실크로드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송도근 고문(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감사원 등 8개 기관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6명이 참가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우리나라 혜초 스님이 남긴 〈왕오천축국전〉이 잘 보존돼 있는 돈황 막고굴을 비롯해 실크로드 일대 불교성지를 순례하며 불심을 다졌다"며 "각 기관에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신문 · 금강대 불문연 협력 체결

금강신문사(대표이사 무원)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이하 금강대 불문연)가 사회 환원 사업 등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금강신문사 주간 갈수 스님과 김천학 금강대 불문연 소장은 8월 6일 금강신문사 사무실에서 협력기관 체결서에 서명했다.

협력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인지도를 극대화한 인적 교류와 홍보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제30기 진각종 유치원 교사 연수



진각종 교육원 교육부(부장 관천 정사)는 8월 2, 3일 양일간 위덕대에서 제30기 종단산하 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연수를 개최했다.

탑주 · 진천 유치원과 나리 · 삼양 · 혜정 어린이집 등 19곳에서 4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는 경정 정사의 주제강연에 이어 김수향 위덕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의 '진각종의 교리를 유아교육활동과 통합', 교육국장 법경 정사의 '종립교육의 필요성' 등의 강연과 전통문화다례연구원에서의 체험활동,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1부 • 최종성적증명-1부 • 입학신청서-1부 • 여권용사진-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남경대학	4년	40명	
남경부속 중 · 고등학 교	각 3년	4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주지스님 추천자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5. 문 의 처

☎ 전화 : 011-472-2782(직통)
☎ 팩스 : 02)511-2028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校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절 캠프 다녀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청소년 대상 캠프에 참가해 무더위를 이기고 알찬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늘고있다. 사진은 대구 동화사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물놀이 하는 모습.

보름이 넘도록 지속된 폭염 탓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즐거운 여름방학이지만 무더위에 학생들은 야외활동이 꺼려지기만 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를 이기고 누구보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들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 어린이 ·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각 지역 사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캠프와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캠프 성료

한문 · 사찰문화 동시에 배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빼면 미황사가 최고에요!”

새벽 5시. 해남 미황사 여름 한문학당에 참가한 염효진(12) 양은 아침마다 잠과 사투를 벌인다. 평소엔 한밤중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자신을 보낸 부모님이 더없이 원망스러워지는 시간이다. 낯선 친구들과 함께 절에서 생활하는 것도 영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하다.

한문을 배우기 위해 한문학당에 참여했지만 그 보다 난생 처음해보는 발우공양과 다도가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달마산 산행과 108배 등도 어린 염 양에게 또 다른 고행이다. 집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보지만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막상 회향식 날이 되자 염 양은 눈물을 쏟아냈다.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13년째 한문학당을 실시해온 미황사(주지 금강)는 여름템플스테이 사찰 중 가장 긴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문학당은 7월 22~29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7박 8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미황사 한문학당은 매년 참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 한문학당에는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인 학생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황사 한문학당은 가장 기본적인 불교예절을 바탕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 한문교육이 이뤄지며 미황사 탐방, 달마산 생태체험, 탁본, 땅끝 바닷가 체험, 단청 그리기, 108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매일 번갈아 진행된다.

특히 미황사의 한문교육은 높은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금강 스님이 직접 편집한 〈수심보경〉은 사자소학과 법구경, 명심보감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엮어, 학생들이 한문을 어려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소 빡빡하게 진행되는 일정에 아이를 맡기고 걱정했던 부모들도, 회향 후 자녀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금강 스님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음식도 가리지 않고, 절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부지런해 져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한다. 또한 불교문화를 통해 효심도 일깨워줘서 부모님들의 만족감이 높다”며 “아이가 ‘발우’나 ‘다기’를 사달라고 해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전화도 온다”고 말했다.

김상현(11) 군은 “108배를 할때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절에서 풀도 보고, 벌레도 보고, 가제도 잡고, 개구리도 보니 재밌었다”며 “부처님은 지혜롭고 멋지고 착한 분 같다.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어린이 · 청소년 모두 즐기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캠프도 진행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7월 23~26일 경주 일원에서 ‘제15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잠과 사투벌이며 불교문화체험
중국 등 외국인 학생도 참가
집에 가면 ‘발우’ 사달라 졸라

이번 캠프는 불국사 미션 문화재 답사, 석굴암 참배, 경주 남산 문화유적 답사, 참나를 찾는 명상체험, 전통문화체험, 음악놀이축제 등 20여 개가 훌쩍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도 1200여 명이 넘었다.

특히 사찰문화탐방은 유명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런닝맨’ 등을 차용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유산을 재밌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된 ‘불국사 미션투어’는 학생들이 사찰 곳곳을 뛰어다니며 미션지를 찾아 미션을 실행하는 형식이었다.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주어진 미션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사찰문화탐방미션, 물놀이 등
3보1배, 명상체험 등 참여
판화전시 통해 각 나라 이해

김민지(17) 양은 “친구 따라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행사가 정말 즐거웠다. 내년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환하게 미소지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는 7월 30일~8월 3일 2박3일간 2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2012 연꽃 어린이 · 청소년 연합캠프’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소원풍등 꾸미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축제 등 진행했으며, 청소년들은 나를 찾는 용맹정진, 힐링 타임,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서 등을 진행했다.

산사에서 물놀이로 더위 날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단연 물놀이.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7월 30일~8월 1일, 8월 2~4일, 8월 10~12일 3차례에 걸쳐 ‘달마야 놀자’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펼쳤다.

동화사는 산사에서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 동화사 탐방, 3보1배, 즉문즉설, 소원지 작성, 부모님 선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민정(13) 양은 “절에 와서 발우공양을 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집에서 반찬 투정하고 지낸게 부끄러웠습니다”라며 “앞으로는 절대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에요”라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판화작품 통해 각 나라 문화 이해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7월 28~8월 1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3회에 걸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숲속판화학교’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자신의 한국 이름을 목판에 새겨보는 등 한글교육과 전통판화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국적도 종교도 다른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애를 느끼고 한국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현승(13) 군은 “이곳에 와서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차별 없이 놀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가톨릭 신자인 일본인 카즈코(58 · 주부)씨는 “한국에 온지 3년이 됐지만 템플스테이는 처음 참가해 본다. 찜통 더위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뜻 깊은 체험을 해 즐거웠다”며 “특히 한국 전통 판화 제작과 산행, 명상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선학 관장은 “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 여러 나라의 작품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자료제공=동화사, 미황사, 고판화박물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참가자 학생들이 동화사 다보탑을 돌고있다.



숲속판화학교에서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다.



미황사에서 와선 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연꽃연합캠프에서 풍등을 만드는 청소년 참가자.



파라미타연합캠프에서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



연등을 만드는 어린이들 표정이 즐겁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3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다음카페 : cafe.daum.net/9dan9gung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9dan9gung

주민 중심 지역모임 활성…신도증대 효과

도심 주요사찰 신도 중심
지역모임 결성 포교 활성화

바쁜 일상생활과 거리상의 문제로 사찰 법회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지역 또는 가정에서 소규모 법회를 봉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불자간 상호 유대감 증진에도 기여해 도심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모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모임 사찰 확대

지역모임은 대체로 대형사찰 신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찰의 공간적 제약과 거리상의 문제로 사찰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신도들이 같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모임을 갖고 있다.

지역모임 활성화 추진 1주년을 맞은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현재 강남, 강북, 관악 등 서울시에만 25개 지역모임이 형성돼 있으며, 경기권에도 6개의 지구가 마련돼 있다. 각 지구당 적게는 20~30명, 많게는 70~80명 정도의 신도들이 지역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은 현재 가장 많은 지역모임이 형성된 곳 중 하나다. 서울, 경기, 광역도시 등 약 1000여개의 지역모임이 구성돼 있으며, 주로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 모임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 서남권 거점사찰인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신정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법회와 각종 지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역시 서울권 지역 및 지방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지역모임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안성, 수원, 송산 등 인근 경기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활동에도 적극참여

지역별 모임은 보통 1달에 1~2회 정도 만남을 갖고 법회를 진행한다. 주로 가까

조계사 지역모임추진 1주년
31개 지역에서 매달 법회진행
법문 동영상 보며 신심 키워
봉사 · 지역 사회활동에도 적극

운 지역 사찰이나 관공서 등에서 진행하며,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가정집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기도 한다. 지역모임은 대체로 적은 인원으로 구성돼, 스님법문 동영상이나 가정법회교재로 진행된다.

이들은 단순히 신행활동 뿐 아니라, 서로의 애경사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봉사 및 지역 내 종교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마포청소년수련관은



사찰의 공간적 제약과 거리상의 이유로 사찰 방문이 어려웠던 신도들이 지역모임을 통해 새로운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 강동구 지역모임 법회 모습(사진제공=조계사)

신입직원채용 시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조계사 마포구 지회는 이를 문제제기 하고 지역 내 종교 차별 방지에 앞장서기도 했다. 신도들은 불교의 중추적 역할자로, 새로운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도증대 및 포교활성화 기여

이런 지역모임은 불교가 생활 속에서도 실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불교계에서는 개인적인 신행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활동에도 적극 기여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포교활성화와 더불어 신도증대에도 효과를 보여 앞으로 지역모임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지역 모임은 본래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이 실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흩어져 있던 신도들이 지역모임 결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모임 활성화를 통해 불교가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동국대, 故박영석 도전정신 강좌 개설

박영석 대장 산악인생과 업적 다뤄
이인정 산악연맹 회장 등 강연 예정

동국대가 故 박영석(동국대 체육교육과 83학번)대장의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박영석 강좌'를 오는 2학기부터 개설해 공개강좌로 운영한다.

9월부터 '산악인 박영석의 탐험과 도전' 이란 주제로 정규 교양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박영석 강좌'는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을 비롯해 김진성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 (박영석 탐험문화재단 이사), 배경미 아시아산악연맹 사무총장, 신언훈 SBS 프로듀서 등 박영석 대장의 산악탐험 인생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회 저명인사들이 강의를 맡기로 했다. 이번 강좌는 박영석 대장의 산악 탐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좌절하지 않고 늘 도전정신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온 그의 도전 정신을 알려 학생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강좌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박영석 대장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산악 탐험의 정의, 역사 및 그 동안 인류가 이룩한 주요 탐험 업적에 대한 소개와 박영석 대장이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동안 함께한 탐험가들의 경험담으로 진행된다.

한편, 산악인 박영석 대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지구 최고봉인 히말라야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는 등 인류의 산악탐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등반가이자 탐험가다.

노덕현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9월 강좌 마련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이 9월 4일~10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충무로 자비선명상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승만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연에는 〈승만부인사자후경〉 역자인 이인혜 동국대 불교학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참가비는 10만원.

이밖에 9월 19일~11월 18일 종로 템플스테이회관 3층 보현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웰다잉 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한다. (02)722-2101

이은정 기자

포교원 청소년 특성화 캠프 마련

8월 25~26일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 특성화 캠프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8월 25, 26일 이틀 간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1, 2차에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꿈과 비전을 찾는 청소년 특성화 캠프 '고민타파 Happy Dream Camp'를 진행한다.

포교원은 학교폭력, 왕따, 게임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격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특성화 캠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심리적 코드 찾기, 강점 찾기 ▷나의 보물지도 만들기 ▷생애계획 그리기, 인생시계그리기 ▷용감한 비전 만들기 ▷15분 집중명상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김일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이 개발해 진행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포교원 측은 "청소년 시기는 발달단계상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결정적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씨앗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활기찬 삶을 지지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이번 캠프를 통해 향후 어린이법회 지도스님 및 실제법회를 이끄는 지도교사 참관 및 평가를 실시해 청소년 법회 사찰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찰 캠프 프로그램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불교 청소년 상담가 양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 체계 및 커리큘럼도 기획할 예정이다. (02)2011-1892 이은정 기자

학교폭력예방 템플스테이 잇따라

법흥사 · 청량사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개최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잇따라 진행됐다. 강원도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8월 3~5일 법흥사 경내 하이원 평화캠프장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과 자아찾기를 위한 '2012년 청소년 평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 청소년, 학부모, 대학생 멘토, 청소년 전문가 들이 함께 참가해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캠프에서는 기아 체험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농촌 살림 체험을 비롯해 ▷평화음악제 ▷미래의 꿈 실현을 위한 나를 찾는 여행 ▷학교폭력 예방 광고 만들기 체험 ▷나를 바꿔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자각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도완 스님은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평화로운 존재인 동시에 평화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며 "서로의 존재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8월 7~8일 '학교폭력 예방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봉화군내 학생과 교사, 경찰관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현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수행이 필요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존재감을 높여줄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불교연맹, 한국잼버리대회 참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송묵)이 8월 2~8일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장에서 개최된 제13회 한국잼버리(총재 함종한)에 연맹단위로 처음 참가했다. 이번 한국잼버리는 '숲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국내 스카우트 대원 및 운영요원 1만 명과 41개국에서 10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했다.
불교연맹은 지난 6월 9일 조계사에서 1000여 명의 대원이 참가한 고불식을 개최하고 처음 한국잼버리에 참가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정각사, 홍법사, 청량사, 청계사, 영전사 등 청소년 130여 명이 참여했다.
불교연맹은 이번 한국잼버리에서 불교종교관을 운영하며 전세계 청소년 대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알렸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속초 신흥사와 낙산사의 후원으로 잼버리장 내 야외 불교법당을 개설해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불교연맹 측은 "앞으로 스카우트 세계조직 활동을 통해 외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고, 젊은 불자양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9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日 방사선 피해자 조사 잘못됐다”

日 노무라 교수, 원폭 희생자 추모제서 강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6만 3000여 명의 한국인이 피폭됐다.

이 가운데 생존한 2만 5000명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사망했거나 남겨졌다. 원폭피해자 1세대의 상당수는 사망했고 2012년 현재 남은 이는 2600여 명이다. 피폭의 상처는 1세대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낳은 자녀인 ‘핵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2·3세대에게 병마와 가난은 대물림 돼 이어졌다. 이들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골다공증, 무혈성괴사증 등 정신·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유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원폭2세 환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40여 년간 방사선 피폭의 유전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인 교수가 한국의 피폭2세 건강에 관한 연구 조사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끈다.

“방사선은 모든 동식물에게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라 타이세이(野村大成)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는 8월 6일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이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주최한 ‘제67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서 초청강연을 했다.

이날 노무라 교수는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40여 년 동안 쥐 실험을 통해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해 온 종합적 결론을 소개하며 “쥐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의 경우도 방사선 피폭은 다음 세대에 돌연변이, 암, 기형, 유산과 사산 등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韓 피폭2세 건강연구 관심
“피폭, 다음세대에 악영향”
“피폭세대 건강조사 꼭 해야”



‘제 67기 원폭희생자 추모제’에서 합천평화씨알합창단이 합창공연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오른쪽 상단은 ‘방사선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한 노무라 타이세이(野村大成) 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노무라 교수는 그동안 연구·조사 해온 내용인 △남태평양 비키니섬에서 미군의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일본 원양어선이 피폭자들의 급격한 정자 수 감소 △숫쥐가 피폭 후 정상 암컷과 교배하자 태아의 반이상 사망하고 살아남은 태아도 출생 후 뇌수종, 구개파열, 손·발가락 기형 등을 설명했다.

노무라 교수는 “남 베트남 산악지대에서 전투했던 북베트남 병사가 고엽제 피폭 후 북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은 경우 태아나 자녀의 기형 발생이 수 배 증가했다”며 “한국의 피폭2세의 경우도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 문제와 유사하다”고도 주장했다.

노무라 교수는 이 같이 명백한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일본측이 부정적이었던 까닭도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방사선영향연구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자녀의 피폭 유전적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는 돌연변이만 조사하거나, 암에 걸리기 쉽지 않은 20세 이하의 젊은 피폭2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한계였다.”

이어서 그는 “암, 기형, 생활습관병 등 피폭2세의 건강조사와 흑시 양친이 건재하다면 DNA검사로 부모의 피폭이 다음 세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며 한국 피폭2세의 건강조사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는 (사)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권영길 前 민주노동당 대표, 하창환 합천군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원폭피해자 2세 환우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를 마련한 합천평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태양회는 천도재, 추모사, 추도사, 헌화 등 의식을 봉행했다.

지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조국을 그리며 살다 희생된 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055)934-03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도시(都市) 락(樂)’

텃밭 가꿔 지역 환원, ‘기쁨 두 배’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 옥상에 텃밭을 설치하고 스스로 감자, 상추, 고추, 배추 등을 심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기쁨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은 올봄 3월부터 옥상 텃밭에 심은 씨감자가 싹이 나자 양분과 물을 주고 열매가 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곁순을 쳐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자식처럼 애지중지 길렀다. 그렇게 소중히 가꾼 감자 10kg를 수확해 나눔상자에 담아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 옥상에 텃밭을 설치하고 스스로 감자, 상추, 고추, 배추 등을 심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기쁨이다.

노인은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서울 종로에서 토박이로 살아온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농사는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010년 5월 서울시 그린트러스트 사업단 지원을 받아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왔다. 그러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속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꾸고 재배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농부양성 프로젝트 ‘도시(都市)락(樂)’을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의 종로구 거주 어르신들은 ‘도시락’ 프로그램 중 하나인 농부학교에서 16주 동안 도시농업, 농사일지 작성법, 텃밭작물 재배법, 모종내기 씨앗 뿌리기 등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면서 11월 까지 직접 텃밭 가꾸기를 체험한다. 직접 작물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병충해 방제 작업까지 모두 스스로 한다.

그리고 수확물을 복지관 어르신과 식당에서 나누어 먹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이웃의 정과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참여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 애정을 쏟고 신체활동을 하고 함께 가꾸면서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다”며 “규칙적 농작업이 주는 운동과 식물로 맑아진 공기는 자연스레 건강한 몸을 선물해 주며, 농업은 생명체를 돌보는 녹색 체험으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농부학교에서 이론 습득
텃밭상자 200개 설치해
지역 이웃에 수확물 기부

이렇듯 ‘도시락’ 프로그램을 통한 유휴지와 건물 옥상 등의 녹화(綠化)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농지 자연순환은 폐자원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준다. 또한 대기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해 생태도시를 만든다.

정관 스님은 “‘도시락’은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노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이웃의 정을 회복하게 한다”며 “향후 복지관은 자연 속 교실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천혜의 놀이터이자 도시민들의 정서 치유의 장으로 기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42-9500

이나은 기자

“고령자 창업, 준비됐습니까?”

서울노인취업훈련센터, 어르신 대상 창업특강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센터장 청원)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2년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창업특강 ‘고령자 창업! 준비됐습니까?’를 개최했다.

창업에 관심 있는 고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타창업연구소 김갑용 소장이 강사로 초빙돼 고령자에 적합한 창업분야 및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2004년 개소 후 연간 1500명 어르신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여개의 직무훈련, 소양훈련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취업 전문 훈련기관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 후 소자본·소규모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철저한 준비없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2009년부터 창업희망 고령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교육과정을 신설해,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청원 스님은 “고령자 취업시장이 열악해지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에 관심을 갖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자금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본 창업특강이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후설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2)6911-9551 이나은 기자

걸그룹 타히티,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신예 걸그룹 타히티(TAHITI)가 생명나눔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7월 ‘투나잇’으로 데뷔해 세련된 감성과 개성 있는 매력으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낸 타히티는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홍보대사를 자청한 것.

예은, 지수, EJ, 정빈, 민재, 다솜 등 6명의 멤버로 구성된 타히티는 8월 8일 위촉식을 갖고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좋은 일로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단신

아동·여성 인권 보호 등 위한 MOU 체결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스님)는 2012년 8월 6일 센터 교육실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 경북구미센터 1577-1366, 미혼모자 시설 경북 샤론의 집,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정폭력, 결혼이민여성, 미혼모 등 폭력피해여성의 위기상황 구조와 관련한 업무협조 및 지원체계와 연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 참여하는 다함교실 실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학석)은 9월 28일까지 오후 5~7시 저녁시간을 활용한 ‘다함교실’을 실시한다. 학생부터 가족까지 1·2·3 세대가 함께하는 ‘다함교실’은 자비나눔가족봉사단, 벨리댄스, 요가·명상, 컴퓨터활용교육, 가족당구 및 탁구 등을 15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설한다. (031)919-8677

철산복지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성료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는 7월30일~8월 2일까지 ‘청소년 하계볼런티어스쿨’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50명의 청소년들은 자원봉사기초소양교육, 자원봉사 포스트활동 등에 참여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2. 8. 25(토) 오후 1시부터 ~ 8.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래,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조계종 국제선센터 일요 법회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죽을 각오로 본성찾는 공부하십시오"

8월 5일 염천(炎天)의 더위에도 조계종 국제선센터 큰 법당이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다. 모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인 것. 보선 스님은 이날 사부대중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상생활 속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천, 강서 지역 불교의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는 국제선센터 일요법회를 정리했다.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 런던올림픽 때문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먼 타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육신은 괴로워도 정신적으로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파에 휩쓸려 자칫 나 자신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지구 탄생이래 단세포, 미생물로 시작해 수 만년의 층위를 거쳐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층위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사용하며 살면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고, 나쁜 습관들을 사용하면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삼독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 선수의 금메달 수상 소감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선수 수상 소감이 이렇습니다.

"지난 올림픽에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금메달에 못 미쳤는데, 이번에는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메달 하나라도 죽기로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가 침탈당했을 때에도 죽기로 싸워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내 자신의 본성을 찾는 데 죽기로 나서지 않으면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위시한 역대 모든 선지식들이 염불을 하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참선하거나, 경전을 읽든가 하며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계종은 선종(禪宗)입니다. 우리는 조계종 신도이기 때문에 참선을 통해 나를 찾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무엇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실천해야 합니다. 세세생생의 업장은 쉽게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더라도 아무 생각없이 앉아 있으면, 온갖 망상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됩니다. 화두만 좇아야 합니다. 치고 들어온 모든 생각들을 거두고 화두만 의심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참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망상에 휩싸이면 참선하는 그 자리도 그냥 중생, 범부의 세계입니다. '새긴다' '챙긴다' '참구한다'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正念)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심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는 저절로 나옵니다.

물을 채질하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야 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맑은 물은 위에 있고, 불순물들은 아래로 가라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게 바로 정진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해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는 것입니다.

옛 스님들은 공부하다가 막히면 시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때로는 공동묘지에도 갔습니다. 여러분도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생과 사의 치열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한다는 생각이 들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지를. 그 생각을 갖는 게 경지에 이르는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떠나면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수시로 떠나보냅니다. 모두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6식 때문입니다. 6식에서 벗어나야 7식, 8식으로 넘어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작고한 故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살 때 책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후로 잡스는 33년 간 아침에 일어나 '내 오늘 할 일이 내일 죽어도 할 수 있는가'를 날마다 곱씹었다고 합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하루를 살되 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八正道)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팔정도는 불교인의 실천 덕목입니다.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의 첫 조건은 '나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입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이 유행인데, 재미있는 설문 조사를 봤습니다. 먼저 '너의 장점과 단점을 10가지 적어봐라'라고 시켰습니다. 대다수 참가자들이 장점은 3~4가지를 쓰는 데, 단점은 20가지 정도 써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점을 좇아갈 게 아니라 제일 쉬운 단점부터 고치라고 카운슬러가 충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 뒤 장점은 늘고, 단점은 줄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바로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과연 부처님의 '팔정도'에 맞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두선이 됐든, 염불이 됐든, 진언이 됐든 정진해야 합니다.

내 기억과 지식, 주위 환경은 모두 내가 세상에 나서 생긴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정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런 수행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은 어찌하나'라고. 일상생활에서 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선(日常禪)'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일상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세간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소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제작되는 것은 이런 어이없는 소재에 대중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찰과 교회, 성당 등 이로운 것을 알려주는 곳은 많지만 사람들은 삐뚤게 살아갑니다. 이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모든 것을 전폐하고 나를 깊게 들여다 보십시오.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불성(佛性)을 왜 안 쓰려고 하십니까. 내 몸과 마음은 다 불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불교는 '하면 되는' 종교입니다. 깊이깊이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열심히 정진해 이 여름 아름다운 연꽃 같은 가르침을 얻길 바랍니다.



보선 스님은 … 1966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 11·13·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이며 15대 중앙종회의원이자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이다. 이밖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한국다문화센터 등의 공동대표 소임을 맡고 있다.

삼독심 버리며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정진

공부 막히면 生死의 현장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 바로 보는 것' 변화 시작



8월 5일 열린 조계종 국제선센터 일요법회에서 보선 스님의 법문을 사부대중이 경청하고 있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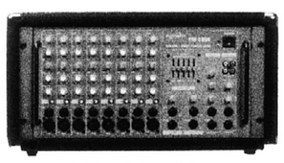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여름이 가도 식지 않는 학술열기

하반기 고승 선양 등 주제 다채로워
사회경제 · 심리치료 등 응용연구 눈길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군 여름이 한창인 8월, 불교학계는 2012년 하반기를 맞아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로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하거나 새로운 시각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근대 고승들의 전법, 포교원력을 짚는 자리가 눈길을 끈다. 불광연구원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광덕 스님의 전법활동을 조명한다.

대각사상연구원도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를 주제로 한글 화엄경 간행과 용성 스님의 포교원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용성 스님은 30여 종의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등 경전한글화에도 앞장서 왔다.

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도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성철 스님의 종교관'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불교를 넘어선 종교관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청담사상연구소도 11월 둘째 주 중으로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8월 기간 중 열리는 만해 축전을 감안하면 스님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 불교계에 교훈을 찾고자 하는 점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와의 접점을 다룬 학술대회도 눈여겨 볼만 하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회 경제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며, 한국명상치료학회도 9월 15일 청소년 심리치료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밖에 불광연구원도 9월 8일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며 한국불교학회도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점검한다.

하반기 학술대회들이 모두 의미가 크지만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포럼이다. '불교의 명상, 고대의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학술포럼에는 전세계 10여 명 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12년 하반기 학술대회 일정

주 최	일 시	주 제	장 소
신라사학회	8월 18일	진흥왕 순수비와 창녕 관룡사	창녕 성씨 고택
한국심리학회	8월 23~25일	심리학 공정사회를 향하다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강촌 엘리시안
불광연구원	9월 8일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백련불교문화재단	9월 13일	성철 스님의 종교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
한국명상치료학회	9월 15일	ADHD 청소년 심리상담	서울 불광산사
한국미술사연구소	10월 6일	고구려 고분벽화	국립중앙박물관
대각사상연구원	10월 7일	용성 스님의 한글화엄경과 화엄사	구례 화엄사
원각사상연구원	10월 13일	가사의 변천과 전승	서울 관문사
불광연구원	10월 27일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동국대 불교사회 문화연구원	10월 26일 예정	불국사, 화엄계통 사찰이냐 법상계통 사찰이냐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10월 25~26일	한글번역의 제문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한국불교학회	11월 9일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
동악미술사학회	11월 10일	정기학술발표회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학연구회	11월 17일	경제문제의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청담사상연구소	11월 둘째 주중	청담 조사의 지계사상	경남과학기술대
동국대 불교사회 문화연구원	11월 24일	불교와 도시건축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련불교문화재단	11월 29~30일	불교의 명상, 고대의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기장 장안사 대웅전' 보물로 지정



보물로 지정된 장안사 대웅전은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등 주요사찰 전각과 비교분석의 기준이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6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 장안사 대웅전(機張 長安寺 大雄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불리다가, 애장왕(809) 이후 '장안사'로 고쳐 불리게 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8년(1630) 의월대사와 인조 16년(1638) 태의대사가 각각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보물로 지정되기 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였던 장안사 대웅전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현장조사 시 천장 반자에서 4건의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효종 8년(1657)에 중창된 이후 부분적인 수리 외에는 주요 구조부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또 내부 단청조사(안료분석 등) 결과, 천연광물 위주의 전통안료가 잘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등 건립 당시의 단청기법이 잘 유지되고 있어, 기장군 주변 범어사 · 통도사 · 운문사 등 주요 사찰 전각과 비교 분석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이 확인됐다.



신라 단청기법이 남아있는 기장사 대웅전 단청

발견된 묵서명 중 특기할 것은 대웅전 중건 시 건축 기록인 '순치십삼년기종도리묵서명'(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 순치 13년 종도리에 기록된 묵서명)으로 이는 부산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해당 묵서명은 당시 대웅전 중창공사에 관여했던 승려와 시주했던 인물들의 상세한 기록이 있어 전통건축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졌던 기장 지역을 회복하고자 장려한 불전(佛殿) 건물을 짓게 된 계기 등도 기록되어 있어 지역 불교 건축사와 향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 기자**

불교 안에 질병 치료법 있다

〈한국선학〉 제31호에 이색 논문



조계종 교수아사리 종두 스님은 최근 〈한국선학〉 제31호에서 '천태의 가상법과 주술법을 이용한 질병치료' 논문을 통해 천태지의 대사가 펼친 질병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종두 스님은 "〈차제선문〉, 〈천태소지관〉 〈선문구결〉 등에서 질병 치료법으로 호흡법, 가상법, 주술법, 의식집중, 관석치병의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중 가상법과 주술법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를 발휘하는 현대의학의 자기암시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불교와 현대의학의 접점은 어디까지일까? 천태지의 대사의 천태가상 · 주술법과 현대의학의 교차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끈다.

종두 스님은 구체적으로 가상법에 대해 "〈선문구결〉에서 가상법은 '대소변시 병이 함께 나온다', '몸의 열화를 입으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걸으며 모든 생각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의학에서 보면 타장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참고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선학〉 제31호에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종두 스님의 '천태의 가상법과 주술법을 이용한 질병치료', 이남경 동국대 박사의 '심리치료를 위한 我에 관한 일고찰', 양정연 한림대 교수의 '람림에서의 죽음억념과 수행',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지행론을 통해 본 선, 양명학, 사상의학의 인간론'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동악미술사학' 제13집 발간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최응천)는 최근 '동악미술사학' 제13집을 펴냈다. 이번호에는 △한국 금구형 금고(金鼓)의 조형과 전개(최응천) △미국소재 한국불화 조사연구(정우택)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의 유형과 특징(안현정) △경주 정혜사지 13층석탑의 양식과 특징(이순영)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 계층과 주종(鑄鐘)장인(이광배)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하도(陳賀圖)'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유재빈) △조선 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성격(안태욱) △조선시대 18세기 시왕도 연구(김혜원) △근대기 불교계와 불화의 제작(최엽)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선문화연구' 제12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스님)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2집을 펴냈다. 이번 호에는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멸쟁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 본 승가분쟁 해결의 이념(이자랑) △용성선사의 선밀 쌍수에 대한 고찰(김치온)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박상란) △일본계 미국선의 여성참여와 사회참여 그리고 간화선 세계화 담론에 대하여(장은화)가 실렸다.

또 일반논문으로 △무상대사와 마조의 사법(嗣法)에 대한 재고-현실적인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하다(정운 스님)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의 전의부법설(傳衣付法說) 및 불성과 반야사상 연구(김지은) △원 간섭 초기 고려 선종계의 변화와 사원 동향-주요 선종 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윤기엽)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내 사랑 문화유산' 사진 공모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2012년 헤리티지채널 문화유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내가 사랑하는 문화유산 · 자연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바라보고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1인당 3편 이내로 한정된다.

사진 작품은 해상도가 가로 2560×세로 1920 픽셀 이상의 JPG파일로 응모해야 한다. 접수는 문화재 멀티미디어 사이트인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www.heritagechannel.tv)나 문화유산 공모전 앱을 내려 받아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0월30일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 각각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9편, 입선 10편 등 총 50편을 선정하며,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 사진 콘텐츠의 가치와 문화유산 애호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사진 자료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름방학 맞아 사찰 공부방 인기

남원 영선사 등용청소년 공부방 "성적보다 불교인재양성이 목표"

여름방학을 맞아 사찰 공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21일~8월 17일 특별 용맹정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 남원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기간 동안 사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과 인성교육, 학업공부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 부모들에게 더욱 인기다. 영선사 공부방은 매일 오전 6시에 기상해 예불과 아침공양을 마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학업공부를 진행한다. 식사시간과 휴식, 청소시간을 제외하면 약 10시간 정도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 자유에 의해 진행된다.

영선사 주지 스님 월공 스님이 직접 하루 3시간 영어, 수학, 과학 강의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을 한다. 영선사 공부방은 입소문으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 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둬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지원자가 많아졌다.

월공 스님은 "공간적 제약과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공부방을 이용한 학생들이 다음 해에 또 다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는 중학교 2학년,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총 15명이다.

성적 향상, 인성함양에
학부모들 호응 높아져
전국에서 학생들 몰려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이 학생들에게 하루 3시간씩 영어, 수학, 과학 강의를 하고 있다.

월공 스님은 "단기 수련회와 달리 공부방은 좁은 공간에서 개인공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며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목적보다 불교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잡고 젊은 불자 양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4번째 영선사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구병민(15 · 진주남중) 군은 "다른 친구들이 다음 학기 학업을 위해 모두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지만, 학원 공부는 너무 강압적이라 나와 맞지 않는다"며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유롭게 공부하니 취약과목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왔다는 박진철(15 · 파주선유중) 군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킬 때에는 하기 싫었다. 하지만 여기에선 자율적으로 공부하니 학습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월공 스님은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공부방 운영에 도움을 주셨다. 등용공부방을 통해 불교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사회복지관 지역아동 의료비 전달

3000배 철야정진 통해 450만원 후원금 조성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은 8월 1일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창지역의 아동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1배 100원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4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을 전달 받은 아동 어머니인 김모 씨는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아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생각에 더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다"며 "모아주신이 후원금으로 아이가 속히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의료비 전달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된 3000배 철야정진기도행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개관 이래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달식에서 올해는 2명의 지역아동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도완 스님은 "이번 의료비 전달식은 돈을 전달한다는 의미 그 이상의 값진 것으로 아동들과 그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정성들여 모은 마음이 더 큰 선물일 것이다"며 "지원금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더 큰 응원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00배 철야정진 모금행사는 매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아를 위하여'란 슬로건 아래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가 학생들이 직접 제례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하고있다.

여름학교에서 '주인공' 깨닫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우리 do' 열어

언제나 아이들의 손에는 부모가 만들어 준 일과표와 게임기만 있을 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최근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5일~7일 '우리 do'라는 주제로 특별한 어린이 여름학교를 개설했다. 이번 여름학교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행사는 입제식을 마치고 아이들이 주인공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누가 하는가요, 주인공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은 아이들이 이번 여름학교를 통해 얻어갈 큰 숙제로 작용한다.

이어 ▷인도 어린이들의 척박한 삶을 영상으로 시청 ▷저녁공양 준비를 위해 제례시장 방문 ▷저녁공양 만들기가 이어졌다. 자신의 저녁거리를 스스로 준비하고, 먹는 것이다.

둘째 날은 여수 엑스포 구경과 미션 수행, 셋째 날은 ▷마음장터 ▷한국화 그리기 ▷큰스님 영상시청 ▷조별장기자랑이 이어졌다. 마음장터란 자신의 고치고 싶은 습관 등을 친구들에게 내놓고, 친구들이 이를 구입하여 잘못된 습관 등을 바로잡는 것이다.

혜전 스님은 "이번 불교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되,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특히 서로 화합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좋은 습관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12 · 서울도성초) 군은 "직접 음식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진행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지역 대중강좌로 불교열풍 불어

법륜 스님 '즉문즉설', 지역불교 희망의 메시지

그동안 불교대중강좌가 많지 않던 광주전남지역에 법륜 스님 특강 열풍이 불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남일대 농촌지역에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이 개최됐다. 지역 내에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스님의 강좌가 진행되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법륜 스님의 강연이 지난 2월 22일 광주시청 강연을 시작으로 화순, 광양, 보성, 목포, 나주, 곡성, 담양, 무안, 순천, 영광, 영암 등에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의 강연은 지난 2월 22일 광주시청 강연을 시작으로 화순, 광양, 보성, 목포, 나주, 곡성, 담양, 무안, 순천, 영광, 영암 등에서 진행됐다. 스님의 강연에는 항상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4~5만 명이 채 되지도 않은 작은 군소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는 300석 규모에 불과하지만 참석인원은 2배 가량이 훨씬 넘는다. 대체로 군소지역에 대중불교 강좌가 열린 적은 전무하다.

최란 광주 정토회 총무는 "강좌가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나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은 이를 계기로 불교의 새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역행사 참여와 지역불교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사찰에서 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 및 법회가 개설돼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호남 농촌지역 불교계는 기존 신도들이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사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도도 구성하기 힘들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다. 때문에 다양한 대중법회 강연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회와 강연을 열고, 새로운 신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한 지역민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륜 스님의 강연은 지역불교에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한편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가을에도 100회의 강연이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여수,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광주 등 12군데의 시(市), 군(郡)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주말마다 '내비둬' 콘서트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여름휴가를 맞아 주말마다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8월 18일에는 시인 신현수와 김용진, 8월 25일에는 풍류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선다.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는 여러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나'를 1년에 한번쯤은 편안하게 놓아주자는 의미의 템플스테이로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일감 스님과 함께 이야기마당을 꾸미며, 휴식을 위해 여름 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금산사 관계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려 들지 않고 가만히 '나'부터 내비 두면 바로 이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 일상의 가치다"며 "금산사는 템플스테이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8일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의 '가슴뛰는 청춘을 위해'를 시작으로 8월 4일 의사 서천석, 8월 11일에는 가수 조성일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 도 제 명 공 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성 명 : 박 우 열　　법 명 : 정 암　　당 호 : 법 산

위 박우열 정암은 봉자암자당대자희자대선사의 수법 제자로써, 지난 6월 16일 김해 불조사에서 만옹도일사에게 건당 입실 하였다.

이는 부처님(아비)를 바꾸고, 조사님께 역적질을 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을 배반한 조달(뎨바달다)이며, 예수를 판 유다다. 또한 한국불교의 전법에 있어서 전통과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다.

따라서 본 문도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암을 문도회에서 제명하면서,

1. 문도회에 관련된 모든 비석에 정암 박우열은 부처님(아비)을 바꾸고 조사님께 역적행위를 한 자로 기록하여 천추만대에 승가의 교훈으로 삼도록 한다.
2. 문도가 발행하는 모든 서적에, 정암 박우열을 조달과 유다와 같은 자 라고 기록하여 한국불교 전법의 전통과 질서를 확립한다.
3. 제천 통도사에 세운 용성조사 사리탑비를 자진 철거하도록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여법한 산문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처토록 한다.

용화세존 3039년　남전열반 2556년　단기 4345년　서기 2012년 7월 28일

봉암대희대선사 문도회

문　장 : 보산당 법 광　　관산당 원 당　태화당 가 산　화산당 월 인
부문장 : 남산당 청 암　　현산당 지 현　미산당 천 강　홍산당 현 불
총　무 : 혜산당 혜 륜　　정산당 청 봉　엄산당 지 엄　대산당 법 정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낮춘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2차 월정사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여름수련회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하는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여름수련법회에서 80여 불자들이 삼보일배 정진하고 있다.

어르신 여름나기 복지관이 돕는다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 말복맞아 삼계탕 공양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들이 말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보시행을 펼쳤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8월 7일 결식어르신 · 홀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8월 7일 말복을 맞이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효도삼계탕'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용교 국회의원,이종철 남구청장 및 부산시의원 등 정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무료배식 등 노력봉사에 나섰다.

이날 이춘성 용호복지관 관장은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날씨가 무더워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여름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을 맞이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호동에서 온 이춘자 할머니(72)는 "날씨도 더운데 복지관에서 삼계탕을 대접해 줘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범어사 주지)는 말복 전날인 8월 6일 금정구 해인유통에서 김영옥 해인유통 대표와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을 모시고 말복 닭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각 복지관들이 삼계탕 보시행사를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 노인복지관, 양정재가노인센터,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금정종합사회복지관, 홍법사 무료급식소, 혜일암 무료급식소, 선양시니어빌리지 등에 각각 100마리씩 총 1100마리 닭이 나눠졌다.

김영옥 해인유통 대표는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불교계 복지시설에 닭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범산 스님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는 이에게 많이 전해주길 바란다"며 "항상 어려운사람을 돕는 보시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스리랑카 영화축제 대구 시작으로 전국 순회

'가마니야 스님 일대기' 대구 달성군청서 첫 상영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영화축제가 8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개최된다.

국제 불교 교류단체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은 8월 5일 대구시 달성군청 공연장에서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마힌다 가마나야' 스님 일대기 영화를 상영했다.

'마힌다 가마나야' 일대기영화는 8월 23일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거제와 안산, 울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회 상영될 예정이다.

대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세상'은 이번 행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학교 폭력 아픔, 사찰서 치유한다

부산 동림사, 스님과 선생님, 학생 함께 어우러지는 교화프로그램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는 7월 27일 동림사에서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폭력교화활동으로 동림사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체험에서는 부산 금양중 선생님 4명과 2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림사에서 스님, 선생님들과 팔씨름을 비롯해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천연염색, 다도체험, 명상, 요가, 그림그리기, 고사성어 및 소설로 접근한 인성수업, 떡매치기, 부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교실에서 폭력을 휘둘러 교화활동에 불려온 아이들이 처음에 5분도 집중 못했는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집중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모두 함께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타 스님은 "토요스쿨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 향후 사찰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더욱 넓어지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림사 다도체험 프로그램에서 참가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광성사서 티베트불교문화 여름캠프 열려

한국티베트센터 광성사(주지 소남)는 8월 17~19일 제5회 티베트불교문화캠프를 개최한다.

'티베트 반야심경'을 주제로 열리는 티베트 불교문화캠프는 주지 소남 스님이 직접 티베트의 경전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반야심경 풀이 등을 전한다.

티베트불교문화캠프에서는 오체투지, 공양수 올리기, 마니차 돌리기, 만다라 공양 등 티베트 불교의식이 진행되며 행사 마무리에는 대승포살과 수계의식도 진행된다. 참가비 5만원, 선착순 21명. (051)243-2468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계곡 전체에 철제계단을 설치해 아름다운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 사례다. 전라북도 ㅎ사찰 올라가는 길

사찰주변의 산길을 보존하자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절에 가면서 걸었던 산길에 대한 추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른 새벽 산길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산새들의 노래 소리가 즐거웠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정겨웠다. 인적 없는 조붓한 길가에는 참나리꽃, 도라지꽃 같은 여름 꽃이 피어나고 나무에도 향내 그윽한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래 걸어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산길은 비록 투박하기는 해도 나름대로 멋이 있었다. 돌이 튀어 나오고 나무뿌리가 드러나 걷기에는 불편했지만 발바닥으로 느끼는 감촉만큼은 그럴 수 없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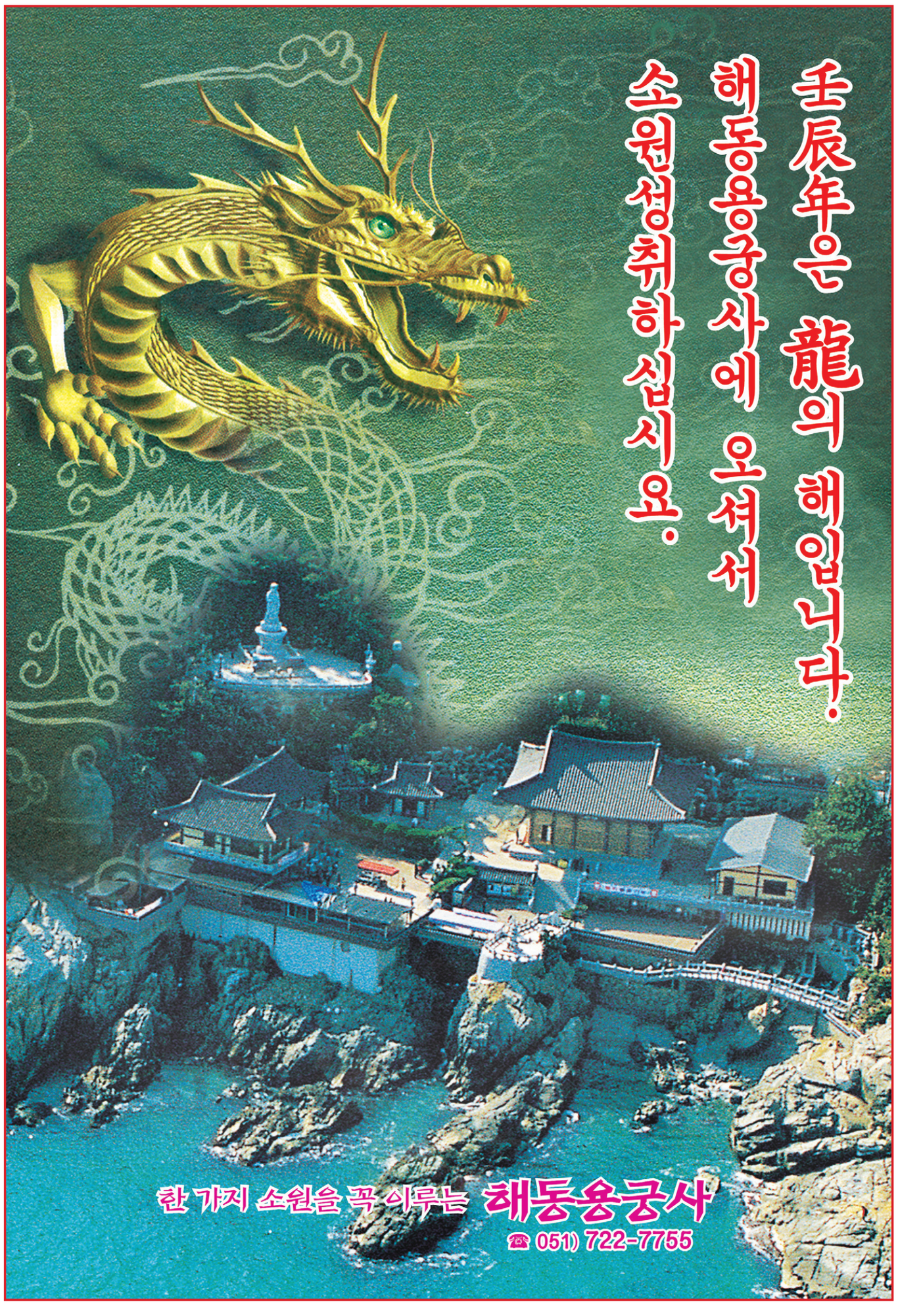
요즘은 깊은 산에 자리 잡은 절 주변에서도 예전에 걸었던 멋스러운 산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한 진입로는 예외로 치더라도 조금만 경사가 급하고 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에는 길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맛을 잃고 말았다.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재데크를 이용해서 길이나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 흉한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한다.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편리함을 위해 목재데크나 철제구조물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 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만 그러한 구조물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길을 몽땅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경관적으로는 물론 생태적으로도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롭지 못 할뿐만 아니라 자연파괴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재데크나 철제계단을 설치하면서 하부를 튼튼히 고정시키기 위해 기존의 암반이나 자연식생을 파괴하는 것은 향후 구조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자연의 원형을 회복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올레길이다 둘레길이다 하여 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 어떤 길보다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에 올라가는 산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그 산길은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여 이러한 산길을 인공적으로 다듬는다면 그러한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자연은 우리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재이다. 절 주변의 산길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불자들의 몫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산길보존운동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⑦ 북한산 포대능선길 그리고 망월사



조금 힘든 길이다. 지난번 회룡사를 가기 위해 걸으려 했던 북한산 둘레길 16구간 보루길을 회룡탐방지원센터 쪽에서 걸으면 종착점인 원도봉입구에서 포대능선 가는 길과 만난다. 포대능선길에는 망월사가 있다. 원도봉입구에서 망월사까지는 약 1.5km다.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루길을 걷고 다시 포대능선 길을 걷는다면 다소 힘든 코스다. 원도봉입구에서부터 망월사까지 걸었다.

보루길과 포대능선길이 만나는 원도봉입구까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내려서 신흥대학 방면으로 나온다. 거기서부터 망월사 방면으로 약 500m 정도 걸으면 된다. 보루길과 포대능선길이 만나는 지점엔 원각사가 있다. 거기서 보루길을 다시 걸을 수도 있고 포대능선길을 걸을 수도 있다.



신라시대 해오선사가 경주 월성을 바라보며 삼국통일과 왕실의 융성을 기원하여 창건한 망월사는 용성, 만공, 한암, 춘성, 고암 스님 등 근대 선지식들의 법향이 스며있는 조계종 종립 선원이다. 도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월사 영산전은 나뭇가지를 찾아 날아가는 산새를 닮았다.

부도 옆에 멈춰 바라보니 사바의 길이 보였다

원각사에서부터 원도봉탐방지원센터까지 약 300m는 포장길이다. 원도봉탐방지원센터부터는 본격적인 산길이다. 바람 한 점 없다. 간밤의 열기도 식히지 못한 대지 위에 태양이 또 쏟아진다. 금방 옷이 땀으로 무거워졌다. 옷속의 몸도, 몸속의 생각도 점점 무거워진다. 한 발 한 발 고도를 높일 때마다 대지로부터의 중력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숲의 표정은 멀어진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에 기대선다. 작은 시냇물이 지나는 길가에서 죽은 고목이 아직도 대지의 물을 빨고 있다. 턱까지 찼던 숨이 조금씩 흘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실바람이 지나간다. 숨을 헐떡이며 걷고 있을 땐 느껴지지 않았던 실바람이 서있는 땀방울을 스쳐간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다. 요즘 저 산 밑에는 스님의 책 한 권이 화제다. "힘들면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글이든 말이든 치유의 성분이 들어 있어야 하는 시대다. 그 만큼 이 시대는 힘든 시대다. 무언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기 위해선 멈춰야 할 만큼 바쁘고 힘든 시대다. 그랬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멈춰서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힘듦이다. 깊숙이 숨을 채우고 다시 길을 걷는다. 길은 점점 폭을 줄이고 경사를 높였다. 길은 이제 산이 지배하고 있었다. '순응' 뿐이었다. 산행은 산이 내어준 길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순응의 결과는 분명했다. 산은 망월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망월사는 길 끝이 아니라 하늘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다.



고려시대 망월사를 중창한 혜거국사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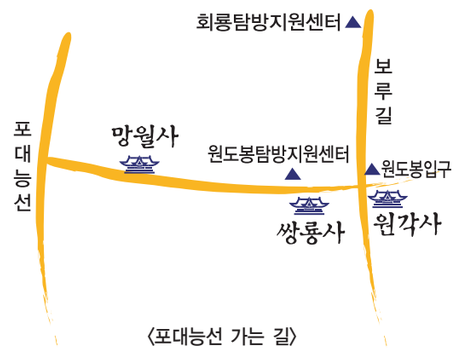
길 입구에 있는 원각사

망월사는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다. 신라 시대인 639년(선덕여왕 8)에 해오 선사가 창건했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해오 선사가 이곳에서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옛 이름 月城)를 바라보며 삼국통일과 왕실의 융성을 기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말기에 경순왕의 태자가 머물렀다. 고려 1066년(문종 20) 혜거 국사가 중창했으며, 그 이후의 연혁은 확실하지 않다. 여러 차례 전란으로 황폐해졌다가 조선시대인 1691년(숙종 17) 설명 스님이 중건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망월사는 많은 선지식들이 다녀간 도량이다. 세 번이나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었던 고암 스님이 열일곱 때 행자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고암 스님이 존경했던 용성 스님(1864~1940)도 망월사와 인연이 깊다. 선사였음에도 '불경 번역의 창시자' 로 더 알려져 있는 용성 스님은 1925년에 망월사에서 '30년 활구참선 정혜결사' 를 시작한다. 일제강점기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스님은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절감하고 역경의 원력을 세운다. 굳은 원력으로 시작한 역경불사가 자리를 잡자, 스님은 일제에 의해 왜색화되어가는 한국불교의 폐단을 막고 한국 전통 선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 결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 후 망월사에는 만공, 한암, 전강, 금오, 춘성과 같은 선사들이 주석했다. 또한 조계종 종립선원으로도 이름이 높았던 도량은 지금도 많은 선객들이 정진하고 있다.

도량 가장 높은 곳에 영산전이 서있다. 급한 산세를 그대로 타고 있는 망월사는 도량이 여유롭지 못하다. 계단처럼 서있는 당우들의 간격은 숲에 서있는 나무들의 간격을 닮았고, 망루처럼 홀로 서있는 당우는 나뭇가지를 찾아 날고 있는 산새를 닮았다. 더 이상 흙이 없을 것 같은 영산전 뒤쪽으로 고요한 숲이 한 칸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부도 한 기가 앉아있다. 혜거국사의 부도다. 늘어진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옛 스님의 부도 옆에서 같이 산 아래를 내려다 봤다. 아래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내가 사는 곳의 모습이었다. 몇 분 전에 나는 그곳에 있었다. 생사가 끊어진 옛 스님의 거처에서 바라보는 사바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이었다. 부도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도량을 나섰다. 힘겹게 올라간 망월사엔 많은 선지식들의 법향과 그 곁에 서성일 수 있는 부도가 하나 있었다. 절로 가는 '길' 은 다른 길과 다르다. 힘든 길임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길엔 힘들어할 시간과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멈춰 서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길, 절로 가는 길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포대능선 가는 길〉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小/12절)
3,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소소달마(大/6절)
3,000부 이상 @ 1,100원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cm×31cm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주의와 건축

자연순응… 친환경소재… 공동체성 함양







충남 서천에 조성된 '산너울' 생태마을 전경(왼쪽 사진). 이곳의 주택들은 태양열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활용하게 돼 있다(오른쪽 위 사진). 또한 자신의 취향에 따라 텃밭이나 화단도 일굴 수 있다(오른쪽 사진 아래).

최근에 유행하는 황토건축, 흙건축

얼마전 '말하는 건축가'라는 독립영화가 상영되었다. 2011년 3월에 암으로 돌아가신 건축가 정기용씨에 대한 영화였다. 1998년 즈음 저자는 무주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의 설립을 옆에서 잠시 거들 때 오르내리며 그가 흙집으로 짓고 있는 무주 안성면 진도리 마을회관을 짓는 과정을 보았다. 지금이야 흙집이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로는 드문 일이어서 이 집은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거푸집을 만들어 흙을 다져 넣으면서 쌓아올리는 담틀집으로, 우리전통의 건축을 계승한 획기적인 생태건축으로 관심을 받았다.

최근 황토집은 위에서 말한 담틀집뿐아니라, 황토 흙벽돌로 짓는 공법도 있고, 흙반죽을 쌓아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통나무를 넣는 방식의 공법도 있고, 황토를 담은 포대를 이용한 흙포대집도 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흙건축으로는, 짚을 사이에 넣고 양쪽에 흙을 두텁게 바르는 스트로베일하우스도 있다.

우리의 집과 건물에서는 실제 엄청난 에너지가 냉방과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과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남은 전력을 이용하여 농촌의 심야전기를 싸게 권유, 공급하면서 난방을 모두 심야전기를 이용한 판넬로 바꾸었고, 싼 전기 때문에 산중 시원한 사찰 마저도 에어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뿐아니다. 수 많은 고층 빌딩들의 전력과 에너지소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면 63빌딩의 가스사용량은 8,200세대의 가스사용량과 같고, 물은 15,000세대의 사용량과 맞먹으며, 창문을 열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고층의 인텔리전트 건물은 강제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63빌딩의 전기 소비량은 광명시 전체 전기소비량과 맞먹을 정도이다.

근대 건축의 전사와 후사를 나누게 만들었던 발터 그로피우스 (Walter Gropius)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였다. 이 바우하우스운동은 과거 온갖 장식들로 이루어졌던 중세의 건축을 아무런 장식없는 오늘날 현대식의 실용적인 박스형 건축물을 짓기 시작한 분수령을 만든 건축혁명이었다.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건축은 생활공간이 아니라 사무공간, 비즈니스 공간으로서의 고층건물이나 고층아파트 같이 집단주거시설 중심의 건축행위들이 근대건축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생태위기를 목전에 두고 건축의 개념들이 다시 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문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집중형의 고층건축에서 분권형,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서 저층건축, 소재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소재와 자연분해소재, 그리고 지역과의 관계성, 건물을 투기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인식하며, 자연속에서 순환성, 건축을 통한 인간간의 공동체성을 증진하려는 새로운 건축문화운동으로 관심이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건축이란 무엇인가

나무는 자연상태에서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광합성을 통해 영양물질을 생성시키고, 낙엽이 되어 땅위에 떨어지고, 그것은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뿌리의 영양소로 흡수되는 생태적으로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생명활동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은 토양포장, 배관의 매설, 분해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또한 에너지도 외부로부터 반입하며 또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은 다시 건축물 외부로 내보내야 한다. 자립적이지도 순환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일방적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고 그 부산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이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의 공급설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원도 엄청나게 낭비할 뿐아니라 설비비와 관리비도 크게 증가하고, 더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이 된다.

황토 담틀집 획기적 생태건축

대형 고층빌딩 에너지 과소비

지구온난화로 건축 개념 변화

새로운 건축문화운동 확산

이러한 문제에 대항하여 등장한 생태건축은 당연히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뿐아니라 생태계를 고려한 건축들, 또는 그 시도들을 통칭 생태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생태건축은 보통 '환경건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녹색건축'(Green Architecture)', '저 에너지 건축', '지속가능한 건축', '대안건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축이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패시브 하우스' (Passive house)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라고 한다.

생태건축이 되기 위한 조건들

생태건축은 인간의 주된 생활을 하는 주택, 주거, 도시등의 건축환경를 자연경관과 잘 조응하며 인근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가까운 지역내에서 자족적인 소단위의 인공생태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건축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는 '생태친화적인 건축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연속에서 쉽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목재나 황토등의 흙이 주된 재료가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 또는 재사용한 목재나 건축자재의 재활용도 중요한 생태건축의 조건이 된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벌목이나 간벌등으로 베어진 나무, 나무팰랫, 농축산물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에너지나 소수력, 지열, 태양열, 햇볕에너지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이되어야 한다. 또는 위에서 언급한 제로에너지 건물로서 '패시브하우스'등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고체, 액체, 기체의 폐기물이 친생태적으로 처리될 뿐아니라 내부에서 재사용되도록

순환체계와 조화… 생명살림

자연친화 건축재료 사용 중요

다른 건축물과 관계 고려돼야

실상사 '불사십조' 의미있는 시도

순환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빗물을 이용한 중수의 사용이나, 버리는 하수의 정화를 위해 연못과 같은 인공적 소규모생물서식공간(비아톱)을 만드는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서는 '운송에 있어서 동력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용하는 건축'이다. 다시 말하면 인근에서 나는 건축자재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땅과 지역생태계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결국 생태계의 순환체계와 조화되는 에너지및 물질의 순환체계를 갖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건축은 생태마을로 완성돼야.

마지막으로 생태건축은 단독건물의 생태적설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과 지역과의 관계성이 잘 고려한 건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협력과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긴밀해질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들간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함양시킬 수 있는지,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인근의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생태건축의 요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별가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쓰레기처리와 재생 에너지의 생산은 마을규모에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 유기물쓰레기의 재처리와 고형쓰레기 액체쓰레기등을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차원의 생태적 고려가 되어야 완결적인 생태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아니라 인근의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생태건축이 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생산한 곡물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또는 로컬푸드 (Local Food)운동' 등은 생협운동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불교에서 진행되는 생태건축논의

2009년 10월10일 실상사의 불사를 위해 선언한 '불사십조(佛事十租)'는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이다. "1)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2) 생명살림의 불사 3)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4)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5) 대중적 협동의 불사 6)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7)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8)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9)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10) 지속가능한 생태적불사"를 내용으로 한 이 선언은 생태적 가치에 충실할 뿐아니라 진정 불교적 불사의 전범이 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곡사를 중심으로한 생태건축의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 전통사찰이 에너지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이를 둘러싼 신재생에너지와 저에너지불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간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중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35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부모 입적 후 12년 순결 지킨 부부 함께 출가

③ 두타제일 마하가섭

〈상〉출가

부처님이 입적하신 뒤 승단을 이끌어가는 영도자 역할을 해낸 마하가섭 존자 이야기다. 부처님 당시 수행법인 '두타행'을 평생에 걸쳐 펼친 그는 교단 안팎으로부터 수행자로 존경을 받았다.

다자탑 앞에서 세존 뵙고 '스승' 직감
"장로·신참들 양심 깨우는 길을 가라"
부처님 분소의 입고 두타제일 수행
첫 경전 결집 등 120세가지 교단 통설



그림 · 김홍인

늦깍이 출가, 구도의 길을 모색하다

가섭이 왕사성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12년간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업장 소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가섭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마음이 가는대로 길을 걷던 그때였다. 숲 속에서 탑이 보였다.

"다자탑이구나!"

가섭은 왕사성에서 나란다강을 지나가는 그 곳에서 한 선인을 만난다. 바로 부처님이었다.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가섭은 부처님을 보는 순간 수십년 간 기다려왔던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큰 스승임을 직감했다. 명상을 마친 부처님의 음성이 꿈결같이 들려왔다.

"가섭이여, 그대는 '장로들과 신참들과 중진들이 강한 양심을 일깨우는 길을 걸으라.' "

철수와 영자, 순자처럼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도 가섭(까사빠)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우루벨라 가섭 삼형제 등과 구별하기 위해 가섭 존자는 특별히 마하를 앞에 붙인 것이다. '마하'(摩訶)란 산스크리트어로 '크다'는 뜻으로 뛰어나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마하 가섭 존자는 무엇이 뛰어났을까. 마하 가섭 존자는 두타제일, 즉 수행이 으뜸인 제자였다. 가섭 존자가 두타제일로 불릴만큼 수행에 매진하게 된 것은 10년을 넘게 기다린 늦은 출가와 부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때문이다.

인도 왕사성 부근 마가다국 마하띳타(Maha-tittha) 마을에는 핍팔리라는 청년이 살았다. 60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바라문 가문의 장남이지만 핍팔리는 마을 여느 청년들과는 달랐다.

핍팔리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조용히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쟁기로 파 놓은 흙더미와 햇살이 따뜻한 날의 오후였다. 이런 햇살 때문일까 쟁기질한 틈으로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땅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래 너도 햇빛을 즐기는 하나의 생명이구나"

그때였다. 한 마리 작은 새가 벌레를 채갔다.

'내가 쟁기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벌레는 죽지 않았을텐데…'

핍팔리는, 순간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생의 죄를 범했음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출가의 결심을 굳힌다.

출가의 마음때문일까. 성장하면서 핍팔리는 독신을 고수한다. 나이 많은 부모는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 결혼을 권했지만 그는 독신을 고집했다. 그러나 효심이 깊었던 그는 부모의 간청을 쉽게 물리지 못했다.

"아버님, 이렇게 생긴 여인이라면 결혼하겠습니다."

핍팔리는 고심 끝에 아름다운 금빛 여인상을 만들어 보이며 이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있으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조각품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행운인지 불행인지, 꼭 닮은 여성이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 조각과 똑같이 생긴 여인을 마침내 데려온다. 전국에 사람을 보내어 수소문 하던 중 싸갈라 지역에서 조각과 흡사하게 닮은 처녀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받다 까삘라니, 훗날 부처님께서 인정한 비구니 십대제자의 한사람이다.

드디어 첫날밤이었다. 핍팔리는 출가의 마음을 부인에게 털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소.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느라 결혼했지만 구도의 길을 걸을 것이요."

"저도 자유로운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했어요. 비록 부모님의 강압에 못이겨 결혼한 겁니다."

아내인 까삘라니도 역시 결혼 이전부터 출가할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 핍팔리는 20세였고 까삘라니는 16세의 한창의 나이이지만 이들은 서로 순결을 지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중을 다 털어 놓으며 결혼을 도리어 다행으로 여겼다. 핍팔리 부부는 서로 출가의 약속을 지닌 채 이렇게 12년을 살았다.

부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핍팔리가 32세가 되던 해 양친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는 출가의 길을 떠나기로 한다. 12년간 함께 청정한 삶을 유지했던 부인 까삘라니와 함께였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머리를 잘라 주고 발우를 들고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먼 곳에서나마 당시 부처님의 이름을 들어왔던 터였다. 그들은 부처님이 계신 죽림정사로 향했다.

"당신은 왼쪽 길로 가시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겠소."

둘은 같은 길을 갔지만, 남녀가 함께 같은 곳에 있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갈림길에서 까삘라니는 왼쪽으로 핍팔리는 오른쪽 길로 헤어진다. 왼쪽으로 간 까삘라니는 죽림정사 근처 띳띠야마나 지역에서 수행에 전심했다.

오른쪽 길로 든 핍팔리는 마침내 부처님을 만난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상윳따니까야〉 가사경에서 존자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화를 전한다. 여기서 가섭 존자는 직접 아난 존자에게 당시 상황을 말한다.

"나는 출가해 대로를 따라 걷다 라자가하와 날란다 사이에 있는 바후뿟따 탑묘[多子塔]에 앉아 계신 세존을 뵈었소. 그분을 뵙자 내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소. '내가 스승을 뵙게 된다면 그분은 바로 지금 내가 뵙는 바로 이분 세존일 것이다.' "

"도반이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가섭이여,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족한 그대와 같은 제자에게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안다고 말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나는 본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다. 가섭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나는 장로들과 신참들과 중진들에 대해 강한 양심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수행에 정진하라.' 도반이여,



나는 칠일동안은 빚진 사람으로 백성들이 주는 공양을 먹었지만 팔 일째에 구경의 지혜가 생겼소."

부처님은 핍빨리의 출가를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 가섭이 장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함과 그 과정에서 보시행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터였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이었던 것이다. 그는 스승을 만난 8일 후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었다. 가섭이 부처님 입적 이후 교단을 통솔해 나갈 암시적 사건도 여기서 일어난다.

역시 〈쌍윳따니까야〉 가사경에서는 마하 가섭 존자가 아난 존자에게 말한 내용이 이어 전해진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리고 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선정에 들때였다. 부처님이 앉으려는 자리에 입고 있던 옷을 접어 자리를 만든 가섭에게 부처님은 말했다.

"가섭이여, 그대가 입고 있는 가사는 부드럽구나."

"세존이시여, 저의 가사를 받아주소서."

"가섭이여, 그러면 그대는 나의 분소의를 받겠는가?"

가섭은 부처님의 의발을 받는다.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뒤늦은 출가에도 가섭 존자는 철저한 수행정신으로 부처님과 마음이 통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옷의 촉감이 매우 부드럽다고 칭찬했지만 존자는 자신이 부처님보다 훌륭한 옷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 또 수행자가 부드러운 옷을 걸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다. 부처님은 존자의 그런 마음을 알고 분소의를 건넨 것이다.

이후 마하 가섭 존자가 어떤 수행의 길을 걸었는지는 존자의 행화를 모은 〈쌍윳따니까야〉 쌍윳따까 싸빠를 통해 자세히 전해진다.

부처님보다 20년 연상으로 알려진 가섭 존자는 부처님 입적 당시인 100세 이후 세수 120까지 교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 불법을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왕사성에서 제1차 경전 결집을 주도하였으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여러 나라들이 사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자 이를 중재해 전쟁을 방지하기도 했다.

마하 가섭 존자의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심전심의 염화미소, 반분좌, 곽씨쌍부 일화가 〈아함경〉 등에 전해지고 있다.

마하 가섭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 두타행이 제일 뛰어나 두타제일(頭陀第一)로 칭송된다. 산스트리트어로 까사빠, 가섭이라고 음역된다. 원래 이름은 핍팔리로 마가다 국 왕사성 인근 마하띳타 마을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과 생사의 길을 보고 출가에 뜻을 품는다. 32세의 나이에 출가하니 부처님께서 자리를 내어줄 정도로 수행에 매진했다. 부처님보다 20년 연상으로 알려진 가섭 존자는 부처님 입적 당시인 100세 이후 세수 120까지 교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 왕사성에서 제1차 경전 결집을 주도하였으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여러 나라들이 사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자 이를 중재해 전쟁을 방지하기도 했다. 그 근본 힘은 부처님 생전에도 마하 가섭 존자가 홀로 유행을 다니며 수행에 매진했던 것에 기인한다. 가섭 존자는 수행자로서 승단의 모범이었다.

(그림은 조향숙 화백의 석굴암 마하가섭 판화)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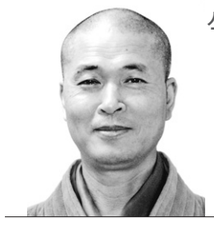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위행은 진실행

학승이 물었다.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해야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진주(陳州)에서 온 사람은 허주(許州)의 소식을 알 수 없어."

問 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 未審將什麼對 師云人從陳州來 不得許州信

길에서 도인을 만나 뭔가 뜻을 통해보려면 말이나 침묵 등으로 응대해서는 안 된다. 말이나 침묵으로는 진정한 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응대하면 될까? 학인의 질문에 조주 스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진주에서 살던 사람은 허주에 대한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인이 아니면 도인들의 대화를 모른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전문용어가 있고 전문기술이 있어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다 내려다 본 사람과 산 아래에서 맴도는 사람이 어찌 대화가 통할 것이며 뜻이 통하겠는가. 도의 대담은 즉문즉답이다. 당시 상황에 따라 문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가르쳐주어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이익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입을 여는 것은 유위입니다. 무엇이 무위입니까?"
조주 스님은 손을 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이 무위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위입니다. 무엇이 무위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위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위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래, 유위이다."

問 開口是有爲 如何是無爲 師以手示之云 者箇是無爲 云者箇是有爲 如何是無爲 師云無爲 云者箇是有爲 師云是有爲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무위(無爲)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전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무위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해를 주는 일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위이다. 무위행(無爲行)은 진실행(眞實行)이다. 만약 무위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가히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뭐라고 입을 열어 말하면 그것은 곧 유위(有爲)가 된다. 설사 선사가 빈손을 보였다 해도 그것은 유위이다. 또한 "무위!"하고 무위라는 문자를 외쳐도 그것 역시 유위이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유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위인가? 만일 나에게 무위를 묻는다면 묻는 자에게 주장자 일방(一榜)을 내겠다.

조주 선사가 문하 대중에게 보였다.
"나는 부처(佛)라는 한 글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은 사람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부처야, 부처."

師示衆云 佛之一字吾不喜聞 問 和尚還爲人也無 師云佛佛

선(禪)을 알고 도(道)를 아는 자라면 부처라는 이름을 싫어한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하다 도인, 선사, 성인, 부처 등은 모두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을 교화하는 선사라면 스스로를 부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망하고 만다. 남이 부처라고 불러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자기는 자신은 부처라고 말하는 자들이 선사들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26〉

일체 현상 끊임없이 생멸… 영원불멸은 없다

사법인-① 제행무상

사법인은 부처님이 깨달은 인간 세계의 진실로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일체개고(一切皆苦)·제법무아(諸法無我)·열반적정(涅槃寂靜)의 네 가지 항목을 가리킨다.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무상·고·무아·열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이 중 일체개고를 뺀 세 항목이 삼법인이므로 사법인은 삼법인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법인의 첫 번째 항목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제행은 생멸변화하는 일체의 현상법을 말하며, 유의(有爲)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유의역시 현상을 뜻하는 말로, 원인과 조건에 따라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원인과 조건이란 인연을 말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은 무상을 뜻한다.
제행무상의 '행(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行)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는 무상천류(無常遷流)의 뜻으로,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상에도 넓고 좁은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이 중 제행무상의 행이 가장 넓은 의미의 행을 의미하고, 오온의 행이 그 다음이고,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에 나오는 행이 가장 좁은 의미를 지닌 행이다. 제행무상의 행은 현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온의 행온뿐만 아니라 오온 전체가 '행'이 된다. 따라서 제행무상 속에 오온이 모두 포함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넓은 뜻을 지닌 오온의 행온은 행작(行作), 즉 작용을 가리키는 말로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데, 오온의 수온·상온·식온이 갖고 있는 작용을 제외한 마음의 작용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의미인 십이연기의 두 번째 행목으로써의 행은 업(業; karma)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신·구·의에 의한 선악의 행위를 가리키는 행이다. 따라서 제행무상의 행은 불교교리에서 설하는 행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광의(廣義)의 행이 된다.
제행무상의 본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나고 멸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영원불멸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전 속에 '무상이기 때문에 고(苦)이다' 혹은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다'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처럼, 고와 무아의 이유로서 무상이 설해져 왔다.
무상의 실천을 무상관(無常觀)이라고 하는 데, 무상관이 설명되는 의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종교심을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는 무상을 관함으로서 집착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재산이나 지위, 명예도 언제 악화되거나 잃게 될지 모른다. 무상의 참모습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 등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겸허함과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무상관에 의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귀중히 여겨, 노력정진하게 된다. 부처님이 입멸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에도 '제행은 쇠멸무상(衰滅無常)의 법이다. 너희들은 결코 방일(放逸)치 말고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라' 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전통적으로 무상이라는 말에는 노(老)·병(病)·사(死) 등과 같이 사태가 나쁘게 변화하는 비관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무상에는 좋게 변화하는 현상도 포함돼 있다. 무상이기 때문에 슬픈 일도 일어나지만, 무상이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바뀌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고통과 번뇌를 해소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제행무상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바탕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㉛

만일 현자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미린다팡하〉

30년 전의 일이다. 서울 시내 어느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갔다. 교무회의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무주임 선생님 순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끝!"이었다. 정말 회의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의 교단(教壇)문화가 걱정스러웠다.
한편,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Mahābharata〉에 나오는 회의 장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일 아랫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으로 발언권을 갖는다.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발언하게 되면, 낮은 사람들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카스트가 있는 계급사회지만, 이런 면이 있는 나라가 또 인도이다.
이러한 전통에 주목한 분이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이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로서, 후생경제학 분야에서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1998년에 동양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인도인들The Argumentative Indian〉(이경남 옮김, 〈살아있는 인도〉, 청림출판)은 바로 그렇게 토론하기 좋아하는 인도의 전통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 토론과 논쟁의 전통 하나 추가요! 바로 나가세나 스님과 밀린다왕 사이의 대론(對論)이다. 서기 150년 전, 서북 인도를 지배하던 그리스의 왕 미린다(그리스 명 : 메난드로스)가 당시의 학승 나가세나 존자를 찾아가서 토론을 벌인다. 〈미린다팡하Milinḍapañhā(彌蘭陀王問經)〉가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 도입 부분에서, 나가세나 스님은 토론을 하자고 찾아온 왕에게 묻는다 : "대왕이여, 만일 현자(賢者)로서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자(王者)로써 대론을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대론하지 않겠습니다."(서경수 옮김, 동국역경원, 48쪽)
현자 vs 왕자? 이렇게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도인의 사유이다. 〈마하바라타〉에서는 그것을, 해탈법(mokṣa-dharma) vs 왕법(rāja-dharma)으로 말한다. 나가세나 존자가 말하는 현자는 해탈법의 추구자이며, 왕자는 왕법의 추구자이다. 현자의 길을 걷는 나야 당연히 해탈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법을 추구하는 왕자니까 대론 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을 주어라"(49쪽)라고, 왕법에 따라서 나를 다루려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면 대론은 못하겠습니다. … 이런 이야기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왕법의 본질이다. 일찍이 싯다르타 태자는 '몽둥이(daṇḍa)' 야말로 왕법의 핵심이라 간파했음을 〈붓다차리타Buddhacarita(佛所行讚)〉은 전해주지 않던가. 그런 몽둥이를 움긴 채, 권력의 상징인 제복



그림 · 박구원

을 차려 입고서 토론을 하겠다면, 이미 평등한 토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힘 있는 자가 잠시,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
계급장을 떼어놓게 되면 현자의 대화가 가능해 진다. 밀린다왕은, 비록 왕이지만 지금 이 대론에서는 "비판받고, 수정받고, 반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내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왕자의 권력이나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성이라도 내게 되면, 어느덧 왕자의 대론으로 떨어지게 되리라. 더이상 현자의 대론은 불가능해 진다. 어쩌면 대론의 지속 역시 어려울 것이다.
30년 세월이 흘렀다. 내가 교생 나갔던 그 중학교 교무실의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다. 이제는 현자의 대론을 하고 있을까? 왕자의 명령 전달로 끝나는 회의(?)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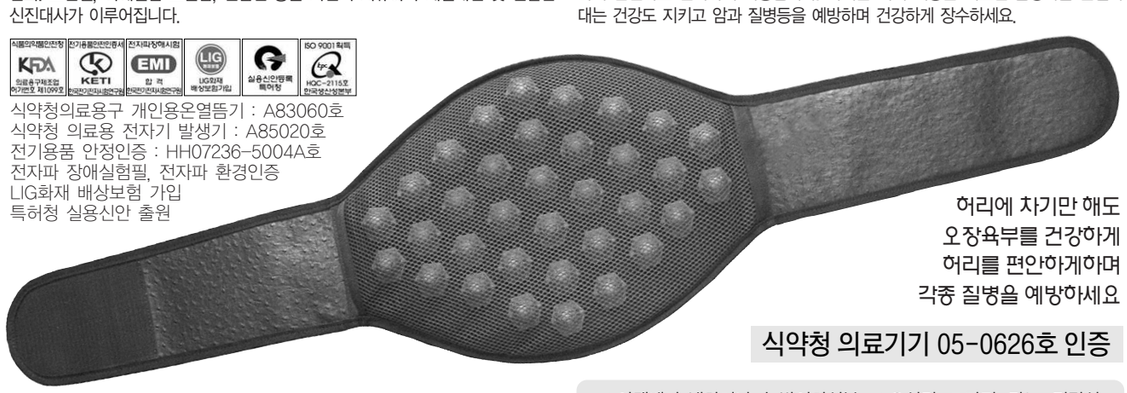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번호 제10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ETI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애시험 EMI 합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LIG화재 배상보험가입
실용신안등록 특허청
ISO 9001 품질 HQC-2115호 한국생산성본부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5〉

자택에 '하심정' 열어 무료급식 공양

금강경 실천행자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원장



김원수 원장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화학과 석박사과정(물리화학전공)을 수료했고 홍익공업전문대 금속과 교수, 홍익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前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 문중에서 출가해 수행 4년을 거쳤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사무총장을 지냈다. 불교신행단체 바른법연구원을 설립 법당을 건립(1988)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복지재단 이사장과 무료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김영사)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두운 무명속을 헤매던 제가 깨어났고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고 밝은 세상과 만났죠. 그야말로 광명대천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불법은 공기와 같고 밥과 같아요. 제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원장(70)은 금강경 가르침에 따라 '하심정'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그의 삶은 온전히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늘 수행하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을 일생의 업으로 삼는다.

선지식을 만나다…백성욱 박사

그가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불교에 매료되었던 청년 김원수는 전공 서적 이상으로 불교 서적을 끼고 다녔다. 그렇게 불교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은 점점 커져 갔지만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선지식이 없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ROTC 장교로 지내던 그는 불교의 새로운 경지를 가르쳐 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前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였다. 백 박사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그는 이렇게 회고 한다.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종법사가 혜능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왓장과 같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금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백 박사님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들이 기왓장이었다면 백 박사님 법문은 순금과 같았죠"

그는 백 박사 제자가 되어 주말이면 매주 부천 소사 도량에 가서 수행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김원수는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 세속의 삶에 회의를 느꼈고 진리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후 그는 군에서 제대하고 스승의 거처인 부천 소사 도량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기로 하고 금강경 실천 수행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먹고 자며 철저히 수행자의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간의 삶은 부귀영화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전공 역시 공학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로 믿었어요. 하지만 수행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터득한 거죠"

그는 당시 백 박사의 가르침이 육조 혜능 대사의 무념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분별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부처님은 아무 형상 없는 부처님, 무실무허의 부처님이시죠.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이 육조 혜능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무념법의 실천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후 저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살행의 서원을 세우다

이렇게 4년간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무념법을 깨닫고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청년 김원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한때 출가를 생각 했었지만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백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굳이 출가가 아니더라도 현재와 같은 굳은 각오로 세상일에 임한다면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어 백 박사는 현실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준다. "직장에 나가게 되더라도 봉급을 받거나 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성공할

군시절 백성욱 박사 만나 수행 입문
"보살행 실천하라" 스승 백박사 당부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삶 살자' 다짐
금강경 공부모임 바른법 연구원 개원

금강경 행자 양성 전문교육 도량
'금강경 실천 연수원' 설립 새 발원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스승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라고 당부했지요. 그것이 마음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든 일을 부처님 사업으로 알고 일하며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삶을 살자고 원을 세웠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그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교수가 되어 오랫동안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사명이 있었다. 불법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88년부터 고양시 원당동에 바른법연구원을 설립해 금강경실천수행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재가자 수행을 이끌며 일상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그의 마음 속에는 허전함이 있었다. "참선 명상 등의 수행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보살행을 통해 스스로를 밝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나누는 삶으로 보시행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제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어느날 그는 소외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결심하게 된다. 처음 시작은 바른법연구원이 위치한 고양시 원당동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식사 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다.

"식사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적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 그곳은 도시 개발로 돈을 번 노인들이 많아 급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인근 무주택자들의 비닐하우스촌에 반찬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시작으로 오늘의 '하심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여기서 김 원장은 봉사라는 것이 막연히 좋은 뜻만 갖고 행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에 봉사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선 좀 더 현실적 안목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2004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신의 3층 주택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주택 대문을 헐고 정원을 개조하고 대나무 지붕을 만들어 임시 급식소를 만들었다. 이름은 '하심정(下心亭)'.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만든 이 명칭은 마음을 닦는데 하심(下心)이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른법연구원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열정을 다해 어르신들의 공양을 대접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둘 식사하러 어르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당시는 그래도 현직 교수 신분이어서 월급을 받았죠. 이 월급을 갖고 '하심정'을 운영해보자고 마음먹고 무작정 덤벼들었죠.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여기저기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두들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하심정' 반대하던 이웃 이제는 후원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하심정도 1, 2층을 개조해 어엿한 식당의 모습을 갖췄다. 주 2회 급식을 하는 이곳에 한 달이면 2천 5백여명이, 1 년이면 3만 명이 다녀간다. 8월 11일로 개업 8주년을 맞은 '하심정'에 그 긴 시간 동안 다녀간 어르신만 1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반대는 이웃들에게 있었다. 시의원이라도 나가려고 그러냐 왜 이 동네에서 이런 급식소를 운영하느냐 등 뜻하지 않은 항의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부처님 법에 따라 모든 것을 회향한다는 마음을 갖고 꿋꿋하게 뜻을 펼쳐 나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인근 시장 상인들도 팔다 남은 물건을 놓고 가고 급식을 먹고 간 노인들이 요구르트를 놓고 가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이웃이 자원봉사자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 신자도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급식 먹으러 왔던 어르신도 일을 거드는 진풍경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가대신 “보살 되자”



김원수 원장은 1988년 바른법연구원을 설립해 금강경 실천 수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일요 법회 장면.


무료 급식소 하심정은 매주 화 · 목요일 두차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공양을 한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하심정 전경. 평상시에는 급식소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일반 한식뷔페 식당으로 운영된다.

이 벌어졌다. 모두가 하심정 후원자가 된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웃들 반대가 그렇게 거셀 줄 몰랐죠. 하지만 모든 게 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꿋꿋하게 밀고 나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제는 조계종서 국수도 제공해 주고 마포구청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도 주는 등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아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심정을 운영하며 느낀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남에게 나누면 인정도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지 세상이 다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나누면 상대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무료급식소 운영을 통해 체험하게 됐죠”

세상과 통하는 ‘불교’ 만들고 싶다

이제 ‘하심정’은 무료급식소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 원장은 화 · 목요일 무료급식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심정’을 한식 뷔페 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심정’의 독립 운영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을 찾던 그는 4년 전 홍익대 교수직을 은퇴하면서 새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복지 기업 ‘하심정’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조미료를 넣지 않은 청정 식당으로 말이다.

“사실 복지 식당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후원과 보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수익을 내서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경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 2회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지난 8년간 10만 여 명 다녀가

‘하심정’에서 한식뷔페도 운영
더큰 회향 위해 복지 법인 설립

생각했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뛰어 우리 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하심정’을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심정은 이윤을 내기 위한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 바른법연구원 회원들이 직원이 되어 운영하는 ‘하심정’은 아침 근무 시작 전에 모두 〈금강경〉 독송을 한다. 그리고 모든 고객을 부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루 일과를 연다. 수행과 일의 일치를 통해 제대로 된 불교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김 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은 주변에서 찾기 힘들지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직은 소규모 식당이지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면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예를 ‘하심정’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 원장은 불법을 믿고 따르면 그 누구보다 세상일에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인다.

“불법을 믿고 따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출가만이 길은 아니지요.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행할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불교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포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의 서원은 ‘금강경 실천 연수원’을 설립해 유능한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행복과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 깨달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는 “금강경 실천법을 세상에 적용하면 최상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몇 십년 못 푼 진리도 풀 수 있죠. 이렇게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강경 실천 연수원을 세우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탐진치를 부처님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죠. 올라오는 화도 마음의 어리석음도 헛된 욕심도 부처님 마음으로 돌이키면 모두가 좋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삶을 수행으로 돌이켜 진정한 행복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김 원장. 많은 이들이 진정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는 오늘도 자신의 수행을 세상에 회향하는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잃어버린 합죽선


동국대 명예교수

이따금 펼쳐보는 합죽선이 있다. 그러기를 일년 여. 그날은 합죽선을 들고 출행하였다. 원체 햇살이 따가워서였다. 더위를 쫓는 시원함 보다 햇살 가리개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마치고 났다. 밖은 여전히 폭염이 이글거려 사용했던 합죽선을 찾아보니 보이지 않았다. 주위도 살펴보고 소지품의 구석구석을 두루 챙겨 보았으나 영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 아차, 잃어버렸구나.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허탈함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다. ‘더 간수를 잘 할걸 …. 아니면 가지고 외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낭패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벼라별 생각과 넋두리가 덧대어 갔다.

사람이건 물건이 되었건 그저 보기만 해도 좋아 엔돌핀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버린 부채 역시 흥이 나오는 물건이다.

미명(未明) 김지안(金智雁) 보살님이 손수 그린 그림이 들어있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 보살님은 그림에 능하고 가야금도 어느 경지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뛰어난 기예에 신심이 깃든 작품이니 소중함이 오죽했으랴. 그림은 대나무였다. 원근법이 선연한 대나무.

대나무의 종류와 용도는 다양하다. 갓대와 조릿대로는 조리를 만들고, 이 대로는 담뱃대 · 부채 등을 만든다. 이대를 산죽이라고도 하고 오구대 혹은 신위대라고도 부른다. 왕대나 솜대로는 건축자재 · 가구 · 빗자루 · 완구 등 일용품을 만든다. 왕대는 고죽(苦竹)이라고도 하고 솜대는 담죽(淡竹)이라고도 부른다.

죽을 열거하다보니 죽이 들어간 말들이 다양하여 열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고죽은 왕대라 했고, 수죽(修竹)은 가늘고 긴 대를 말한다. 객죽(客竹)이 있는데 손님을 위해 장만한 담뱃대를 이르고, 은죽(銀竹)은 몹시 퍼붓는 소나기를 이르는 말이다. 석죽(石竹)은 패랭이 꽃이다. 석죽색이라고 하면 분홍색을 이르는 말이고.

말이나 글이란 선입관이 앞서다 보면 낭패를 입을 소지가 많으니 함부로 입을 뗄 수 있는 일도 아닌 듯 하다.

식물이 꽃이 핀다는 것은 신비의 극치요 희열이 아닐 수 없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 결실이 따르기 마련인데 대나무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개화병(開花病)이라는게 있다. 대나무의 번식과는 상관없이 돌연변이의 일종이다. 대나무는 불로장생한다는 단약(丹藥)이라도 상복하는지 나이테가 없고 비대성장을 하지 않는 외떡잎식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가 맑고 절개가 굳으며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도를 행할 군자가 본받을 품성을 모두 지녔다 하여 무척 좋아 하였다. 그 한 사람이 윤선도이다. 그의 오우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느냐?
저러고도 네 계절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고산은 그의 담론의 장이었던 세연정에서 삶의 여백을 즐기며 곧은 지조와 푸른 절개를 대나무에 비유했던 것이 아닐까.

부채는 그 역사가 오래인 듯 하다. 3세기에 가야 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구려 벽화에서도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송나라의 곽약허가 지은 〈도화견문지〉에 “고려에서 들어오는 접첩선을 사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접첩선은 손에 쥐는 부채의 일종인 합죽선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1123년 송나라의 서긍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고려도경〉

보기만 해도 즐거운 부채 분실
절개 상징 대나무 그림 선연해
누군가 소유 했다면 기쁨 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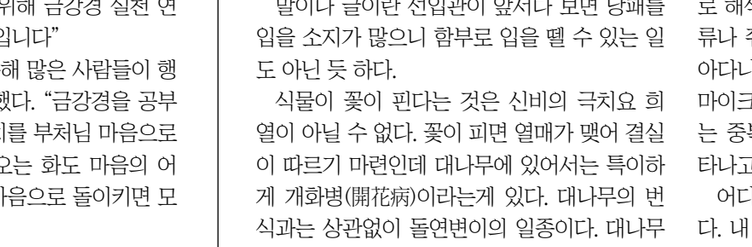
에는 “고려인들은 한 겨울에도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신기한 것이다.”고 감탄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양쪽 변죽에는 국화무늬가 있다. 국화는 서리를 맞고 피어나는 꽃으로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였다. 부채 속살에는 앞뒤로 박쥐를 그려 넣었다. 박쥐는 오복의 상징으로서 경사와 행운을 나타내고 있다. 박쥐 복(?)자를 복복자로 해석하는 데에서 기인된 듯 하다. 박쥐는 조류나 쥐류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며, 새처럼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이다. 신비하리만치 2마이크로 초, 즉 1초의 1/500 간격으로 전달되는 중복 에코를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합죽선을 생각해 본다. 내 손에서 벗어난 부채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새롭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승을 떠남이 저승에서는 탄생이 되듯이. 소유하게 된 사람은 나이테가 없는 대나무 같이 늘 푸르길 바란다. 그리고 전 주인이 보며 엔돌핀이 나왔듯이 항상 기쁨을 나르는 합죽선이기를 바라는 것은 잃은자의 허탈함을 채우기 위함일까.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크리스탈 인등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이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美 지도자들, 불교의식 참석 '눈길'

미국의 지도자들이 불상에 참배를 하고 명상을 하는 등 불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불교가 세계평화를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국 前 대통령은 영적인 고취를 위해 불교 명상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 것이다.

영국 일요신문인 선데이타임스(Sunday Times)는 "최근 심장병을 앓은 이 65세의 정치인은 건강한 삶을 위해 채식과 명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서 클린턴의 측근은 "빌 클린턴은 세 번째 심장수술 후 심장발작에 대한 공포와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 명상을 택했고 제대로 명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스님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측근은 "미국의 외교 강화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는 클린턴에게 정신적 평온함을 유지하는게 최 우선"이라며 "명상이 그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며 그는 만트라(진언 · 眞言)를 외워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클린턴은 버터 등 유제품과 계란 등 동물성 식품은 전혀 먹지 않은 엄격한 채식주의자 비건(vegan)인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 스테이크, 닭고기 요리, 바비큐, 감자튀김 등을 즐겨온 클린턴은 두 번의 심장수술을 받은 뒤 채식주의자로 변모해 20파운드(9kg)가량 감량한 것.

58세 때인 2004년 협심증으로 첫 번째 수술을 받은 클린턴은 지난해 다시 심장수술을 받고 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는 CN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4년 당시 심장 문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다"며 "두 번째 수술 이후 내가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클린턴은 "식단을 조정하고 열량을 줄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부부…불교명상 중
클린턴, 전문가 스님이 지도
오바마…어머니와의 추억살려
가마쿠라 청동대불 찾기도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도 불교명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9 · 11 테러 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힐러리도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를 찾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런 종교적 행보는 동남아지역을 방문할 당시 참배로 이어졌다. 힐러리는 지난 7월 11일 美 국무장관으로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폭탄을 투하했던 라오스를 방문했다. 그는 라오스 불교 사원에 들러 불상에 연꽃을 올리며 참배를 한 것.

또한 힐러리 클린턴은 2011년 12월 미얀마 양곤의 쉬웨테곤 파고다를 방문해 현지 예법에 따라 맨발로 고찰을 둘러보고 아기 부처에 물을 뿌리는 관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오바마 美 대통령은 2010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가마쿠라(鎌倉) 청동대불(大佛)을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마쿠라 대불이 6살 때 어머니와 일본 여행중에 들렀던 추억의 장소"라며 일행과 함께 벤치에 앉아 말차(抹茶 · 녹차보다 쓴맛이 강한 차) 아이스크림을 즐겼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훌륭한 보물앞에 다시 돌아와 좋다"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① 빌 클린턴은 심장병을 앓고 난 뒤 건강한 삶을 위해 스님의 지도로 채식과 명상을 하고 있다. ② 힐러리 클린턴도 9 · 11 테러이후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 명상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③ 오바마 美 대통령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살려 가마쿠라 청동대불 찾아 "일본의 훌륭한 보물앞에 다시 돌아와 좋다"고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가족이 함께하는 '3일간의 깨달음' 캠프

바즈라파니(Vajrapani) 연구소, 19년째 개최
올해 '자비행'을 주제로 50여 세대 참여

캘리포니아 소켈(Soquel)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깨달음의 캠프가 주목받고 있다고 〈머큐리 뉴스(Mercury News)〉가 보도해 주목된다.

가족 캠프는 소쿠엘에 위치한 바즈라파니(Vajrapani) 연구소에서 '3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것으로, 올해로 19년째이다.

연구소는 '대승전통 보존재단(Found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의 산한 연구 기관으로 1975년 설립된 이후 '주말 강연', '법회', '명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캠프 운영을 맡아온 기셀레 티셀링(Giselle Tsering)은 "'자비행(Compassion in Action)'을 주제로 마련된 올해 가족 캠프에는 50여 세대가 참여했다"고 설명하고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사유의 여정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고 말했다.

캠프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파빈느 프라델(Fabienne Pradell)는 "동참 가족들 중에는 이미 불교 수행을 하며 자비의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부모', '착한 자녀'의 삶을 희망하며 캠프의 문을 두드린 이들도 많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챙김을 통해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보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켜보는 과정'에서 삶의 교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자신의 내면에 솔직해지고, 이를 통해 주변과 교감할 수 있는 태도를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베브 그윈(Bev Gwyn · 캠프 교사)는 "'그릇에 물을 부으며 집착에 대해 설명'하고, '지나친 욕심이 탐욕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강조해, '관대함만이 자신을 자유롭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육 내용을 소개했다.



가족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숲속 길 걷기'를 하고 있다. 가족 캠프는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5세 때부터 가족캠프에 참여해 온 크라라 치유(Clara Chiu · 13세)는 현재 '청소년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얼굴에 홍조를 띈 그녀는 "명상과 수행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이곳의 삶은 느리지만, 매우 깊다"며 "학교를 다니기 전에 이곳에서의 배움은 올바른 가치관의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페미니즘을 개척한 수행자

세계의 불교학자(28)

리타 그로스 美 위스콘신대 철학 교수



리타 그로스(Rita Gross) 美 위스콘신대 철학 교수는 불교페미니즘을 개척하는 불교수행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로스 교수는 전통적으로 불교학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연구돼 왔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여성의 시각에서 불교경전과 교리를 이해 ·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중심적인 자료보존이나 남성연구자 관점의 연구전통에서 간과 · 무시돼 온 자료가 있음을 주목하고 그 자료들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재발견하고자 했다.

그로스 교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상징은 성평등적이어서 남성은 물론 여성에 대해 평등하게 관련돼 있으며 평등하게 적용가능하다"며 "하지만 불교가 동시에 남성중심적이며 가부장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전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기록되고 보존 · 연구 · 해석 돼 왔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를 깊이 연구해온 그로스 교수는 기존의 종교가 여성들을 가부장적인 틀에 묶어두는 구실을 해왔지만 여성들은 스스로 종교 안에 숨겨진 양성평등의 메시지를 읽어내 참된 영성을 향한 길을 걸어 왔다고 강조한다.

페미니즘의 양성평등이야말로 인종, 민족, 종교, 계급을 넘어서 진리 안에 하나됨을 지향하는 종교의 참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그로스는 그런 자신의 믿음에 따라 20년 이상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고 지금도 종교 간 차이보다 조화에 방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다.

철저한 불교적 수행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초얌 찬파, 사티옹 팜 린포체, 칸드로 린포체 세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들 스승 가운데 칸드로 린포체는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여성 승려다.

그로스 교수는 "남녀 스승 간에는 차이가 없다"며 칸드로 린포체가 여성의 몸으로 남성을 포함한 많은 수행자들의 스승이 된 것을 강조했다.

그로스 교수는 2004년 7월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해 '지도자와 스승으로서의 불교 여성들'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데 남녀라는 성(性)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불교의 근본은 성에 관해 중립적이고 걸림이 없지만, 불교의 관례와 제도는 그렇지 않다. 이는 곧 여성을 억압하는 관습이 불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로스 교수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가불자들을 가르치는 비구 스님들의 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구 스님들은 남편의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참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며, 불교적 가르침이자 참된 수행으로 이끄는 길잡이의 구실입니다. 불교는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는 무명과 욕망의 고통을 넘어서 집착을 버리고 해탈에 이르는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현실에서 깨닫기 위해

여성 시각에서 불교경전 분석
20년간 불교 · 기독교간 대화 참여
40년간 철저한 불교수행 실천

1973년 수행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1시간 이상 참선과 절 등의 수행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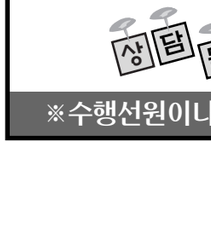
그로스는 위스콘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시카고 대학에서 엘리아데(M. Eliade)에게서 수학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호주 원시 종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은 종교학 연구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방법론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위스콘신대학(Eau Claire 캠퍼스)에서 재직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수행자로서 그로스는 티베트의 카르마 가규파 전통에서 오랫동안 수행했으며, 수행지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페미니즘을 접목시킨 그로스의 주저 〈Buddhism After Patriarchy(1993)〉는 여러 학술상의 수상작이 되었고 이 분야의 선구적 · 독창적 연구서가 되었다. 그로스는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연구를 주도하기도 했으며, 주저 〈Buddhism After Patriarchy(1993)〉와 〈Feminism and Religion: An Introduction(1996)〉 이외에도 8여권의 공 ·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이나은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두타선원(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본선원장 법헌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네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휴면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헌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명인 죽허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시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체 〈법헌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헌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 종무직 봉사자 모집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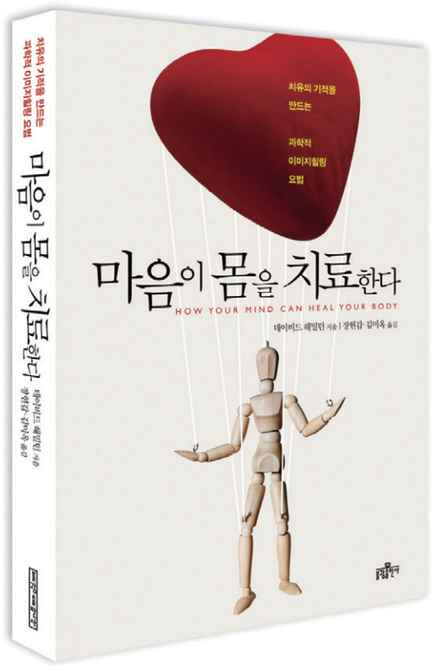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값 17,000원



생화학 박사이자 전 제약 회사 연구원이 밝히는 강력한 마음의 치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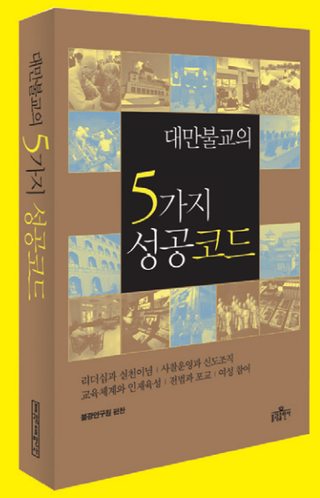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심신의학 치료의 의학적·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는 책!
- 장현갑(옮긴이, 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비결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세계 대승불교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대만불교
전문 학자들의 현지 조사와 최신 자료에 근거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 투명한 사찰 운영과 체계적인 신도조직
-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 육성
-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불광연구원 편찬
456면 | 값 23,000원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선율로 부처님 법문 찬탄”

비파(琵琶)의 비밀


지국천왕도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전국의 유명 사찰들에서 아직도 사천왕상의 위치와 이름을 혼동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가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위치는 제대로이지만 사천왕상의 이름을 모두 다 바꿔놓고 전부 틀린 사찰들이 꽤 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불국토의 동쪽을 지키는 동방 지국천왕의 지물인 비파(琵琶)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항상 사천왕각을 지날 때마다 지국천왕이 지니고 있는 비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채 바라보기만 한 적이 많다.

〈약사여래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에 의하면 지국천왕은 비파를 든 것으로 되어있다.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에는 왼손에 팔을 내려 칼을 잡고, 오른 손엔 보주(寶珠)를 쥔다하고, 일자불정륜경에 의하면 왼손엔 칼을 오른손은 손바닥을 올려든다고 되어있다.

동방 지국천왕의 지물(持物)
한국 향비파 당비파 전해져
포교 위해 연주자 양성 필요

현재는 전국 사찰의 대다수의 사천왕각의 지국천왕은 주로 비파를 손에 쥐고 연주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쇼카왕경〉이나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에 의하면 수미산을 다스리는 제석천과 부처님이 동방에서 불법(佛法)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한다.

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주되고 있는 비파는 원래 서역(西域), 즉 인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의 석명(釋名)이라는 책에 의하면 ‘비파는 밖으로 내어 타면 비(琵)요, 안으로 들여 타면 파(琶)라고 한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2종의 비파가 전하는데, 향비파(鄕琵琶)와 당비파(唐琵琶)가 그것이다.

향비파와 당비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비파는 공명통에 머리 부분이 곧은 경(頸), 즉 직경(直頸)을 지닌 5현의 악기인데 반해, 공명통에 머리 부분이 흰 곡경(曲頸)을 지닌 4현의 악기이다. 향비파는 신라시대에 이미 전해져서 연주되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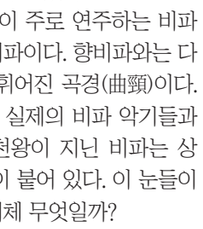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술대를 거문고처럼 자(自)자 모양으로 쥐고 옆으로 긁어 소리를 낸다. 193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주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악기들만이 전해진데 반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주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동방 지국천왕이 주로 연주하는 비파는 여기에서 당비파이다. 향비파와는 다르게 목 부분이 휘어진 곡경(曲頸)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의 비파 악기들과는 다르게 지국천왕이 지닌 비파는 상단에 두 개의 눈이 붙어 있다. 이 눈들이 상징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난초를 그릴 때 잎을 그리는 선이 교차할 때, 처음 나오는 기법을 봉안(鳳眼)이라고 부르고 다시 한 번 선을 겹칠 때 상안(象眼)이 나온다. 그 코끼리의 눈이 정확히 비파의 양 눈과 일치하는데, 멀리 올려진 비파의 끝 부분을 보면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늘어져 있다.

비파의 두 눈은 코끼리의 눈이었던 것이다. 옛 게송에 이르기를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 자취 없어지니, 씩씩한 코끼리 새끼 그 가풍을 이었네’ 라는 말이 있다.

상왕(象王)은 부처님을 상징한다. 지국천왕의 연주는 부처님의 법문을 찬탄하기도 하고 법문을 펼치기도 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불교음악을 발전시키고 포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비파 연주자들을 불교에서 양성하면 좋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삶·사유·예술 새롭게 모색한 사찰 여행

화가 이종송·사진가 전성영 ‘남자의 여행 展’ 8월 28일부터


불혹을 맞은 세 명의 남자가 사찰 여행을 떠났다. 6년 여 시간 동안 함께 여행하고 작업한 글과 그림과 사진을 담아 〈남자의 여행〉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했고 8월 28일부터 류가헌서 전시회를 연다. 사진 왼쪽부터 화가 이종송, 시인 유명종, 사진가 전성영 씨.

한국인들에게 있어 사찰은 신앙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위치한 사찰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사색을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사유의 공간이며 비움의 공간이다. 그래서 피 끓던 청춘의 시기를 지나 중년으로 접어드는 이들에게 절이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을 찾는지 모른다.

세 남자의 여행도 이렇게 시작됐다. 시인 유명종, 화가 이종송, 사진가 전성영은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찰 여행을 떠났다. 자신들의 삶에, 사유의 방식에 또 추구하던 예술의 세계를 새롭게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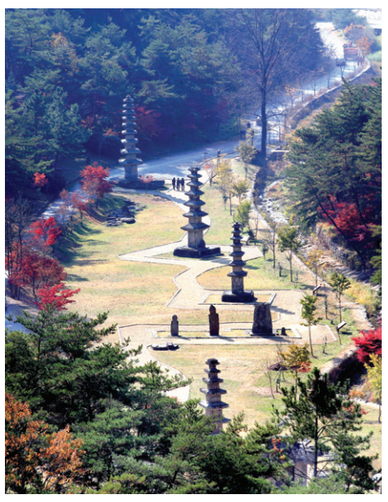
이렇게 6년여 시간 사찰로 떠났던 세 남자의 이야기와 그림과 사진이 책 〈남자의 여행〉으로 출간됐다.(본지 900호 보도) 그리고 이를 기념해 8월 28~9월 2일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서 화가 이종송과 사진가 전성영의 ‘남자의 여행 展’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찰을 배경으로 한 그림 20여 점과 사진 10여 점이 전시된다. 이들은 여행을 통해 느꼈던 삶의 변화를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아냈다.

이종송 화가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나다워졌다’ 라고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동안 사실적 객관적인 작품을 위주로 하다 보니 주변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온전히 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죠. 주변의

비우기 위해 떠났는데
꿈 · 사랑 · 공존 가치 얻어
6년 간 40여 사찰 여행
류가헌서 단행본 출간 기념전

이야기를 벗어나 가장 나다워진 세계를 표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찰 벽화 작업을 해온 이종송 화가는 흙벽화 기법을 이용한 ‘움직이는 산 시리즈’를 선보인다. 영주 부석사, 강진 무위사, 여주 신륵사 등 주관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자연과 사람 동물들을 함께 담아낸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천불산 불사바위에서 내려다 본 전남 화순 운주사. 왼쪽은 전성영 작가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종송 화가의 그림이다.

이들은 지난 시간 동안 전북 김제 망해사, 전남 강진 백련사, 경남 합천 해인사, 전남 화순 운주사 등 40여 개의 사찰을 찾아다녔다. 때로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각자 혼자 떠나 사색에 잠기며 고민하기도 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때로는 절경의 풍경을 만끽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고민했다.

사진작가 전성영 씨 역시 이번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전한다. “그동안 역사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많이 했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방 문명의 흐름을 쫓아다니며 유적이 가진 신비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래서 절보다는 유적지인 절터가 더 좋았어요. 하지만 사찰 여행을 통해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 절을 보게 됐죠. 과거의 삶을 쫓던 저는 절속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었고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작품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행을 단순히 책을 출간하거나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 명의 남자는 계절따라 작품 따라 또 때로는 각자의 상황과 감성 따라 수차례 절을 찾아 다녔다.

백련사 동백꽃을 보기 위해 또 그것을 느끼기 위해 혹은 눈 위에 떨어진 동백을 감상하기 위해 그렇게 몇 번씩 백련사를 찾았고 절정의 순간을 표현해냈다. 또 너무나 잘 생기고 지적이기까지 한 화엄사의 완벽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몇 번을 들렀고 오랜 고민 끝에 작품을 만들어냈다.

한 사찰을 찾는 횟수가 최소 2~3번은 기본이었고 많게는 15회~20번까지 간 절도 있다. 그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했고 사유했고 느꼈다. 누군가 돈을 주며 강제로 시켰다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여행은 자신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즐겼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다. 하나의 절을 보고도 각자가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셋은 자신들의 작업을 개별성과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라고 말한다.

시인 유명종은 이번 작업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한다. “비우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실이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나는 세상 속에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렇게 세 명의 작가들은 비우기 위해 절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꿈 사랑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얻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화가 이종송은 히말라야와 티벳을 찾고 사진작가 전성영은 역사 다큐를 위해 또 시인 이명종은 비움의 삶을 모색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하지만 또 이들은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시각적 작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모여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이라 다짐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동의보향 무료 향기 체험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화주시면 바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용 본사부담)
동의보향 덤 증정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시 수량별 추가 덤 증정
(전제품 선물용 쇼핑백 포함)
동의보향 복주머니 (12x19cm, 100g)
동의보향은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동의보향은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향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여름 산사 추억

고은 시인과 함께한 '업장 씻기'



오 세 영
시인 · 서울대 명예교수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쌓은 업장을 씻었다.

나는 깨우쳤다 산은 경전 계곡물 소리는 경 읽는 소리 우주는 큰 사원

백담사에서의 하룻밤

기회가 닿는다면 가능한 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필자이지만 여름을 산사(山寺)에서 보낸 적은 별로 없었다. 대체로 산사를 찾는 것은 적요한 공간에서 글을 쓰기 위함인데 여름철의 산사는 관광객이나 피서객들로 번잡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길게 머물 경우, 대개 겨울을 산사에서 지내곤 하였다. 그러나 2~3일의 짧은 일정은 여름 산사에 머무는 것도 결코 사양할 일이 아니어서 나는 몇몇 절집에 얽힌 소중한 여름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10 여 년 전인가 여름에 백담사에서 2~3일을 머문 적이 있다. 아마 매년 8월 초 · 중순에 개최된 어느해 만해축전 때였을 것이다. 요즘과 달리 당시의 만해 축전은 만해마을이 아니라 백담사 경내의 도량에서 열렸다. 지금의 백담사 입구에 있는 만해마을이 아직 준공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해의 축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에 반비례해서 수용할 공간은 턱 없이 모자랐던 까닭에 참여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대개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숙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필자 역시 요사채의 한 방에서 몇 몇 시인들과 함께 지나게 되었다.

그날 밤이었다. 축제 끝 뒤풀이로 소란스러운 경내 분위기 탓에 나는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야 겨우 자리를 펼 수 있었다. 이미 두 세 명의 다른 문인들이 점유한 공간의 한 틈바구니였다. 몸을 비비적거리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아니 자려고 애써 노력하면 할수록 잠은 멀리 달아났고 정신은 점점 더 말짱해지기만 했다. 슬며시 옆에 누운 분들을 살펴보았다.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모르게 단잠에 깊이 빠져 있었다. 대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신경이 무디면 이처럼 불편한 장소에서도 저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낙천적 성격이 부러운 만큼 내 소심하고 예민한 감성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옆에서 잠든 분들 중 한 분이 유독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산사의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고 울리는 그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는 마침내 나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잠자려는 노력을 그만 작파하고 벌떡 일어나 문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마루에 걸터앉아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 밤 하늘에 반짝이던 그 주먹 같은, 참외 같은 수많은 별들… 세월은 변했어도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바라보았던 그 별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겨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처럼 마루에 홀로 앉아 황홀한 심사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다. 바로 옆방의 미닫이가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루로 나왔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거니 싶어 뒤돌아보니 아, 바로 고은 선생. 선생도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만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먼저 침묵을 깬 고은 선생이 건네는 말씀, "오 교수 우리 저 계곡에 가서 업이나 씻지". 내가 그 말뜻을 선뜻 알아듣지 못하고 두리번거리자 선생은 은근히 다시 독촉한다. "날이 너무 더우니 개울에 몸이나 담그자는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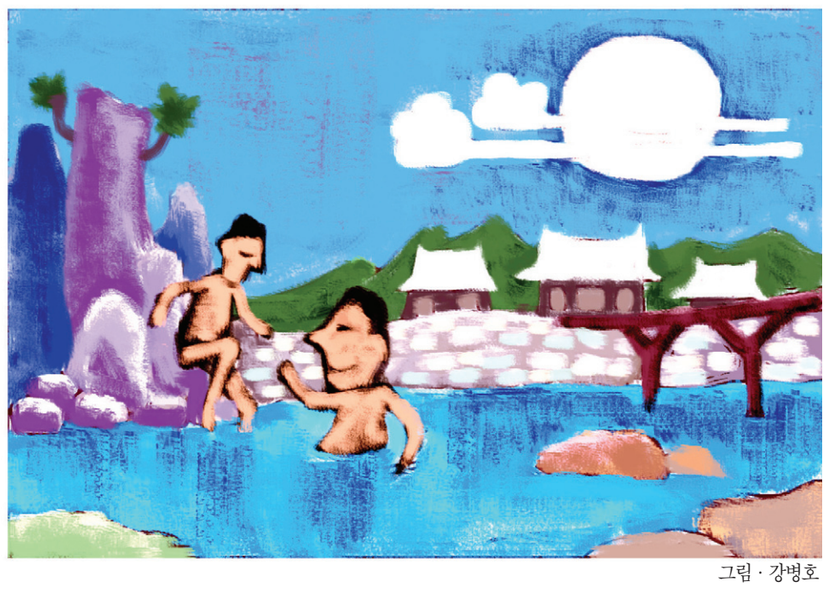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그리고 보니 무척 더웠다. 그 해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실시된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 했다. 평소라면 시원했을 백담계곡이었겠지만 그 날 밤만큼은 온 몸이 땀으로 끈적거렸다. 내가 잠자리를 뛰쳐나왔던 것도 실은 옆에서 자는 분의 코골이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후텁지근한 실내의 공기와 여러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말 없이 선생을 따라 나섰다.

미명을 앞 둔 시간이라 경내에도 계곡에도 숲속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우리는 사찰에서 다소 떨어진 계곡의 후미진 소를 찾아 옷들을 미련 없이 훌랑 벗어던졌다. 그리고 벌거숭이가 된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처음엔 오싹했으나 참고 몇 분을 버티니 기분이 한결 상쾌하고 상큼해졌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 이 해방감! 자유! 정갈하고도 청정해지기 비할 데 없는 이 마음, 신선(神仙)의 경지가 따로 있지 않을 듯 싶었다. 내 살의 오염된 때를 씻겨낸 이 맑은 백담의 물이 뼈 속까지 신선하게 스며들더니 마침내 마음의 지은 죄까지도 말짱하게 닦아주는 듯 싶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실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쌓은 업장을 씻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아까 '백담계곡에 내려가 업이나 씻자'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요사체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이 다시 농담을 걸어왔다. '오 교수 돈 벌기 쉽제? 우리 오늘 백만 원 벌었어' 국립공원 계곡물을 오염시키면 벌금 백만 원이라 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돈을 우리가 번 것이라는 논리이다. 요사체에 돌아와서 나는 아예 잠들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마루에 걸터앉아 짧은 여름밤을 지샜다. 계곡의 물소리가 청명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마치 눈이 맑은 비구니의 경전 읽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나는 깨우쳤다. 산은 하나의 큰 경전, 그것을 감싸고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는 경을 읽는 소리. 우주는 하나의 큰 사원이라는 것을….

문화와 기부가 새 세상 열어

더프라미스 '아트광주 12' 전시참여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는 예술가와 기부자를 연결시키는 아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기부 작가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구매하는 이는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진다. 예술과 나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깊다.

'아트광주12' 에도 더프라미스의 나눔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9월 5~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 NGO 단체로는 처음으로 더프라미스가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나무시리즈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를 비롯 ▷환경사진작가 강제욱 ▷한국의 책가도를 재해석한 임수식 작가(사진) ▷철학적 주제를 키치하게 담아내는 심아빈 작가(회화) ▷현대인의 모습을 희화한 변경수 작가(조각) 등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더프라미스는 단체 기부상품 및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리카 등의 전통 공예품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출품된 이명호의 '나무' 는 나무 뒤에 거대한 천을 대고 촬영한 작품이다. 이명호는 자신의 작업을 '완성' 하는 것보다는 '과정' 에 더 집중한다. 합성사진이 아닌 실제 나무 그대로를 담아냄으로써 오랜 시간을 걸려 생성되는 자연의 위대함을 온전히 표현해 낸다. 또한 사실적 표현주의를 표방하는 강제욱 'Asian Wall' 은 회화 같이 보이지만 회화를 벗어나고 있으며 상징과 의미로 점철된 사진 이미지를 보여준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아트광주12' 는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며 차별화된 아트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작가연금신탁)를 비롯 해외 33개 갤러리 등 81개 갤러리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더프라미스의 작품은 한국의 대안공간과 외국 비영리공간을 소개하는 '뮤지엄 아울렛'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명호作 'Tree#1'

판화로 만나는 고암의 형형색색

이응노 '그려진 판화展' …9월 23일까지

고암 이응노의 '그려진 판화(Touching Print)展' 이 삼청동 갤러리 예담 컨템포러리에서 9월 23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작가의 파리 시절 판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파리시기에 정립된 판화작품들을 선보인다. 고암의 대표작인 문자추상과 군상시리즈를 포함해 그의 손에서 태어난 다양한 이미지들이 선보인다. 회화에서처럼 힘 있는 필력은 판화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감의 조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723-6033

정혜숙 기자



이응노의 'Composition'

맑고 향기롭게 '문예 공모전'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전국 학생 문예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운문은 시 시조 1인 3편 이상 ▷산문은 소설 동화 1인 1편 ▷수필은 1인 2편 이상 응모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작품은 pusanmh@hanmail.net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9월 중순이며 당선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다. (051)898-2672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혜공.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만덕 약수사)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새로운 독법으로 읽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부식과 일연은 왜
정출헌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1만3천원

두 개의 고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둘을 놓고 당대의 시대적 요구와 둘의 저자인 김부식과 일연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책이다.

삼국시대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창(窓),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현전하는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가 〈삼국사기〉이고, 우리 고대사를 가장 흥미롭게 담고 있는 최고(最高)가 삼국유사다. 하지만 그 둘이 그려낸 삼국의 역사는 딴판이다. 같은 삼국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삼국을 기술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우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 두 고전을 대립적인 차원에서 비교해 왔다. "〈삼국사기〉가 사대적인 반면 〈삼국유사〉는 자주적이다." "〈삼국사기〉가 귀족적인 데 반해 〈삼국유사〉는 서민적이다." "〈삼국사기〉는 유교적이고 〈삼국유사〉는 불교적이다." 책은 이 외에도 둘의 대비되는 측면들과 그 이유들을 좇고 있다. 이처럼 두 고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다를 수밖에 없는 편찬자의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는 고려 중기에, 하나는 고려 후기에, 하나는 유학자 김부식이, 하나는 승려 일연이. 삼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러나 참으로 상이한 두 개의 창을 비교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같은 삼국시대를 두고 김부식은 왜, 일연 스님은 왜 서로 다르게 서술했을까. 책은 고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실제로 역사서를 읽는 까닭은 절대불변의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변치 않는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면, 역사서가 왜 시대마다 새롭게 쓰이겠는가? 오히려 역사서를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까닭을 깊이 음미해보는 과정 자체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김부식과 일연, 그리고 그들이 편찬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음미하는 긴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며 고전을 읽는 새로운 독법을 제시한다.

책은 1부 '역사를 보는 두 개의 시선'에서 '근엄한 유학자 김부식의 시선'과 '탈속의 승려 일연의 시선'으로 두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2부 '진실을 엿보는 일곱 개의 창'에서는 일곱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선별하여 두 기록을 함께 읽으면서 김부식과 일연의 시각차를 살펴본다.

일례로 우리 역사상 충신의 계보에 시원에 자리하고 있는 박제상에 대한 기록을 보면 김부식과 일연 스님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와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내물왕의 두 아우를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유학자가 쓴 〈삼국사기〉 스님이 쓴 〈삼국유사〉
같은 시대를 다르게 쓴 두 고전 비교

나섰던 제상이 왕의 두 아우를 구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끝내 일본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말이다. 김부식은 두 아우를 찾은 왕의 흥겨운 잔치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인을 지아비의 죽음을 지며보면서도 말 한 마디 남기지 못하는 애절한 여인으로 그렸다. 반면 일연 스님은 제상이 혹독한 고문을 겪으며 흘린 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지아비를 기다리던 부인은 신모(神母)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피날레를 묘사했다. 김부식은 제상을 충신의 전형으로 보고, 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제상의 처를 무언의 배역으로 묘사함으로써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다. 반면 일연 스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려는 발상에서 제상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신이한 행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책은 두 고전이, 두 편찬자가 범한 오류를 지적한다. 자신의 신념에 맞게 서술하다보니 누락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책은 이와 같은 오류를 김부식과 일연 스님 모두 목적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유화, 소서노, 알영, 허황옥, 여자의 몸으로 지존의 자리에 오른 신라의 여왕들,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에 의해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설시녀와 호녀,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거나 자신의 몸으 팔아야 했던 손순과 김유신의 처, 효녀 지은 등의 이야기를 통해 김부식과 일연 스님이 덧칠한 삼국의 모습을 살핀다. 저자는 책에서 역사의 기술은 편찬자의 시각, 즉 편찬자의 붓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김부식과 일연은 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삼국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두 고전을 통해 다양한 역사의 시선과 그 시선이 남긴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8/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8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9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예담
10	백장록 강설	원오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사랑과 화해로 고뇌한 이청준 전집 시리즈 중 3권

꽃과 소리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 1만원



2008년 7월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이청준 전집〉 시리즈 가운데 3권 〈꽃과 소리〉다. '변사와 연극', '이상한 나팔수', '소매치기올시다', '꽃과 뱀', '꽃과 소리', '가수(假睡)', '마스코트' 7편의 중단편을 묶었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눈길〉 등 우리 시대의 한과 아픔을 사랑과 화해로 승화하려 한평생 고뇌한 작가 이청준. 그는 소설가로서 투철한 작가의식, 지성인으로서 인격, 생활인으로서의 겸손함, 남을 위한 배려 정신과 자신에 대한 엄격성 등 삶의 여러 본보기들을 소리 없이 실천하며 우리 곁에 머물다 간, 한국 소설 문학사의 큰 표정이다. 이번 〈꽃과 소리〉에 실린 7편의 중단편은 1960년대 초기 이청준 소설의 문제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 있는 작품들로, 이번 작품집 해설을 맡은 문학평론가 김영찬(계명대 국문과) 씨는 "이청준의 소설은 대부분 증상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구조를 띠며, 바로 그 의심과 호기심이야말로 이청준의 소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고 평했다.

#변사와 연극 – 〈여원〉 1969년 3월호

〈병신과 머저리〉처럼 격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화자인 사내가 자서전을 연극대본으로 삼고 변사의 역할을 자임하며 무대에 연극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기 한과 아픔을 치유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한 나팔수 – 〈여성동아〉 1969년 4월호

부대에 새로 온 나팔수가 부대 막사가 아닌 남쪽을 향해 취침나팔을 불어댄다. 그는 입대 전 서커스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사내다. 영문 모를 나팔 소리의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다만 해산을 앞둔 그의 여자를 향한 것이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소매치기올시다 – 〈사상계〉 1969년 5 · 6월호

3부작을 이루는 단편으로, 보이지 않는 청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독백체의 소설이다

#꽃과 뱀 – 〈월간중앙〉1969년 6월호

진자와 가짜, 진실과 거짓의 대립 구도는 이청준 소설의 주요한 모티프로 변주되며 주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꽃과 소리 〈세대〉 – 1969년 7월호

〈꽃과 뱀〉의 주요 인물이 겹치듯 등장한다. 이청준의 초등학교 시절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가수 〈월간문학 1969년 8월호

〈줄광대〉, 〈병신과 머저리〉, 〈꽃과 소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격자소설로, 분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 〈한국전쟁문학전집〉 –1969년 10월

소설 소재를 취하고 해석하는 복잡한 구성에 대한 일화인 이 단편은 '전쟁과 여인'이란 작품으로 개고된다.

이청준은 지난 세기의 근대적 문학정신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표하는 작가다. 21세기에 이청준을 다시 읽는 까닭은 멀리 있지 않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학정신의 창조는 지난 세기와의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 속에서만 가능하다. 가고 없는 그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청준의 1960년대 작품 7편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성냄과 탐욕도 쌓아두지 말고 알아차리면 사라져

사띠 진명스님의 알아차림

진명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3천5백원



"물속에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고 하소연한다. 자신이 물속에 있음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물을 찾으려 아무리 노력한들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중생들은 무명의 삶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래야만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선처에 태어난다"

여수 대마산 사띠 마을 수행 공동체 원장 진명 스님은 우리네 삶을 이렇게 표현한다. 스님은 찰나의 마음 알아차림을 통해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한다. 사띠 진명스님의 〈알아차림〉은 자신의 수행 경험과 불교적 사유를 담았다.

오랜 시간 대중들의 명상을 지도해온 스님은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이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과 같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 현재도 흘러가버리는 물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알아차릴 때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된다. 그래서 사띠 수행은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질 때만 현재라는 순간이 이어진다"

물론 이 책은 명상 전문 서적은 아니다. 스님의 생각과 사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함께 담아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전해주고자 한다. 부처님은 권력자나 비천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명 스님은 이에 대해 성냄과 탐욕의 일어남을 알아차려야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냄과 탐욕을 억눌러 쌓아두지 말고 단지 이를 '알아차림' 하면 된다. 알아차리면 성냄과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으면 성냄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한다"

스님은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지켜봐 왔다. 그래서 이 시대의 500만 우울증 환자들을 그리고 15만 명의 대학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퇴직자들을 위한 실버타운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위한 수련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한다.

또 이런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명상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교의 명상법이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불교의 앞날은 희망이 없고 고통 속서 빠질 것이다" 스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불교가 아니라 사회의 중심이 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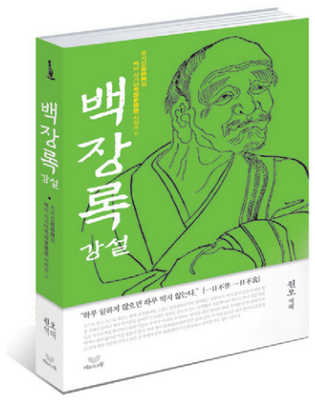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의
법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신국판 | 흑백 | 528쪽
2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선교회통(禪敎會通) 이룬 유일한 선어록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으로 언하대오를!

그동안 혜능, 마조, 임제,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원오스님은 당신의 공부와 깨침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특히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無爲法)를 독자적으로 드러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40여년 산사 생활 34개 주제로 정리



산사는 깊다

지안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5천원

전국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가 다양해지면서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이는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또 다른 번뇌를 씻기 위해 찾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사일까? 스님들이 수행하는 절집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윤활유를 제공하며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산속 스님들의 생활에 담겨 있다.

하지만 산사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녹록지 않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원리로 채워져 있어서다. 그래서 누군가 그 뜻을 우리 일상 언어로 설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짚어 주기 전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는 지안 스님의 책은 이런 점에서 유익할 것 같다.

산사의 생활 문화에 관해 짚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40여 년 절집 생활에 대해 반조를 거듭해 정리한 키워드 34가지 이야기에 산사 생활의 정수를 담았다. 기침에서 취침으로 이어지는 산사의 하루와, 출가부터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출가에 대한 설명에는 자신의 출가시 지녔던 마음과 목격담을 통해 출가의 의미를 들려준다.

용맹정진을 말할 때는 은사 스님이 금강산서 목숨 걸고 정진에 임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전해준다. 그래서 이 책을 접하고 나면 왜 절집 하루가 그렇게 짜여 있고 스님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고개가 끄덕여 진다.

마치 산사서 하루를, 또 스님으로 한평생을 사는 듯 말이다. 산사는 수행을 위해 특별히

산사의 하루, 출가서 다비까지 소개
경험서 우러나오는 설명 이해 도와
직접 체험하는 듯 생생한 사진 61컷



산사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녹록지 않다. 사진은 해인사 강원의 새벽 간경 모습.
사진제공=불광출판사

마련된 곳이다.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일과를 모두 수행이라 보면 된다.

예불이나 기도, 경전 공부와 참선은 물론이고, 공양 할 때도 음식이 수행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어느 암자 대들보에서는 "밤에 꿈 꾸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쓰여 있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잠 잘 때조차 수행을 멈추지 말라는 이 글에서 수행에 임하는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산사에는 '대중이 소를 잡자면 소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한 사람 뜻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 여러 사람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사에는 언제나 대중의 뜻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대중공사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육식을 금하는 우리 산사에서 대중의 뜻이라면 소라도 잡아야 한다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90일씩 1년에 두 번 일정한 처소에 모여 출입을 자제하고 정진에 몰두한다. 이를 '안거'라 하며 일반적으로는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만큼 중요한 안거의 의미가 "그 기간 동안 인간의 그릇된 업행이 멈춰지는 데 있다."고 본다. 안거 기간 동안 몸과 말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절제돼 인간성이 순화된다는 뜻이다.

산사 생활 핵심을 순도 높게 보여주는 안거는 우리가 왜 산사에 끌리는지를 보여준다.

누구든 일단 산사에 들어오면 바깥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수행을 위해 마련된 계율로 돌아가는 산사에선 바깥세상에서 하던 행동 습관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계율에 따라 몸과 말과 마음이 자연스레 절제되고, 그렇게 욕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잊고 있던 순수한 자신을 만난다.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데는 고요한 산사 전각 기둥에 기대서 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풍경 소리를 들으며 처마 끝에 걸린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새벽 산등성이로 피어오르는 안개,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단아한 석탑, 법당에 모신 부처님과 산사를 수놓은 연등의 물결 등을 포착한 61컷의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다. 그 울림이 깊어, 사진을 보는 순간 사진 속 멈춤의 시간 속으로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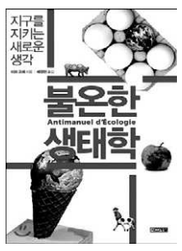
절집을 찾는 이들이 점차 느는 요즘, 3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산사서 하루를 보내듯 절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류를 살리는 생태학 개론서

불온한 생태학

이브코세 지음 | 배영란 옮김 | 사계절 펴냄
1만8800원



이 책서 제시하는 탈성장은 인류 멸종이라는 최악의 환경 재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이자 단 하나의 종착지다.

탈성장은 기본적으로 현대 물질문명을 버리고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기존의 산업사회를 탈성장의 검소한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해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생산 관계 구조를 재편하며, 토지의 재분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탈성장 사회의 미래는 성장제일주의에 물든 지금의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된 탈성장 사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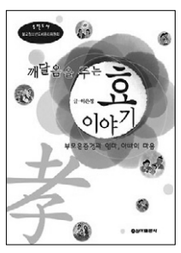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저자는 세계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얼마나 허울상의 대책만 논의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복잡한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정책들을 제안한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들이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운동가이자 정책가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눈높이 맞춘 효이야기

깨달음을 주는 효이야기

이은정 지음 | 신아출판사 펴냄 | 9천원



효행(孝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이 땅에 존재해 온 인륜의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강조했다.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할 정도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을 갖는 것은 기본 도리로 여겼다.

〈깨달음을 주는 효 이야기〉는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주옥같은 이야기이다. 한 자 한 자 마음에 새기듯 읽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책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자식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 않는 하늘같은 은혜의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깨우쳐 주기 위한 생활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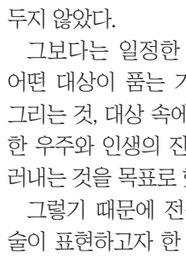
특히 이 책은 〈부모은중경〉과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읽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엄마, 아빠의 마음 글도 중간 중간 삽입돼 있어 읽으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의 내용과 부모님 사랑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좋은 자녀 교육서이다.

김주일 기자

'경생상외'에 담긴 동양미학 정수

한 권으로 읽는 동양미학

한린더 지음 | 이찬훈 번역 | 이학사 펴냄
2만8천원



미란 무엇인가? 미적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미학 사상은 세계관과 인생관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권만큼이나 많다. 이 책에서는 중국 미학을 중심으로 동양 미학의 세계관을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서양 미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동양 미학 특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전하고 있다.

'깊은 뜻은 형상 너머에 있다'라는 이 책 부제는 저자가 원제목으로 삼았던 '경생상외(境生象外)'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옮긴 것이다.

'경생상외'는 당나라 유우석이 한 말인데,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의경(意境)은 상 밖에서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양 전통 예술에서는 예술작품의 목적을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 대상이나 세계의 미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데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일정한 형상을 매개로 어떤 대상이 품는 기운이나 정신을 그리는 것, 대상 속에서 작가가 파악한 우주와 인생의 진리와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양 예술이 표현하고자 한 깊은 뜻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에 있지 않고 그것을 멀리 넘어선 곳에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동양 예술의 성패는 작가가 형상을 넘어 깊은 뜻을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했으며, 감상자가 그 뜻을 얼마나 잘 읽어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경생상외'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동양 미학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그와 연관된 동양 미학의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중국 미학에 관한 중국 저서가 여러 권 번역돼 나왔다.

모두 중국 미학 전문가들의 저작으로서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중국 미학자 중 한 사람인 한린더(韓林德)의 이 책은 중국 미학을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중국 미학의 범주와 개념 그리고 특징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책은 중국 미학의 이런 특징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중국의 철학 사상이나 인생관 및 세계관을 상세히 분석해 준다. 나아가 이 책은 중국 미학의 여러 갈래 중 가장 대표적인 '유가'와 '도가' 그리고 '선불교'의 미학을 서로 비교해 그것들이 각기 갖는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중국 미학이 어떤 정신적 배경 아래서 형성돼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것들을 공유하면서도 그 내부서 어떤 분파를 형성하는지를 대단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중국 미학

동양 미학 세계관 체계적 정리
중국 미학 범주와 개념 재정립
중국 불교 선종의 미학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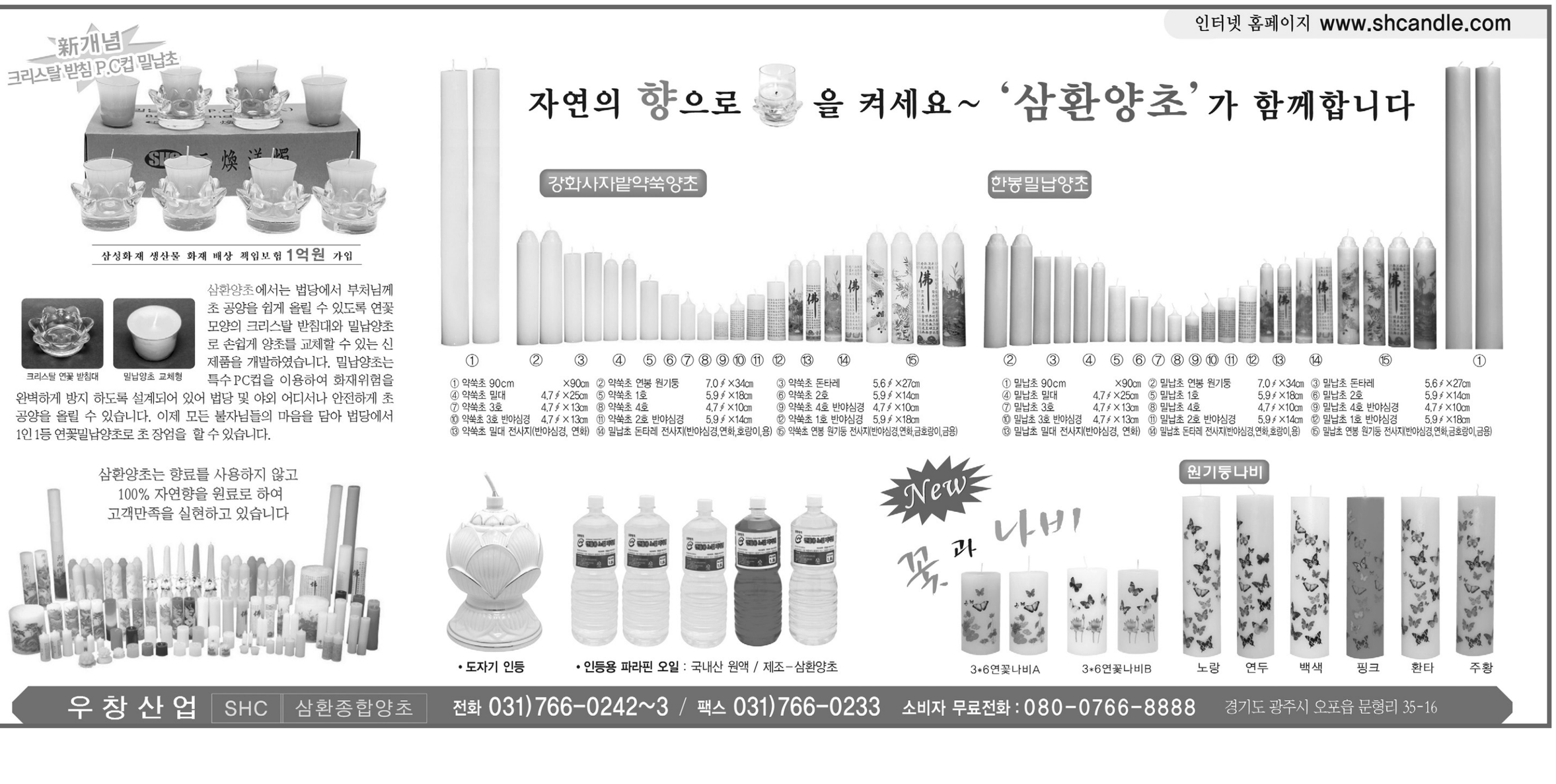
의 전모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분야는 실로 방대하다. 이 책에서는 그림, 글씨, 음악, 무용, 악무, 희곡, 연극, 경극 등 무한한 동양 예술 세계 속에 담긴 사상과 세계관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많은 실례와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동양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덕목이다. 이 책에 담긴 방대한 예술작품 목록과 인용문들은 동양 예술과 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4장은 중국 미학의 3대 유파라 할 수 있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불교(선종)'의 미학을 다루고 있다. 큰 틀에서는 중국 미학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각론에서는 각자 특색도 갖고 있는 3대 유파의 미학 사상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은 3대 유파 각각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이 각 유파의 미학 사상을 탐구해나갈 때 길라잡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태현이 삼류경설을 제시한 까닭은 ?

삼성·삼계의 분별 해명위한 담론

〈선·악·무기〉

1. 해동 유가업의 비조

원효와 경흥과 태현은 신라의 삼대 저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 태현(太賢, 680?~764?)은 유가(瑜伽) 유식(唯識)과 계율(戒律)의 대학자로서 한중일 삼국의 석학으로 존경을 받아 왔다. 고려의 일연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봉(道峰)과 일본의 명조(明照)까지도 그에 대한 전기를 짓거나 자신의 저술에서 그를 기리고 있다. 『삼국유사』「의해」편의 '현유가 해화엄' (賢瑜伽 海華嚴) 조목에는 신라 경덕왕대의 유가계 대덕 태현과 화엄계 대덕 법해(法海)의 법력 게임 설화가 실려 있다. "경덕왕은 계사년(753) 여름에 크게 가뭄이 들자 태현을 대궐로 불러 『금광(명)경』을 강론하게 하여 단비를 빌도록 하였다. 하루는 재식을 올리려고 바리때를 열어놓은 지 오래도록 공양하는 이가 정한수를 늦게 올렸다. 관리가 꾸짖자, 공양 올리는 이가 말하였다. '궁의 샘에 물이 말라 먼 곳에서 길어오느라 늦었습니다.' 태현이 듣고서 말하였다.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이윽고 태현이 낮 강론을 할 때 향로를 받들고 묵연히 있으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 높이가 일곱 길쯤 솟아올라 절의 당간(幢竿)과 같을 정도였다. 궁중 사람들이 모두 놀라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 하였다. 태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 일컬었다."

일연은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대덕 태현은 유가업의 비조이며 남산의 용장사에 머물렀다. 그 절 안에 1장 6척의 미륵석불이 있었다. 태현은 항상 그 주위를 돌기 좋아하였고, 그때마다 불상도 또한 태현이 도는 대로 따라 얼굴을 돌렸다. 태현은 지혜와 변재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무슨 일이든 결택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였다. 대개 상종(相宗)의 담론[詮]과 인식수단[量]은 그 뜻이 매우 깊어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이름 높은 선비 백거이(白居易)도 이것을 연구하다 말고는 말하기를, "유식(唯識)은 그윽해서 깨닫기가 어렵고, 인명(因明)은 분석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배우기가 어렵게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태현은 유독 그 잘못된 점을 판정하고 깊은 뜻을 열어 보임이 마치 능한 백정이 여유 있고 능숙한 솜씨로 소를 잡아 기르는 것과 같았다. 동국의 후진들이 모두 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화의 학자들도 자주 그의 글을 얻어 안목으로 삼았다.

유가유식과 계율의 대학자
한중일 삼국서 석학으로 존경
화엄가로 출발해 유식가로 전향

중국의 도봉은 「태현법사의기서」(太賢法師義記序)에서 태현을 드높이 기리고 있다. "그윽한 풍모는 맑고 크며 도의 기품은 높고 웅장했다. 뛰어난 풍채와 드넓은 도량으로 스무 살을 지나서는 출가하였고, 서른 살이 되어서는 교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취를 감추고 만남을 멀리해서 마침내는 행동을 숨기고 덕망을 감추었다. 불도를 펼침의 번쇄함을 탄식하고 불법의 체계가 무너짐을 한탄하여 안으로 『유가찬요』3권을 찬술하고, 『유식결택』 1권, 『보살계종요』 1권 및 『본모송』 1백송을 지음으로써 후세에 전하였다. 말은 우아하고 뜻은 깊었으며 글월은 간략하고 의미는 풍부하였다. 글이 뿜어내는 지혜의 빛은 더욱 환해졌고, 빛이 뻗어내는 깨침의 산은 더욱 눈부셨다. 바라건대, 갈림길에서 헤매게 되면 곧바로 가르쳐 인도하는[南指] 수레를 살피고, 그 모양과 얼굴을 탐하게 되면 우러러 서쪽 나라[西秦]의 거울을 볼지언저."

일본의 명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원측법사의 문하였던 도증의 제자가 지금의 태현이다. 지금 법사는 처음에는 화엄을 익히다가 나중에 법상에 들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거닐며 생각했고 항시 거문고를 탔다. 밖으로는 덕행을 숨기고, 안으로는 광명을 품어 『보살계본종요』(에 실린 도봉이 쓴) 「서」에서 이르기를 '행동[用]을 숨기고 덕망[光]을 감췄기 때문에 태현(太賢)이라고 하니, 이는 매우 어질다는 뜻을 말함이다' 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현을 기리는 한중일 전기류들은 한결같이 '행동을 숨기고 덕망을 감춘' [潛用韜光] 그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2. 자은 유식의 비판적 수용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 철학으로 불리는 불교 유식학의 주요 담론은 '유식의 반학' (半學)이라고 하는 사분설(四分說)과 삼류경설(三類境說)로 대별된다. 인식 대상의 성질을 분류하는 삼류경과 달리 사분설은 인식주관의 작용을 분류하는 설이다. 흔히 '안난진호(安難陳護) 일이삼사' (一二三四)란 관형구로 널리 알려진 사분설은 우리의 의식 작용을 네 단계로 나눈 심분설이다. 호법(護法, 531~561)이 널리 주장해 왔다. 사분은 우리의 의식 작용을 우리 마음에 던져진 객관 사물의 그림자인 상분(相分), 마음이 일어날 때에 상분에 변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는 작용인 견분(見分), 인식 주관인 견분의 활동을 점검하는 의식작용인 자증분(自證分), 다시 자증분의 활동을 점검하는 의식 작용인 증자증분(證自證分)의 네 부분이다. 태현은 호법의 설을 계승한 규기(窺基, 632~682)의 설을 따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태현은 사분설에서 견분과 상분의 종자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규기의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설' [或同或異說]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밝히고 있다. 그는 "같은 종자[同種]일 경우에는 한 식의 몸체가 상분과 견분 2분으로 전사(轉似)해서 생기하지만 한 마리의 달팽이[蝸牛]에서 돋아난 두 뿔과 같다"고 하였다. 또 태현은 "다른 종자[別種]일 경우에는 몸체가 견분으로 전사하고 상분의 종자로도 전사하며 또한 상분과 유사하게 생기하고, 저것과는 유사해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상분은 마음의 분별로 말미암아 생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종이지만 때로는 별종이다"는 호법의 설을 정의로 받아들였다. 다시 그는 우리의 인식대상을 그 성질상으로 보아 성경(性境)과 독영경(獨影境)과 대질경(帶質境)의 셋으로 나눈 삼류경설에 대해 독자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장(玄藏, 602~664)이 스승 계현(戒賢)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혹은 그의 창안으로 알려진 삼류경설은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추요』와 그 제자인 혜소의 『성유식론요의등』에만 게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게송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마음을 따르지 않고[性境不隨心]/ 독영경은 오직 견분만을 따른다[獨影唯從見]/ 대질경은 심정과 본질에 통하니[帶質通情本]/ 성과 종 등은 따라야 한다[性種等隨應]." 이 게송에 근거하여 태현은 규기와 변별되는 삼류경설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대상으로서의 실재성[本質]을 갖춘 성경은 주관과 다른 종자에서 생겨 주관의 성질의 선악에 좌우되지 않고 존재 영역[界繫]을 달리하여 다섯 감각기관에 비치어 오는 것을 다섯 의식이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는 객관세계(제8식의 상분)이다. 반면 대상은 대상이지만 그 실재성을 소유하지 못한 것[幻覺]인 독영경은 별도의 객관적 존재가 없이 주관이 단독으로 드러낸 환영처럼 눈병 난 사람의 앞에 보이는 토끼뿔 혹은 거북털(제6식의 對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대질경은 삼줄을 뱀으로 잘못하는 것과 같이 본질은 있으나 그대로 영사(影寫)되지 않은 경계이다. 즉 제7식이 제8식의 견분을 연취(緣取)하여 실아(實我)라는 집착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며 제6식이 과거를 미루어 생각함과 같은 것이다. 이 담론은 사분설에서 제기된 견분과 상분의 동일성과 차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이론이다. 즉 종자의 동일성과 차이성의 논증에 잇따르는 견분과 상분의 삼성[善, 惡, 無記]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또는 삼계의 존재 영역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제기된 담론이다.

이를테면 "성인의 인식이 초선(初禪)에서 행해졌을 때에 삼식(三識)이 더 높은 세계[上界]의 색을 그 인식대상으로 취하며, 그것은 초선의 경우도 이선(二禪) 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재영역[界繫]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규기의 해석과 달리 태현은 "초선계(初禪繫)의 식인 차기식(借起識)을 빌려 오지 않으면 아니되니, 다른 법으로서 본질을 삼지 않는다면 저 견분은 어디에서도 본질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더 높은 세계에 태어나도 아래의 세계[下界]를 인연하는 것도 역시 성경이 능연심(能緣心)을 따르지 않고 독립자존하여 그 존재영역을 달리한다는 계불수심(繫不隨心)의 원칙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능훈(能熏)은 제칠식의 상분이고 소훈(所熏)은 본질인 제팔식의 견분의 종자로서 무부무기(無覆無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규기의 견해와 달리 태현은 " '오직 질분(質分)으로부터 종자를 훈습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그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唯從質分熏種非餘] 본질인 제팔식의 견분이 제칠식의 상분의 종자를 훈습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제칠식이 제팔식을 훈습한다는 종래의 통설을 뒤집는 것이며 태현의 독자적인 해석의 지평이다.

유식으로 다른 교학 통합 이끌어
원효 · 법장과 다른 독창적 해석
지혜는 바깥경계의 반영산물

3. 『기신론』과 화엄학의 유식적 통합

신라의 불교사상가들은 불설의 핵심인 중도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요교학을 지랫대로 삼아 다른 교학을 통합하였다. 대표적인 저술가들이었던 원효와 경흥과 태현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태현은 화엄가로 출발하여 유식가로 전향하였지만 그의 52종 저술에는 불교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태현은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와 『대승기신론소』,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와 『화엄오교장』 및 『화엄강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혹은 요약 정리하면서 편집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와 법장 학설의 대표적 차이인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 (四相)과 「생멸인연의」(生滅因緣義) 속의 '오의' (五意)의 팔식 배대에서 독자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각(始覺)에서의 '사상' 에 대해서는 원효와 법장의 견해를 자신의 평가 없이 원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반면 태현은 심식설 이해와 관련하여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 6장의 '생멸인연의' 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태현의 해석 중 주목되는 것은 본식(本識)을 다시 진식과 업식과 전식과 현식의 넷으로 나눔으로써 오의를 6종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원효와 법장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태현은 오의를 크게 본식위(업/전/현식)와 사식세분위(지/상속식)의 둘로 나눈다. 그런 뒤에 본식을 다시 네 식(진/업/전/현/으로 나눈다. 앞의 네 식은 별칭이 두 개씩이지만 뒤의 두 색은 별칭이 하나씩이다. "이 여섯 가지 뜻 가운데 처음의 하나는 소의(所依)이고 뒤의 다섯은 능의(能依)이며 또한 차례로 능의와 소의가 된다. 그리고 처음의 하나는 변하지 않는 뜻[不變義]이고 뒤의 다섯은 변하는 뜻[隨緣義]이다. 또 처음의 둘은 아리야식의 자체분이고 다음의 둘은 아리야식의 견분과 상분의 이분이며, 마지막 둘은 사식(事識)과 세분(細分)의 견분과 상분의 이분이다. 사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첫째는 사식을 곧 육식으로 보는 것이니 지(知)라고 『능가경』에서 바깥 경계를 들어 설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식을) 곧 칠전식으로 보는 것이니 제7전식 또한 혜수(慧數, 제7식의 심리작용)와 상응하여 바깥 경계를 반연하기 때문에 (知)라고 한 것이다." 태현은 여섯 가지 뜻 중 처음의 하나는 '소의' 이자 '불변의' (不變義)이지만 뒤의 나머지 오식은 '능의' 이자 '수연의' (隨緣義)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원효와 법장에게서 볼 수 없는 태현의 독자적 관점이다.



용장사터 삼륜대좌불. 한국에 하나뿐인 삼륜대타불로 〈삼국유사〉에 근거 미륵불로 추정되고 있다. 태현 스님이 용장사 미륵불을 돌면 미륵불도 함께 얼굴을 돌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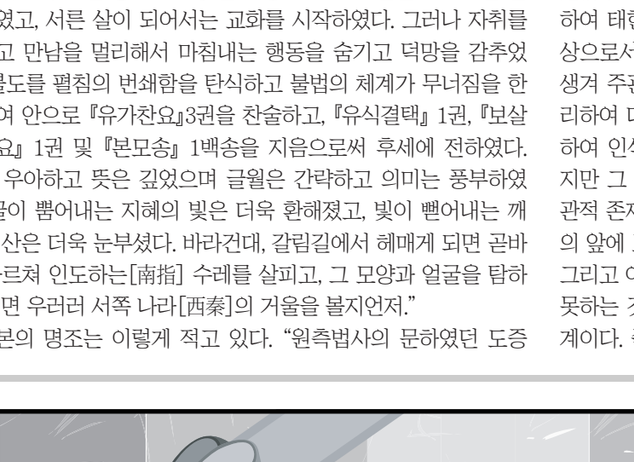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방인, 「태현 유식사상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한국사상연구회,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예문서원, 2002).
고영섭, 『한국불학사』(연기사, 2005).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능력 개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설치될 법당에서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가능합니다.
도시형 100만원 전후
전통목조사찰 200만원대
특허등록업체 한성음향
010-4440-8687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불교 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수강생 모집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관상,손금
▶개강일: 2012년 9월 6일 저녁 7시
▶행장실: 200-8452
▶나이관계없음 010-4014-8822
▶개인지도철학원,스님특별지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신심있는 女 사무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 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심 와 기 도
• 삼생에서 지은 죄와 빚을 아우러서 지우는 영통기도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천시)
010-2828-0664

사찰 종무소 사무장, 보살님 모십니다
051)721-0449
010-3579-6444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모 집
예비 승려를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6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60세이하, 숙식가능한 보살님 (부부도 가능함) 급여 상담 후 결정
(용인시 수지구)
031)262-0606 / 010-8930-157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수강생 모집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평생교육원
▶관상,손금
▶개강일:2012년 9월 4일 저녁 7시
▶행장실:650-9552
▶나이관계없음 010-4014-8822
▶개인지도철학원,스님특별지도

예불(염불) 강의
종성,상단예불,저녁예불,천수목탁 (각종목탁),요령,천수북 강의 (스님 직접 강의)
초발심스님,법사님,보살님 환영
051)721-6444
010-7400-9972

비룡이 승천한 천년고찰 비룡사
모든 1대부터 7대까지 중복에 걸린 조상령을 중복을 풀어 특수천도제. 여러곳 천도제도 효험 못 보신 분 비룡사에서 단 1회 천도로 완전해결됩니다. 전화 영가 이름주시면 바로 다음날 천도효과 봅니다.
비룡사 주지 석천강 합장
061)337-33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사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한민족 토착 신학생 모집
고졸이상 남 녀 동등자격자
여권사진4장 주민등본1통 자세한이력서
토착신학과 한학구국운동과
입학원서20만원 월교재비5만원 숙식별도
원서접수는 우편접수 우편환등봉 개별면담 후 통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한학선원
한학자연 종교 연합대학
041)544-4441

배우자 구함 (男 56세)
공인중개사 운영
도심 속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찾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여성 인연바람
011-717-531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특 강 안 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6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부지 : 500평
- 가액 : 2억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대금 : 3억 5천만원

부산 광안대교 전망 좋은 절

- 총부지 : 550평(주거지역) (총건평260평)
- 법당 150평, 요사 150평
- 주차장 200평, 사찰 뒤편 산세 좋음
- 총 금액 : 13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 단독 2층 중 1층 전부 50평
- 모든시설완비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700만원(절충가능)

010-7382-030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천강리
- 50평, 단독주택
- 법당, 방3, 화장실 3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협의

010-9320-54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차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 부지: 650평, 법당 30평
- 요사 50평
- 차량진입
- 산과 호수가 있는곳
- 가액: 7억 7천만원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먀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주인직접

암 자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도로변 위치
- 대지 120평, 건물 20평
- 황토 벽돌, 한옥, 임법당
-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
- 즉시 입주 가능• 전세 6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조용히 수행하실 분

010-6579-2303
010-2787-414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 평수: 104평, 건물 법당 25평
- 산신각, 단청 필
- 포대화상, 석탑, 사자1쌍, 요사채 2동, 주차장 넓음
- 가액: 3억 2천만원

019-550-9725

강남포교원안내

- 위치: 논현역 1번출구 1분거리
- 2층 35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5만원
- 관리비 5만원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780-3580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홍천읍에서 5분거리
- 425평, 건물 45평
- 토굴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500만원

010-8983-525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성군 동봉면
- 대지: 1500평
- 요사채 20평 법당 15평
- 건물2007년 조립식건물
- 가액:평당 15만원 시설비: 7,000만원
- 가액 2억3천만원

010-2603-6967

사 찰 안 내

- 지리산자락 35년역사, 아름다운곳
- 부지: 약 2,000평
- 계곡내 마르지않는 석간수
- 법당25평,수선당18평,
- 산신각6평, 독성각 2평,요사채60평
- 시설: 심야전기보일러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싫은 너무나 포근한곳)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코자함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010-4708-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7500만원

010-4536-81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조정가능)

010-4781-86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끝자락
- 전, 임야 총 670평
- 가액: 2500만원
- 청정지역, 물 좋고 산세좋음. 1급수
- 양쪽산이 감싸고 있어 공부하신 분께토굴터로 적합

011-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50평, 방2, 법당, 공양간, 최고시설
- 화장실2, 창고1,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800만원 (사정상 급 양도)

010-4708-4557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 국가지정 문화재 거대 마애불(보물)
- 시내중심 최상의 불사조건
- 영험한 마애불상 주변 평지 같은 임야 8500평 중 잡종지로 전환 가능한 땅1000평
- 가액 : 20억

010-5012-22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 3층의 3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380만원

010-3884-250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은암리 청석굴 관광지
- 대지220평, 요사채 산신60평, 법당25평
- 총 1,142평
- 가액 : 3억 5천만원

010-8862-8092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사상역 부근
- 건물평수 : 56평
- 아미타불,관음,대세지,지장 6불, 신중,산신,칠성,복성
- 법당,친견실,공양실,스님거처
- 보증금 1천8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4640-4747

대 형 포 교 원

- 뚝섬역 3분거리 서울숲공원입구
- 5층빌딩 5층: 157.9평
- 최고급시설, 법당 전체 보일러, 강화마루
- 큰방1개, 기도방 8개, 화장실2,샤워실1, 주방완벽, 단독사용 옥상(법당뒤)
- 토,일 건물완전 빔
- 서울숲공원 3분, 대형공영주차장 1분
- 포교당 3년 만에 대형수련원 불사 이룬 복도량

010-3487-0035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남전통사지
- 부지 : 총 1100평
- 법당 : 25평(목조기와집)
- 요사 : 30평(문화재보유)
- 가액 : 13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도심암자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0미터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 (스님 직접)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내 • 총평수 : 1천평, 대지 300평
- 자연석 바위로 기초하여 법당, 신중단, 영가단을 법당 내에 설치하고 법당 내벽은 푸른대나무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더했고, 옆면, 뒷면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있다.
- 절마당에 작은 연못, 앞은 계곡의 물이 사계절 흐르고 사찰로 진입하는 단독 길은 산밑의 도로와 일반국도에서 50M 걸어오면 계천을 걷는 원형다리. 밑에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놀고있는 천해의 경관이다.
- 법당, 주지실, 산신각, 요사채. 건물 4동. 가액 : 3억 5천

055)224-3385 주지 합장

암 자 (토 굴) 안 내

- 위치 :경기 김포시 하성면
- 대지 100평(단독주택1층)
- 법당 25평, 2층 컨테이너 1동
- 모든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만사형통
- 가액: 1억 9천 5백만원(절충가)전세도 가능

010-9413-902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청양. 80년된 암자
- 행정수도에서 20분
- 큰바위에서 석수 흐름
- 국유지 사용평수 1000평(종교시설)
- 임대료 : 1년 15만원
- 가액 : 6천3백만원
- 법당15평, 요사채45평(리모델링 완료)

010-6680-05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 3층의 3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380만원

010-3884-2506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전 통 사 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 11억 예산

(서울 – 안양 – **의왕**)

010-3678-25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돈암동 미아리고개 버스정류소 3분
- 5층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있음
- 평수 67.04 ㎡(20평)
- 법당 삼존불1,스님방 주방 겸용 1
-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3천만, 월세 60만
- 시설비 1500만

010-9903-125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숫타니파타 –

여름방학 특집-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1〉 청소년 미디어중독,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 바다의 '잠수병' 정신장애 현상 심각


인터넷 게임에 열중인 학생들. 과도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에게 정서뿐만 아니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찰자 척도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2	평소와는 달리, 인터넷을 할 때만, 할 말을 다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3	인터넷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인터넷을 한다.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인터넷을 한다.				
6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7	인터넷 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을 한다.				
9	인터넷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10	인터넷 하는데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11	밤새워서 인터넷을 하지는 않는다.				
12	인터넷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혹은 잔다고 한다.)				
13	인터넷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				
15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다 : 3점, 매우 그렇다 : 4점 ※ 단 10번, 11번 문항은 역채점.
결과 35점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32~34점(잠재적 위험군), 31점 이하(일반 사용자군)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자가진단 척도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그렇지 않다 : 2점, 그렇다 : 3점, 매우 그렇다 : 4점 ※ 단 8번, 10번, 13번 문항은 역채점.
결과 45점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42~44점(잠재적 위험군), 41점 이하(일반 사용자군)

현대 사회는 정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서 부유(浮遊)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유하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IT기기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미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미디어에 무분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다. 특히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에 본지는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현황과 영향 그리고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방안을 여름방학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삶이 편리해진 만큼 그 이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 정도가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는 것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스마트폰중독 등 미디어에 지나치게 과몰입해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정신적 불안정이 가져온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다.

일명 '미디어중독'이라고 하는 정신적 장애현상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층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많은 병적 증상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증상 내지는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성인층으로 확대시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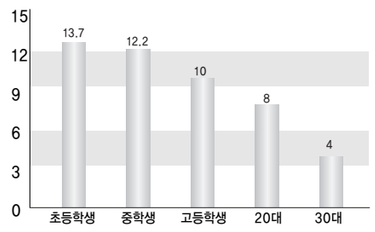
미디어중독의 정의를 보면, '인터넷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현실세계의 가정, 학교, 사회 등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생겨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게임기를 통한 게임이나 온라인 인터넷게임 에 몰두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임중독, SNS나 온라인 채팅에 무절제하게 시간을 보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채팅중독, 온라인 도박이나 주식에 빠져들어 재산을 탕진하는 도박중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미디어중독 증상을 도벽이나 병적 방화 등과 같은 충동조절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다.

미디어기기 과도한 사용은 도벽·방화같은 '충동장애' 중독 청소년 자살률 1.7배 높아 약물 중독 뇌구조 변화와 유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미디어중독은 주로 온라인게임이나 게임기에 의한 게임중독이나, 문자 주고받기나 SNS소통 온라인채팅 등에 의한 채팅중독 등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0~30%, 대학생의 10%가량이 학업 및 또래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하게 미디어(인터넷, 게임기, 스마트폰 등)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9세 어린이 인터넷 중독률은 7.9%로, 20~49세 성인(6.8%)보다 훨씬 높다. 10~19세 청소년 중독률은 10.4%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400만원인 맞벌이 중산층 가정에서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독된 수준의 청소년들이 이 정도고, 지나치게 게임을 한다거나 채팅을 하는 중독으로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30~40% 정도라고 본다. 청소년 미디어중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공유해야한다.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인터넷 중독은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감이나 삶의 어려움을 인터넷 사용 행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고, 인터넷에 몰두함으로써 우울한 감정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서 강박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며, 주의집중력 저하, 과잉행동성, 충동성이 주증상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충동조절의 어려움, 학업 능력의 저하, 학교의 높은 결석률,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심한 갈등이 인터넷 중독 아동 및 청소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소년 자살의 위험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것이 청소년 자살소식이다. 시험성적에 대한 부담, 학교폭력 등의 원인도 있지만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경우 충동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심한 외부자극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한 조사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군이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위험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미디어중독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최근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서 코카인 등 약물중독과 비슷한 구조 변화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도 '인터넷 중독 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 17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한 결과 중독자들은 감정처리, 주의집중, 의사결정, 인식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 '백질(white matter)' 신경섬유에 손상이 관찰됐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자들의 뇌 구조 변화는 알콜이나 코카인 등의 약물에 중독된 이들의 뇌 구조 변화와도 유사하다고 한다. 이런 뇌 구조의 변화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디어중독은 사회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미디어 중독이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 지난해 대구에서의 사건을 통해 이해해보자.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대구의 한 중학생은 가해자들에게 밤낮으로 그들의 아이디로 게임을 할 것을 강요당했다. 가해자들의 목적은 자신의 계정으로 등록된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고 아이템을 모으는 것이었다. 게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위 친구들을 괴롭힌 결과 해당 친구가 자살로 이에 대응하게 되었다.

미디어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증상을 넘어 학교폭력,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 가정과 사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캠프〉 관련 내용입니다. 글=이태호 기획이사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33)

미묘 스님의 전생

전생의 구업이 금생의 고통으로…

옛날 어느 나라에 포악한 왕이 살았다. 그는 매일 술 취한 코끼리를 마을에 풀어놔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그때 나라 안에 모든 여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불안감에 출가를 결심했다.

"우리도 언제 화를 입을지 모르니 차라리 출가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출가해 비구니가 됐다. 하지만 속세의 생활을 잊지 못해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생활하다간 어떤 법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미묘라는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다.

"집을 떠나 출가했으나 아직까지 마음이 세속에 갇혀 깨우치기가 힘듭니다."

"세속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얽매는 감옥과 같다. 앞으로 내 얘기를 들려 줄 테니 잘 듣거라."

미묘는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많은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 미묘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다. 시간이 흘러 둘째를 임신하게 된 미묘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흔쾌히 허락하고 그 길로 함께 길을 떠났다.

친정으로 향하던 미묘는 남편과 길에서 잠시 쉬던 중 진통을 느껴 둘째를 출산하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 남편을 물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미묘는 너무 슬퍼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친정으로 다시 향했다. 그런데 길 앞에 큰 강이 나타났다. 미묘는 우선 갓난아이를 안고 강을 건넌 뒤, 아이를 두고 다시 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강을 건넜다. 그때 큰 아이는 엄마를 보고 먼저 달려오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삽화 · 강병호

미묘는 다시 강을 건너 갓난아이가 있는 쪽으로 왔지만 그 사이 짐승이 먹어 버리고 말았다.

미묘는 망연자실했다. 간신히 친정에 도착한 미묘는 자신의 집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 걸 알았다. 그때 이웃사람이 미묘에게 말했다.

"얼마 전 집에 불이나 모든 식구가 죽고 말았네."

미묘는 또 절망했다. 하는 수 없이 친척집에 살게 된 미묘는 우연히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새 남편은 주정뱅이에 매일 같이 미묘를 때렸다. 미묘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길을 배회하던 미묘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그 남자가 미묘에게 말했다.

"그대의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이오?"

미묘는 그간의 사정을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 역시 얼마 전 부인과 사별해 홀로 지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큰 병을 얻어 갑자기 죽고 말았다. 미묘 스님이 다른 비구니 스님들에게 말했다.

"나는 출가해 현재 받는 고통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알았다."

"스님은 어떤 죄를 지어 그리 고통받고 사신 것입니까?"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자식이 없어 둘째 부인을 얻게 됐다. 둘째 부인은 얼마 후 임신해 딸을 낳았다.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첫째 부인은 생각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이 집안 재산을 모두 가질 것이다. 나는 재산이라도 지켜야겠다."

첫째 부인은 결국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매일 같이 아이 정수리를 바늘로 찔렀다. 결국 아이는 고통 속에 말라가다 열흘 뒤에 죽게 됐다.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을 알고 말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죽인 것이지요?"

하지만 첫째 부인은 발뺌했다.

"내가 너의 아이를 죽였다면 내 남편은 독사에 물리고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을 것이다. 또 내 부모 형제도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미묘 스님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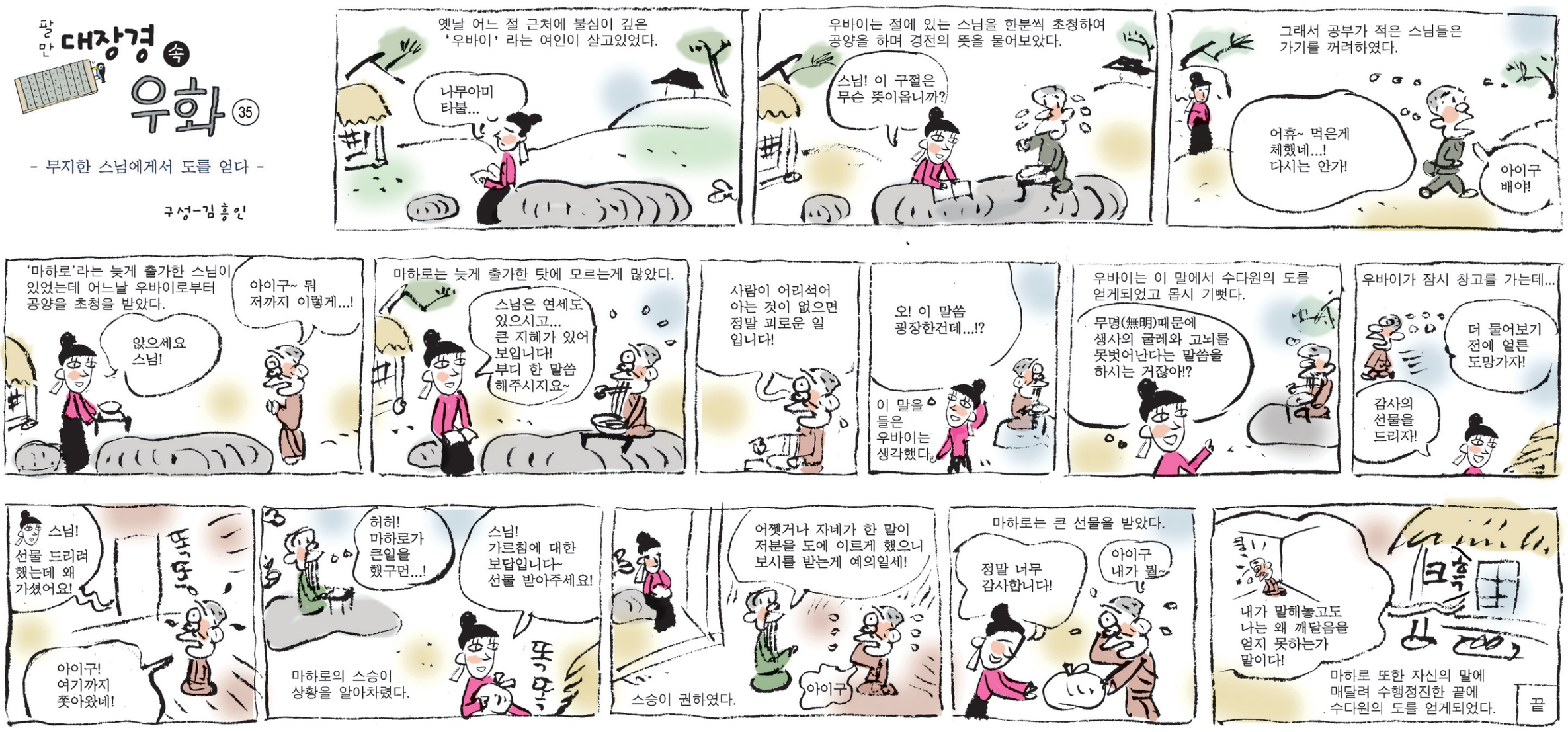
"그때 그 첫째 부인이 나이다. 하지만 훗날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현세에서 출가해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삿된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팔만대장경 속 우화 35

- 무지한 스님에게서 도를 얻다 -

구성-김흥인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염주굵기 25mm ₩65,000
B 타입 염주굵기 16mm ₩55,000
★마이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겸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NAVER 영일상사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佛器)
아주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중량 525g, 유효기간 10년
※본 제품은 10년간 사용해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해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약령사 법당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령 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잘됐다 못됐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다보면 공부는 팡입니다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궂어도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百種)을 지냈는데 그 백종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믿으세요. 내가 움죽거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깐요. 또 참선이고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누워서 보면은 또 와선이 되고요, 앉아서 보면은 그대로 좌선이 되고요, 그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이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다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감응이 되고 그 감응이 이제 좀 지나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내세우다보면은 공부는 '팡' 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럭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다 끄달리다 쪼끔쪼끔 가다보면은, 자기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럭하면 영계성으로써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압니까마는 그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그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게 김이 올라와서 귀로 들리고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돌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이,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英靈)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하지만 가정이 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아이,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은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거,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 이러더라도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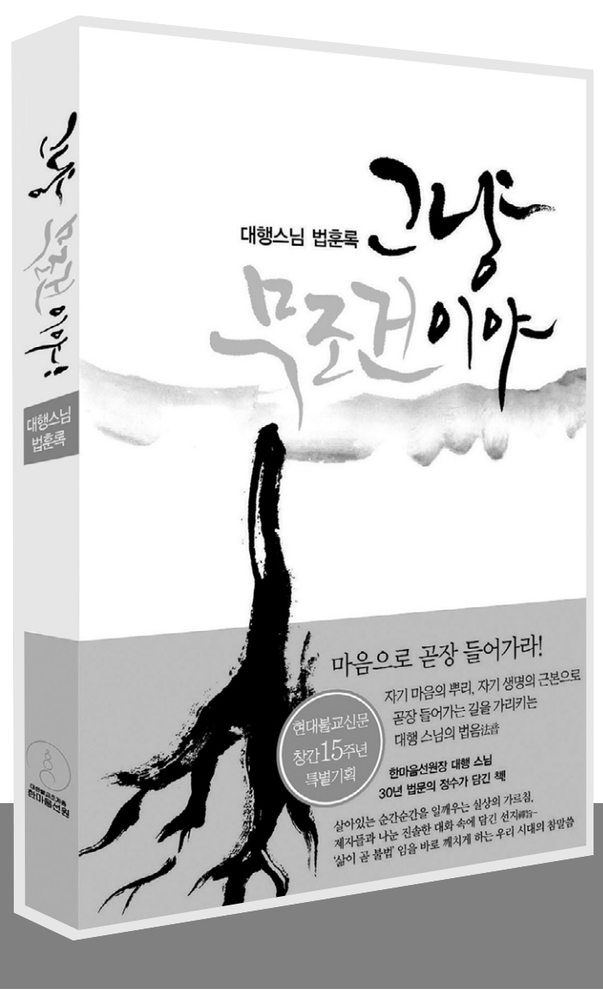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그렇게 밉게, 그냥 말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깐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야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니깐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여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략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일분 일초만 앞서면은 미래입니다. 일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대중: 네.

큰스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거는 내 몸과 더불어 같이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종이 또 무엇이냐. 백종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참 말을 하려면 긴데요, 길어도 할까요?

대중: 예.

큰스님: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 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무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토끼가 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은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허허허.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실에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은 미래로 해서 한번 쓱 돌아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서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난다든가, 또 고양이로 태어난다든가 하는데 그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을 지켜준다고 그 집 가서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을 고치다가 보면은 천석꾼이다, 뭐 만석꾼이다 하고 그러다가 아, 집이 헐어져서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아, 그놈의 걸 잘해서 딴 데로 옮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은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싹 망하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실치 않은 거는 말을 해서 한데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데 떨어진다구요. 그랬듯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릇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묵언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가 다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그러려니 요렇게 하진 마세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내 국내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걸로 다가 취급을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땅 속에서 사는 미꾸라지나, 무슨 지렁이나, 무슨 벌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죠.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모이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모이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가라 오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듯이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배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벌레로 갈 놈은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갈 놈은 사람으로 가고, 짐승으로 갈 놈은 짐승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깐 억울합니까? 하하하. 내 한생각이 잘못돼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은 그 과보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 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으면은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르는 거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 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건 소용 없죠. 그냥 목을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어 버리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불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를 콧잔등이를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은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 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엉엉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째에 주의해라. 죽여놓은 것도 많은데 생생한 거 먹는다고, 허허, 뭡니까?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구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내 젊어서부터 계속 사냥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나간다는데 부인이 아주 그냥 언짢더랍니다, 절에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사냥 가지 마시오, 마시오." 그러니까 "아이구 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마리 잡아다가 먹어야지." 하하, 아! 이러고선 나가거든요. 그래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그래 내버려뒀더니 저녁에 죽었다고 오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총을 쏜다 쏜다 하는 것이, 그냥 사냥꾼 있는 거를 짐승으로 봐서 쏴가지고는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그냥 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사냥꾼들 둘이서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사자인 줄 알고 쏴서, 그냥 돌이 굴러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떠한 데는 어린애를 낳아놓으면은 짐승의 혼백이, 영혼이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너도 자식을 길러봐라 하고요. 영혼이 태어나서 보면은 무진하게 뛰고 속썩이고 무진하게 그러는 게 다 그런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립니다. 원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과보가 돼서, 업보가 돼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깐 애만 낳으려고 할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거를 찬찬히 자기 애와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놓고 '좀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한, 물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지해 주소서.' 하고 '점지해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실질적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앞으로 요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또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니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깐요. 내 몸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옴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옴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옴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 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 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용 도	기 타
옴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엉이걸이(大) 부엉이걸이(中) 부엉이걸이(小)	20,000원 15,000원 10,000원	국내제작 국내제작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목어걸이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진관사와 8.15의 의미



법해 스님
진관사 총무

2009년 5월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의 사료들은 일제 강점기 식민치하에서 독립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자료들이다. 이 진귀한 자료들은 기존에 연구된 독립운동 사료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희귀본들이다. 또한 이 자료들은 상해임시정부와 국내 독립운동단체들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다.

태극기와 독립신문 자료들을 진관사에 비밀리에 보관한 사람은 백초월 스님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월스님은 진관사 및 진관사 마포포교당 등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보냈다. 또한 직접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두 번이나 투옥되었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시작될 때 33인의 종교인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동참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친일 행적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반면에 만해와 용성 등 두 스님은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종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복의 희망을 불어 넣었다. 더불어 초월스님은 옥사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조국은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불교계의 독립운동 전개과정에서 진관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임시정부를 연계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쉬웠고, 지리적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들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오늘 날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일부는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국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중 소수는 민주화 운동과 반정부 활동, 그리고 반국가적 활동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8.15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떤 운동이나 이념도 국가가 존립할 때 비로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목숨을 던져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의 행복은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망쳐서는 안 된다. 매년 3.1절을 기념하고 8.15를 돌이켜 생각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도 선조들이 보여준 애국애족의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나라를 중국에 빼앗기고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베트를 보면 독립국가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다. 분단된 국토를 통일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을 보면서 통일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오랜 권위주의적 독재정권하에서 신음하던 이집트와 리비아 등이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도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 국민들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여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리아 사태를 보면서 국민과 정권의 화합과 민주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다.

일장기에 그린 진관사 태극기
역사 창출의 메시지 담아내
선열들 '애국애민' 되새겨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애국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힘이 분산될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남북통일이 그것이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며, 같은 역사를 공유한 남북한이 서로 분단되어 고통 받는 현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민적 과제이다. 매년 맞이하는 광복절이지만 특히 올해는 지역, 계층,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합을 이루어 통일로 이어지는 초석이 놓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사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남북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진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동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고,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번영과 행복과 발전으로 회향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축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해외봉사, 참사람 키우는 기회



손재현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부단장, 체육교육과 교수

지난 7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학생 30명과 함께 8월 4일까지 15박 16일간 알마티 지역 노인요양병원에서 쉼터를 짓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실 이번 해외봉사는 단순한 봉사 차원을 넘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가 강했다. 계절학기 2학점 이수를 비롯해 현지 한국어학과 학생들과의 멘토링, 봉사 이후 1주일간 카자흐스탄 신한은행에서의 인턴쉽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지에서 학생들의 활동은 이러한 것을 넘어 스스로 내면의 본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긍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그 어떤 것 보다 큰 소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쉼터를 만들고 '기왕 만들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하며 야간작업까지 진행했던 봉사단원들, 열악한 사정으로 사다리 등 작업도구도 직접 만드는 것을 보며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또 봉사가 끝나면 회의를 통해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 스스로 토론하고,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토목일을 해본 이가 다른 학생들을 도반으로 이끌고, 서로 도우며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참사람을 키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카자흐스탄의 열악한 상황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에게 주는 것의 중요성, 또 받는 것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산교육의 자리이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해 알마티 시를 돌아볼 때의 일이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한 "교수님,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네요. 돌아가면 열심히 해야겠요"란 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가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인원에게만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해외봉사단을 모집하는데 세 번, 네 번째 도전 만에 가게 됐다는 학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한번 가볼만 하다', '좋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먼저 참여한 이들이 각종 모임에서 봉사단 참여를 추천해주는 힘이 크다.

카자흐스탄 일원에 쉼터 건립
도우며 봉사하는 모습 '흐뭇'
해외봉사 확대위한 지원 필요

하지만 다양한 해외 참여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각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봉사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특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에는 불교NGO인 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이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10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스님이 함께 나무를 나르며 일일이 학생들과 소통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스님과 대화하며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뀌었다고 말했다. 어떤 학생은 '아, 내가 다니는 학교가 불교종립학교구나' 느꼈다고도 말했다.

불교계 NGO들은 세계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학교와 불교계 NGO 등이 교육이 현장에서 서로 돕는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해외봉사 현장의 확대는 불자로서 자비정신을 가슴에 품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이 미래의 동량으로 자라 날 수 있게하는 해외 봉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부탁하고 싶다.

社說

日 불교, 동국사에 참회비 세우는 뜻

올해로 한국은 광복 67주년을 맞는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불교의 전후(戰後) 참회가 담긴 '참사문(懺謝文)' 비문을 제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에서 전액 건립 불사 비용을 쾌척해 세워지는 이 비문은 1992년 일본 조동종이 발표한 '참사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조동종의 참사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유감 표명과는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참사문에는 명성황후 시해를 일본이 저지른 폭거라고 규정했으며,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심전개발(心田開發)'에 동조했던 과오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절절한 사죄와 참회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번 비문 건립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일이다. 이들의 참회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에 비문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불교인들이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객관화된 사실로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후세를 교육시키는 게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의 숙제다. 이치노헤 스님이 인터뷰에서 밝혔듯 일본은 전쟁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한국은 일본을 불신한다. 이제는 이런 인식을 넘어야 할 때다.

동국사에 세워질 '참사문 비'가 해묵은 한일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만해학의 세계화는 대작 불사다

'공감 · 상생'. 세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는 의미다. 만해 스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사상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인지 이번 2012 만해축전의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올 만해축전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만해학 연구의 지평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만해학 연구는 그동안 국내서 시문학, 독립운동사, 불교사상 등의 측면에서 주로 조명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구 지평을 넓혔다. 이는 세계속으로 발길을 넓혀 외국 사상가들과 동등한 눈높이서 비교 검토를 통해 만해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지 천명인 것이다.

만해 스님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한데 이어 중국까지 침략한 1930년대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불교혁신과 더불어 평화혁명을 주창했다. 이런 만해의 평화공존과 인간존중 사상은 일본과 인도 등지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사상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갈구하는 희망이자 발원의 주옥같은 언어들이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철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것만이 아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해축전서 수여하는 만해대상 학술상과 문학상은 2004년부터 국내 학자에서 수상자의 외연을 넓혀 해외 저명 학자들에게도 시상하고 있다. 그동안 데이비드 맥캔, 월레 소잉카, 루이스 랭카스터, 로버트 버스웰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학자들이 수상했다.이렇듯 만해학의 세계화는 이미 8년전부터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만해학의 지평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만해' 등이 후속적으로 연구돼 만해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길 고대해 본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서 만해 스님의 심오한 사상과 철학 정신이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삶의 지표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소림 벽면 달마도

이제까지 보아 온 달마도가 아닌 완전 새로운 모습의 소림 달마도

달마대사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대사께서 행사신 면벽도는 달마도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소림사의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거사님께서 불교계에 입문하게된 보은으로 오랜 연구 끝에 108가지 모습의 백팔 달마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모습들을 선정해 그린 108장의 달마도를 다시 108번 그려서 11,664장의 달마도를 불자님들께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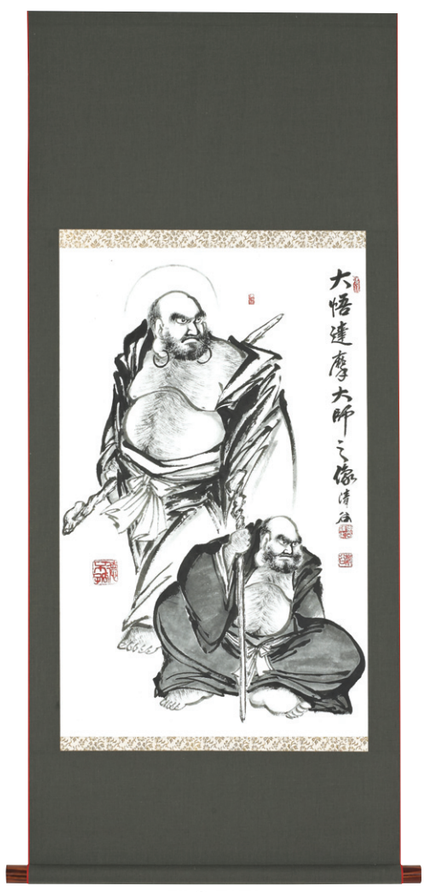
또한, 모든 불자님께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0만원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표구대와 제작비인 99,800원의 가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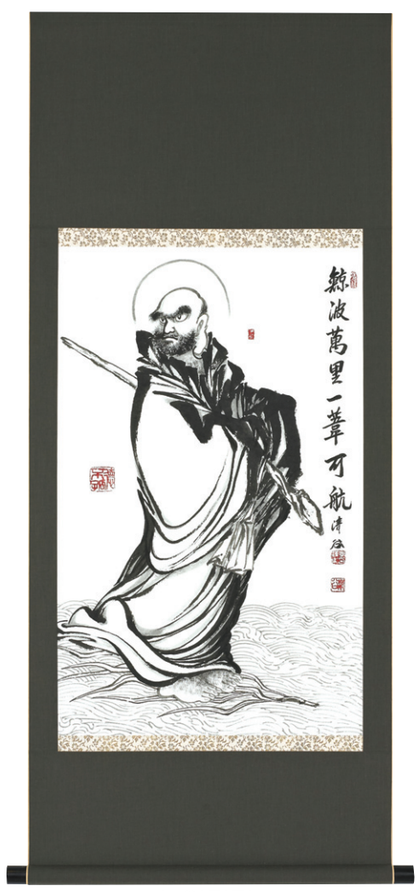
소림 면벽 달마도는 꼭 벽에 걸어 놓지 않아도 상자에 넣어 보관만 하여도 기를 발산되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드리며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림이 변하지 않고 습기를 제거하고 좀이나 벌레가 쓸지 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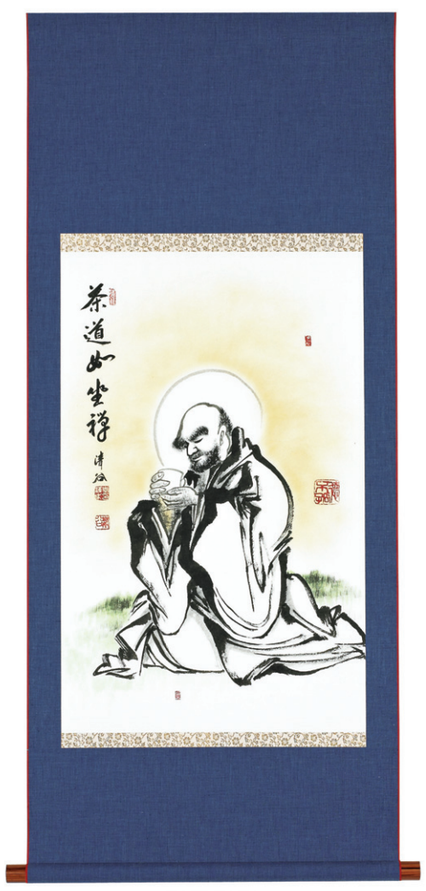
소림 달마도를 집안이나 사업장에 모셔두면 그림속에 발산하는 기로 인해 삼재 소멸 및 가정이 평안해 질 것입니다. 특히, 개업을 하시거나 집안에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셔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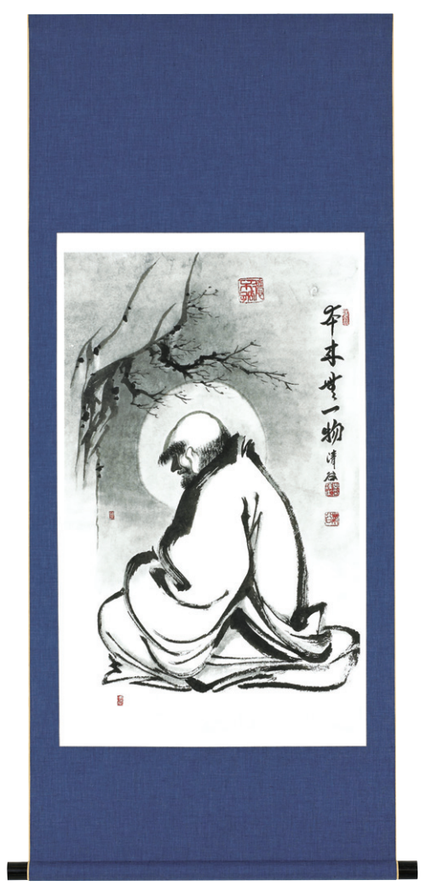


※ 전품목 사은품으로 용달마 순금카드 1점을 드리며 진품 확인서도 같이 드립니다.


대오달마


노엽달마


다도달마


면벽달마


보관함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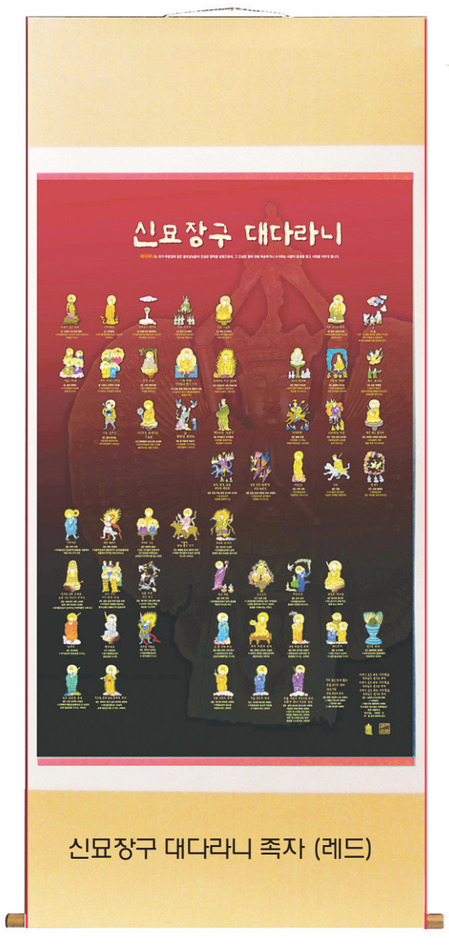
- 크기 : 125Cm×60Cm
  (오동나무상자, 핀고리박스 포함)
- 가액 : 99,800원 + 사은품


<사은품>
용 달마 순금카드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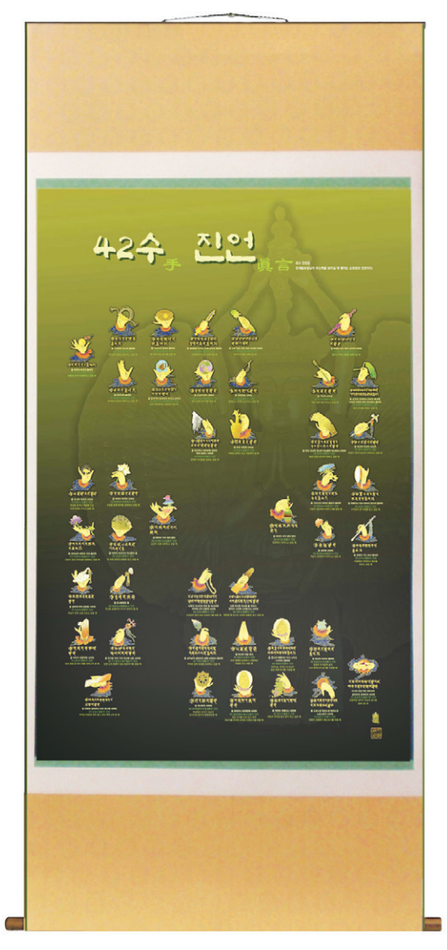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